

인도네시아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2
주요인사	/14
외교관계	/16
주한주재국기관	/20
한국과의 주요이슈	/20

II. 경제

경제정책	/24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29
주요 산업 동향	/39
정보조사 자료원	/45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통계	/46
무역통계	/46
투자통계	/50

IV. 출장가이드

기후	/52
시차.근무시간	/53
도량형	/53
출입국.비자	/54
환율.환전	/56
물가정보	/57
교통.통신	/60
호텔.식당	/62
관공서 관행	/66
공휴일	/67
여행시 유의사항	/68
유용한 연락처	/69
관광명소	/71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73
수입규제제도	/74
관세제도	/77
주요인증제도	/80
지적재산권	/80
소비자보호제도	/83
교역관련 국가기관	/83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84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86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98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98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101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103
운송	/105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107
유형별 분쟁사례	/107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108

우리기업 투자동향 /109

2. 법인설립

투자환경 /111

투자인센티브 /117

타당성조사 /118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119

입지선정 /123

공장 설립 /131

투자관련 정부기관 /131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133

3. 사업관리

노무관리 /133

조세제도 /136

외환관리 /139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140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위 치	동남아시아
면 적	190만 km ² (한반도의 9배)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수 도	자카르타 (인구 약 1,050만 명, 면적 664km ²)
인 구	약 230 백만 명 (세계4위)
주요도시	○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 자와섬 ○ 메단, 팔렘방, 빠당: 수마트라섬 ○ 뽀따아낙 : 칼리만탄 ○ 마카사르: 술라웨시섬 ○ 덴빠사르: 발리섬
민족(인종)	자바족(4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언 어	인니어(Bahasa Indonesia)
종 교	이슬람교(89%), 기독교(5%), 힌두교(3%), 불교(2%), 유교(1%)
건국(독립)일	8월 17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자료원: 인니통계청, 인니정부

나. 경제지표 (2005년말 기준)

GDP	약 US\$ 2,814억
실질경제성장률	5.6 %
1인당 GDP	US\$1,250
실업률	10.0%
물가상승률	14.55% (2006년 9월, 1년 물가상승률 기준)
화폐단위	Rupiah
환율	US\$1 = 9,155 Rupiah (2006.11. 29 현재)
외채	US\$1,360 억
외환보유고	US\$ 398.95억불(2006년 10월말 기준)
산업구조	석유, 가스 산업, 농업, 제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
교역규모	US\$ 1,431 억(수출 US\$ 856억, 수입 US\$ 575억)
주요교역품	○ 수출: 원유, 가스, 임산물, 금속광물, 종이제품, 섬유, 신발, 혁제 ○ 수입: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 및 가정용전자, 전자부품, 유기 화학 제품

자료원: 인니통계청, 인니정부

다. 한-인니 관계

체결협정	-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71.8) - 건설협력 양해각서(81.7) - 임업협정(87.6) - 항공협정(89.9) - 이중과세 방지협정(89.11) - 투자보장협정(91.2) - 법무자료 교환협정(96.12)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97.11) - 건설협력약정(99.4) -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00.11) - 사법공조협정(02.3) - 자원협력협정(02.4) - 도로협력약정(03.1) - 한아세안 FTA협정(06.5)
교역규모	US\$ 132억 30백만(2005년 말 기준)
교역품	○ 대 인니수출 - 경유, 철강,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자동차, 전자 부품, 무선통신 장비 및 부품, 직물류 등 ○ 대 인니수입 - 석유, 가스, 광물자원 등
투자교류	1967-2005기간 동안 한국은 2,327건 US\$135억 1백만 불 투자진출 (인니 투자청(BKPM) 승인기준), 국내 투자 유치는 전무
교민	약 2만 5천여 명의 교민이 거주 (자카르타 22,000명, 수라바야 600명, 반둥 400명 등)

자료원: 인니통계청, 인니정부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국가제도 >

가. 대통령(PRESIDENT)

1) 대통령의 선출 및 임기

그 동안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가 최고기관인 국민협의회(MPR)에서 선출하였으나 2002년 9월 국민협의회 결정에 의거, 국민의 직접선거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토록 되었으며 2004년 7월과 9월 2차에 걸친 대선투표로 수실로 밤방 유도 요노 후보가 최초의 직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 대통령의 권력(임무)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공식국가원수, 행정부의 수반, 입법권자, 사법권의 수행자 및 국민협의회회의 피위임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다.

3) 공식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인도네시아 헌법 본문에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공식 국가원수라는 조항이 없으나, 헌법 설명문(헌법의 내용과 같은 법률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 “대통령은 국민협의회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 수행자이며, 국가원수의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다” 라고 되어있다.

4)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헌법 제4조와 5조에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을 주며,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령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군(육군, 해군, 공군)의 최고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 국가 위급 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외교관을 임명하고, 외국 외교사절을 받는다.
- 국가유공자에게 호칭 및 훈장을 서훈한다.
- 긴급을 요할 시에는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5) 입법권자로서의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공식 입법권은 국회에게 있지 않고,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는다."라고 헌법 제5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독립 이래 현재까지 공포된 거의 모든 법률은 국회에서 입안하여, 국회의 절차적인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공포로 발효되었다. 최근 발효된 정치관계법(정당에 관한법, 국민협의회, 국회 및 지방의 회의 조직 및 위치에 관한 법)마저도 행정부에서 입안하여,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의 입법기능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행령과 행정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책규정(대통령령, 대통령지시, 장관령, 지방조례 등)등도 있다.

6) 사법권자로서의 대통령

대통령은 사법부(판사)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소속인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감형, 사면 및 복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7) 국민협의회 피위임자로서의 대통령

국민협의회는 향후 5년 동안의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이 국정목표 달성수행을 위한 임무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국민협회의 국정목표 수행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다. 헌법 제3조에 대한 설명문에 의하면 "국민협의회는 국가의 주권을 쥐고 있으므로 그 권한은 무제한이다. (Oleh Karena MPR memegang kedaulatan Negaramaka kekualasaannya tidak terbatas)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권한의 한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거의 무제한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나. 행정부

- 대통령(임기 5년)이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의 지위를 갖는다.
- 68.6월 경제안정과 경제개발 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제1차 개발내각이 발족 한 이래 수하르토 전대통령 하에서 제7차에 걸쳐 개발내각이 구성되었다.
- 98.5월 수하르토 전대통령이 사임하고 하비비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 과도 정부를 구성, 99.6.7 총선을 실시하였으며, 99.10.20 대통령선거(10.21 부통령선거)에서 Adurrahman Wahid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2000.7.23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으로 메가와티 부통령이 국민협의회 특별회의에서 대통령 직을 승계하였고, 7.26 Hamzah Haz 통일개발당 총재가 부통령에 선출되었다.
- 2004.9.20 실시된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 지방행정기관은 32개주(Province, 이중 Jakarta, Yogyakarta, Aceh는 특별지구), 327개 군(District 또는 Regency), 55개 구(Municipality), 3,841개면(Sub-district)으로 구성되었다.
 - 과거 27개 주에서 동티모르의 분리로 26개 주로 감소하였으나, Bangka Belitung, Banten, Gorontalo, Maluku Utara, Papua Barat, Kepulauan Riau등 6개주 신설로 32개주가 되었다.

다. 국민대표기관: 국민협의회(MPR), 국회(DPR), 지역대표회의(DPD)

1) 국민협의회 (MPR: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 주요기능
 - 헌법제정 및 개정
 - 대통령, 부통령의 탄핵
 - 전에는 대통령 선출 및 임명권까지 가진 막강한 조직이었으나, 신헌법 하에서는 권한이 약화됨.
- 구 성: 678명
 - 지역대표(DPD): 128명
 - 국회의원(DPR): 550명
- 임 기: 5년(2004.10-2009.9)
 - 2004년 5월 선거에서 선출 됨.
- 의장단
 - 의 장: Hidayat Nurwahid(PKS/복지정의당, DPR)
 - 부의장(3명): AM Fatwa(PAN/국민수권당, DPR), Aksa Mahmud(DPD, 남부 슬라웨시), Moeryati Soedibyo(DPD, 자카르타)

2) 국 회 (DP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주요기능
 - 입법권
 - 예산결정 및 예산집행 감독
 - 행정부 견제(단, 정부 불신임권은 없음)
- 구 성
 - 550명
 - 인구 비례로 총 69개 선거구에서 선출
- 임 기: 5년(2004.10-2009.9)
- 의장단
 - 의 장: Agung Laksono(GOLKAR당)
 - 부의장(3명): Soetardjo Soerjogoeitno(PDI/인니투쟁민주당), Yahya Muhaimin (PKB/국민 계몽당), Zainal Ma'arif (PBR/개혁성당)

3) 지역대표회의 (DPD: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 주요기능
 - 지방행정, 지자체 관련사업, 정책 심의 및 입법권
 - 지방 분권관련 사항 입법권
 - 지자체 관련 예산 사항 심의
- 구 성
 - 128명
 - 32개주에서 주별로 4명씩 선출, 정당이 아닌 개인자격 출마
- 임 기: 5년(2004.10-2009.9)
- 의장단
 - 의 장: Ginandjar Kartasasmita(서부 자바)
 - 부의장(2명): Irman Gusman(서부 수마트라), Laode Ida(남동 슬라웨시)

라. 최고자문위원회(DPA: The Supreme Advisory Council)

- 주요업무
 - 정부자문 기능
 - 대통령 질의에 대한 답변
 - 대통령에 대한 정책제안
- 책 임
 -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직접책임은 없으나, 국가 최고기관의 하나로서 국가번영과 사회정의 구현에 대해 책임

○ 구 성

-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며 임기는 5년
- 위 원: 정치지도자, 노동지도자, 지역지도자, 기타 사회지도자(단, 대통령, 각료, 국회의원 등을 겸직할 수 없음)
- 의장과 4명의 부의장 및 4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정치·경제·사회복지·국방안보 분야별 4개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처가 있음.

마. 사 법

- 3심제로서 대법원, 고등법원(26개), 지방법원 및分院(326개)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하급법원을 지도 감독함.
- 국방부 관할의 군사 재판소, 종교부 관할의 종교 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각 관할 사건을 담당함.
- 검찰기관으로서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있음.
- 2003년 12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설됨.

< 정치제도 >

가. 정 당

1) 개 요

65년 인니공산당 쿠데타 진압 이후 최초로 실시된 71.7 총선 시 9개 정당과 1개 직능그룹 등 다수 정당이 난립하였으나, 총선 후 2개 정당과 1개 직능그룹으로 정립되었다.

99.1월 선거법과 정치단체법 개정을 통해 총선 참가자격이 완화되어 48개 정당이 참가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정당 설립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004년 총선 전 등록된 정당수가 50개에 달해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정당으로 제한하였다. (아래 마항의 선거제도 참고)

2) 주요정당

□ 인니투쟁민주당 (PDIP)

73.1 비회교계 5개 정당이 통합하여 설립한 인니민주당 (PDI: Indonesian Democratic Party) 이 96.6. Medan 전당대회에서 Megawati Soekarnoputri(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영애, 전 대통령)를 축출하자, Megawati의 지지세력이 세운 정당이다. 98.10. 발리에서 전당대회를 개최, Megawati Soekarnoputri를 차기 대선후보로 지명하였다.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정당으로 과거 수하르토정권 시절 동 정권을 비판해 온 선명야당으로서의 기치를 내걸고 1999년 총선에서 제 1당으로 부상하였으나 2004년 선거에서는 제 2당으로 물러섰다.

□ GOLKAR당

과거 수하르토 정권시절 재벌기업 및 전문직업인층을 비롯 250여 개의 산하 정치, 사회 단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던 인니 최대 정치세력 결합체였으며, 98.3월에 정식 정당으로 출범하였다. 98.7 특별전당대회에서 Akbar Tanjung을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99년 선거에서 Megawati 의 PDIP에 이어 제 2 당으로 전략하였으나, 2004년 선거에서 제 1당으로 복귀하였다. 2004년 대선에서는 전직 군사령관인 위란토장군을 후보로 내세웠으나,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하여 집권에 실패하였다. 집권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 2004년 12월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악바르 판중 총재를 퇴진시켰으며, 부통령인 유습 깔라를 당 총재로 선출하여 여당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

□ 통일개발당 (PPP)

73.1 회교계 4개 정당이 통합하여 전체인구의 90%인 회교도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NU 등 주요 회교단체의 이탈(1987년) 및 당권 쟁탈전으로 92년 총선에서는 득표율이 미진하였다. 99년 총선에서 58석을 차지하였으며, 2004년 선거에서도 58석을 차지하였다.

□ 국민수권당 (PAN)

비종파, 비차별주의를 모토로 내세우고 98.7월 창당된 정당으로 Amien Rais 당수(족자 카르타 소재 명문대학인 Gajah Mada 대학 정치학 교수 역임)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바 있다.

99년 선거에서 34석, 2004년 선거에서 53석을 차지하였다.

□ 국민계몽당 (PKB)

최대 회교단체인 NU의 지도자 Abdurrahman Wahid가 이끄는 정당으로 국민주권, 정의 및 단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같은 회교계 정당인 통일개발당(PPP)과 충돌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99년 선거에서 51석, 2004년 선거에서 52석을 차지하였다.

□ 민주당(Democratic Party)

메가와티 정권의 정치. 안보조정 장관이었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를 대선 후보로 영입하면서 인기를 얻어 2004년 선거에서 득표율 5위, 의석수 55석을 차지하였다. 유도요노 후보는 부통령 후보로 Golkar당원이며 기업가 출신인 유습 깔라를 지명하여 대통령에 당선, 집권당이 되었다.

2004년 4월 총선 결과 정당별 의석 수

순위	정 당 명	2004의석수	1999의석수
1	Golkar Party	128	118
2	PDI(Indonesian Democratic Party of Struggle)	109	151
3	PPP(United Development Party)	58	58
4	Democratic Party	55	-
5	PAN(National Mandate Party)	53	34
6	PKB(National Awakening Party)	52	51
7	PKS(Prosperous Justice Party)	45	7
8	PBR(Reform Star Party)	14	-

9	PDS(Prosperous Peace Party)	13	-
10	PBB(Crescent Star Party)	11	13
11	PPDK(United Democratic Nationhood Party)	4	-
12	Pioneer' s Party	3	-
13	PKPB(Concern for the Nation Functional Party)	2	-
14	PKP Indonesia(Indonesian Justice and Unity Party)	1	4
15	PNI Marhaenisme	1	-
16	PPDI(Indonesian Democratic Vanguard Party)	1	2
17	기타 정당	0	18
계		550	458

주: 99년 의원수는 軍에 배정된 의원수 38명과, 통티모르 의무배정의원 4명포함 계 500명

나. 선거제도

인도네시아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직책은 정부통령, 국회의원 및 지역대표, 주지사 및 주의회 의원, 시/군의회 의원 등이다.

1999년 선거까지는 정부통령이 국민협의회(MPR)에서 선출되었으나, 2001년 헌법개정으로 2004년 선거부터는 국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지난번까지 국회의원의 일부(500명중 38명)를 군부에서 차지하던 제도로 2004년 선거부터는 폐지되었다.

1) 정. 부통령 선거

임기 5년의 대통령 선거는 2004년 대선부터 국민 직선제로 치뤄졌으며, 1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면 1,2위를 차지한 후보간에 2차 투표를 한다. 2004년의 1차 투표는 7월 5일, 2차 투표는 9월 20일 실시되었다.

정부통령 후보는 총선에서 5%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만 낼 수가 있다. 그러나 정부통령 출마는 정당이 아닌 개인자격이며, 따라서 선거벽보나 투표용지에 정당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또한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이 당적은 유지한채 런닝 메이트로 정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상관이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유도요노 후보는 Golkar당의 유습 깔라를 런닝 메이트로 지명하였다.

대통령 출마자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인도네시아 의사협회가 구성한 건강검진단에 의해 검진을 받아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지역대표(DPD) 선거

- 새로운 제도로써, 2004년부터 국회(DPR)이외에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되는 Regional Representative Council(DPD)이 새로 도입되었다.
- 32개주에서 각 주 별로 4명 총 128명을 선출한다.
- 피선거권자는 21세 이상의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자, 고졸 이상의 학력, 5년 이상 징역형의 전과가 없는자,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지역대표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마전 3년 연속 또는 17세 이후 비연속 10년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주의 인구수에 따라 1,000명에서 5,0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무원, 군인, 경찰은 출마 4년 전에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 DPD 출마자는 개인자격이나, 정당에 소속되어도 무방하며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 당선자는 주 별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후보 4명으로 결정되며, 차점자들로 예비후보 리스트를 작성하여 당선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순서대로 자리를 승계한다.

다. 국회(DPR)의원 선거

- 인구비례로 총 69개 선거구에서 55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 새로운 선거법에는 선거구당 3-12명을 선출하며, 인구 325천명-425천 명 당 의원1명, 주별로 지난 1999년에 선출된 의원 수보다 작지 않을 것, 새로 생긴 주는 주당 최소 3명 이상의 의원 수를 보장할 것 등이 규정되어있으나, 선관위는 이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선거구당 6-12명 선출에 인구밀도가 작은 주에서는 인구수를 축소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32개 주 중에 9개가 325천명 미만의 인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최소인구수는 서부 이리안자야로 130천 명이며 최대인구수는 서부 자바로 423천명이다.
- DPR의원은 정당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는 불가능하다.
-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당 설립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법무부에 등록된 이외에 다음 요건을 갖춰야한다. (2004년 4월 현재 등록된 정당 수는 50개였음)
 - 1999년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
 - 현재 국회의원 수의 2% 이상을 점유 하고 있거나,
 - 이와 같은 정당과 합당을 하거나,
 - 이 조건에 합치하도록 여러당이 합당해야함.
 - 새로이 결성된 당
 - 2/3이상의 주에 상설 지구당을 가지고 있고,
 - 주별로 1,000명 또는 주 인구의 1/1,000 이상을 당원으로 보유해야함.
- 상기와 같은 조건을 갖춰 2004년에 총 24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 각 정당은 선거구 별로 선출 의원수의 최대 120%까지 후보명부를 작성, 선관위에 제출하였다.
- 유권자 최대 300명당 1개의 투표소를 마련하였으며, 투표용지에는 각정당명과 함께 그 정당의 후보리스트가 병기되어 있는데, 유권자는 우선 반드시 1개의 정당만을 선택해야 하며, 원할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명단 중에서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과거 선거에서는 오직 정당 투표만 가능했는데, 2004년 선거부터는 후보 명단을 병기하여 유권자가 후보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당선자 선정 방법

- 당선자 선정은 총투표 수를 선출 의원 수로 나누어 1명이 당선 되는데 필요한 득표 수(쿼타)를 정함 (5명 의원 선출에 투표 수가 10,000표이면 1명이 당선 되는데 필요한 쿼타는 2,000표)
- 정당 별 득표 수를 쿼타로 나누어 정당별 의원 수를 결정(A 정당이 5,000표를 얻었으면 우선 2석 확보)
- 남은 의석이 있으면 쿼타 배정후 남은 표 수를 계산하여 남은 표가 많은 정당의 순으로 1석씩 배정
- 정당은 선거구별로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원 수를 할당 받으며, 사전 작성된 정당별 서열명부에 의해 의원이 결정됨.
- 그러나 정당이 명기한 서열명부의 하순위에 있는 후보가 쿼타 이상의 표를 얻은 경우 서열에 관계없이 당선

(예 1) 선출 의원수 10명에 투표자 20,000명인 경우(의원 1명당 쿼타는 2,000표)

정당명	득표수	쿼타 배정 의석수	남은 득표 수	추가배정	총의석수	의석비	득표비
A	5,000	2(2,000x2=4,000)	1,000	0	2	20%	25%
B	480	0	480	0	0	0	2.4%
C	1,300	0	1,300	1	1	10%	6.5%
D	2,220	1(2,000x1=2,000)	220	0	1	10%	11.1%
E	7,500	3(2,000x3=6,000)	1,500	1	4	40%	37.5%
F	3,500	1(2,000x1=2,000)	1,500	1	2	20%	17.6%
계	20,000	7		3	10	100%	100%

(예 2)

상기 예 1)에서 A당의 경우 후보가 5명인데, 후보 1번이 300표, 후보 2번이 500표, 3번이 800표, 4번이 2,000표, 5번이 1,000표를 얻었다고 할 때, 쿼타 수를 넘어 득표한 4번 후보와, 당의 후보서열 1위인 1번 후보가 당선됨.

< 정치사회동향 >

가. 정세일반

인도네시아는 1945년 독립 이후 1998년 까지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의 단 2명의 대통령이 집권했으나, 1997년말의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5월 수하르토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하비비 대통령의 과도정부 구성, 1999년 10월 대선에서의 와히드 대통령 당선, 2001년 7월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에 의한 실각과 메가와티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등 불과 3년 사이에 3명의 대통령이 교체되는 혼란기를 맞았다.

Megawati 대통령은 Wahid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 각 정당, 전문각료를 적절히 분배한 협동내각(Gotong Royong Cabinet)을 발족시키는 등 정치, 사회적 안정에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Megawati 대통령 취임 이후 루피아화 가치가 급등, 1불 당 8,500선을 회복하는 등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9.11 미국 테러 참사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반대하는 일부 인니 단체들의 미국인 공격 위협, 반미 시위 전개로 루피아화 가치가 다시 하락하였다.

Megawati 대통령은 임기 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미흡했고, 부정부패가 더욱 극심해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2002.8월 개최된 연례 국민협의회(MPR)에서 2004년부터 대통령 및 부통령을 국민직접투표에 의해 선출기로 하는 한편, 군과 경찰에게 배정되었던 DPR(국회) 및 MPR(국민 협의회) 의석을 폐지기로 하는 등, 민주화 및 개혁에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4월 5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 직접 총선에서 메가와티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과거 수하르토 정권에 대한 향수로 수하르토의 골까르당이 다시 제 1당으로 부상하였으며 메가와티 현 대통령의 투쟁 민주당은 2당으로 물러섰다.

2004년 7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는데, 투쟁민주당의 메가와티 대통령과 골까르당의 위란토 후보, 민주당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후보가 각축을 벌여, 유도요노 후보가 1위, 메가와티 후보가 2위, 위란토 후보가 3위를 차지하였으나, 누구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1위인 유도요노 후보와 2위인 메가와티 후보가 결선 투표에 나서게 되었다. 9월 20일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유도요노 후보는 메가와티 후보를 62:38의 큰 표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유도요노 후보는 군 출신으로 메가와티 정부의 정치, 안보 조정장관을 지냈으나, 청렴하고 고지식한 성격으로 인해 대통령과 불화를 빚어 사퇴한 바 있는데, 정치적 기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도가 높아 과거 수십 년 동안 집권한 골까르당의 강력한 조직과, 메가와티 후보의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선 후 집권당인 민주당은 20% 밖에 안되는 의회 의석수로 인해, 투쟁민주당과 골까르당은 선거 패배에 따른 내부 혼란으로 인해 각각 어려움을 겪었다.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골까르당의 소장파들이 유도요노 후보를 지지한데 반해 악바르 탄중 당 총재 등 원로들은 메가와티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유도요노 후보가 결선투표 지지를 대가로 각료 배분 등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악바르 탄중 골까르당 총재는 12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총재직에서 축출되었으며 유도요노 후보의 런닝 메이트로 골까르당원인 유습 깔라 부통령을 당 총재로 선출하였다. 이에 따라 유도요노 대통령은 의회에서 골까르당의 지원을 받게되어 큰 힘을 얻게 되었으나 반면에 부통령의 파워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2004.10.21 취임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취임 100일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부정부패 척결, 투자유치 확대, 국가 인프라 확충 등 정책 목표를 내세우면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반응도 좋아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S & P는 2004년 12월, 인니 장기외채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상향 조정하였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국가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부정부패 척결을 중점 정책과제로 삼고, 2005년초 자카르타에서 인프라 서밋을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니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2004년말 발생한 쓰나미 재난도 자카르타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ASEAN 특별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여 자연재난의 위기를 외국 원조 확대의 기회로 연결시키는 수완을 보여주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취임 후 각종 행사와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등 인근국 순방외교를 통해 투자유치 확대를 꾀하고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등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11월 초에 개최한 ‘인도네시아 인프라스트럭처 2006’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 이후 일본, 러시아 등을 국빈 방문해 정상외교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지역내 위상 강화를 적극 도모해 가는 중이다.

11월 20일에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12월 초에는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 예정이어서 인도네시아의 역내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나. 분리독립 문제지역

동티모르 문제는 2001년 5.5 유엔 사무총장 주선하에 Alatas 인니 외무장관과 Gamma 포르투갈 외무장관간에 동티모르 자치안을 포함한 일반협정, 주민협의방식 협정, 치안유지 협정이 체결되어 동티모르 자치안에 대한 동티모르인의 주민투표가 유엔주관으로 8.30 실시되었다.

이 투표에서 찬성 21.5%, 반대 78.5%로 동티모르 자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친인니계 민병대원들의 난동으로 수백명의 동티모르 주민이 사망하는 등 동티모르내 치안부재 상태가 초래되어 인니정부는 동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증파하였으나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은 동티모르의 평화회복과 치안유지를 위해 9.15 다국적군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유엔결의 및 인니정부 요청에 따라 보병, 공병 및 의무대 등 419명을 동티모르에 파견, 다국적군에 참여하였다.

국민협의회 (MPR)는 10.19 동티모르 독립을 공식 비준하였으며, Wahid 대통령은 동티모르에 대한 인니 주권의 이양에 관한 공한을 10.28 Annan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동티모르에 대한 24년간의 인니 통치는 공식 종식되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2002.5.20 동티모르 독립기념식에 직접 참석, 선린우호관계 추진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동티모르 독립에 자극 받은 아체, 이리안자야, 리아우 등 여타 지역에서의 분리독립 요구 움직임이 점차 강해졌으며, Maluku, 중부 칼리만탄에서 종족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체지역의 경우 인니정부는 자유아체운동(GAM)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한편 군사작전수행 위험도 병행하여 왔으나, 2003.5.17이후 아체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포함한 "Combined Operation"을 대대적으로 실시, GAM 소탕에 나섬으로서 아체지역내 무력충돌이 확대되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2002.12월 인니정부와 GAM간에 체결된 "적대행위 종식에 관한 협정" 발효 후 약 2개월 동안은 양측이 협정이행을 위해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GAM측의 아체분리독립 추구하고 무기 반납 거부 및 인니정부의 강경대응 등으로 인해 결국 동협정은 사문화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측의 대립이 완화되어 2004년 5월 인니 정부는 동지역에 내렸던 비상계엄 조치를 완화하였다.

2004년 12월말 아체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 피해로 인해 2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사망하여 GAM의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GAM과 인니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회담을 2005년 1월 18일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개최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인니 정부는 아체지역의 재건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충돌을 피해야 하고 또 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GAM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으며, GAM 또한 쓰나미 피해로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워 2005년 8월, 마침내 양측은 평화 협정 체결에 성공하였다.

2006년에 들어와 해외에 망명하였던 GAM지도자들이 귀국하면서 아체지역재건에 대한 인니 정부와의 협조분위기가 형성되었고 12월 11일로 예정된 아체주 지방선거에서 주지사로 출마 선언까지 할 정도로 화해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자치의 정도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음)

다. 사회 동향

하비비 집권시부터 시작된 점진적인 정치·경제개혁 조치와 아울러 IMF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금융·재정지원으로 IMF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나, 일반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가시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사회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편으로 미국-이라크 전쟁에 따른 테러 확산과 이슬람 국가로서 인니가 테러범 등의 활동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들의 행동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인니 여행을 자제하도록 자국민들에게 경고를 한 가운데 2004.9월 자카르타의 주인니 호주대사관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수십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 10월 1일에는 발리에서 또다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다.

이슬람교와 기독교간의 충돌도 심심치 않다. 인니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들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도에 의한 기독교도 탄압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여름 태국에서 발생한 태국 정부의 이슬람 반군 탄압 사건 이후 인니 이슬람교도들의 기독교도에 대한 테러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크리스마스 때는 기독교도들이 테러를 의식, 집회를 자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와 같은 종교분쟁은 인니 사회의 또 다른 불씨이고 갈등 요인이라고 하겠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5년 3월 연간 35억\$이 넘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있는 유류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유가를 29%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99년 수하르토 대통령이 IMF의 권고에 따라 유류를 인상하려다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데모로 결국은 해야하게 된 바, 유도요노 대통령의 유가인상 조치에 대한 사회불안이 걱정되었으나, 일부 소규모 데모가 있었을 뿐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부의 유류보조금이 100억\$을 넘게되자 재정의 압박이 우려되고, 국영석유공사(Pertamina)의 유류 수입액 증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로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자 정부는 이자율 인상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한편, 보조금 감축을 통해 국내 유가를 현실화 시키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빈곤층의 반발을 우려, 5인 가족 기준 월 소득 70만 루피아(미화 70\$)이하인 가정 약 1500만 가구에 대해서는 월 10만 루피아의 현금 지원을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류 보조금은 부유층도 혜택을 보는 만큼, 이를 빈곤층에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며, 실제 수혜자들이 피부로 지원을 느낄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2005년 10월 1일부로 무려 126%의 국내 유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빈민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유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인 소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유가인상의 여파로 물가가 상승하고, 은행이자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2006년 상반기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는 경기불황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경제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어서 큰 사회불안으로 번지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로 대규모 시위가 우려되었던 5월 1일 노동자 시위도 큰 소요사태가 없이 지나가면서 정치 불안요소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아직까지 경기침체에서 힘겨워하고 있으나, 오토바이나 가전 매출 등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연말까지는 지난해 GDP성장률이었던 5.6%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주요 인사

가. 국가원수

- 성명: Susilo Bambang Yudhoyono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 생년월일: 1949. 9. 9일생 (57세)
- 종교: 이슬람교

- 가족관계: 기혼
 - 영부인: Kristiani Herawati (부친이 전직 외교관으로, 주한대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영부인도 한국에 거주한 적이 있어 한국에 호감도가 높음)
 - 자녀 2남: Agus Harimurti Yudhoyono, Adhie Baskoro Yudhoyono

- 학력
 - 육군사관학교
 - 반둥 농과대학 농경제학 박사

- 주요경력
 - 국군 사회정치 참모장(1999)
 - 와히드 정권 에너지광업부 장관
 - 메가와티 정권 정치안보조정장관

- 임기: 2004.10. 21 취임 -2009년 10월 20일까지(5년)
 - 유도요노 대통령은 유습칼라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대선에 출마, 2004년 7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득표율 38%로 과반수 득표에는 실패.
 - 다시 2004년 9월 20일 결선투표에서 60.6%의 지지를 얻어 메가와티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정부부처 주요인사 (부처 및 장관 안내)

	정부부처	장관명
COORDINATING MINISTERS		
1.	Coordinating Ministry for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Adm. (ret) Widodo A.S.
2.	Coordinating Ministry for the Economic	Boediono
3.	Coordinating Ministry for People's Welfare	Aburizal Bakrie
MINISTERS(部)		
4.	Ministry of Home Affairs	Lt.Gen.(ret)H. Muh. Ma' aruf
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ur Hassan Wirayuda
6.	Ministry of Defense	Juwono Sudarsono
7.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Hamid Awaluddin
8.	Ministry of Finance	Sri Mulyani Indrawati(女)
9.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Purnomo Yusgiantoro
10.	Ministry of Industry	Fahmi Idris
11.	Ministry of Trade	Mari Elka Pangestu(女)
12.	Ministry of Agriculture	Anton Apriyantono
13.	Ministry of Forestry	H.M.S. Kaban
14.	Ministry of Transportation	Hatta Rajasa
15.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Freddy Numberi
16.	Ministry of Cooperatives, Small and Med. Ent.	Soegiharto
17.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Erman Soeparno
18.	Ministry of Public Work	Djoko Kirmanto
19.	Ministry of Education	Bambang Soedibyo
20.	Ministry of Social Affairs	Bachtiar Chamsyah
21.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Maftuh Basyuni
22.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Jero Wacik
23.	Ministry of Health	Siti Fadilah Supari(女)
STATE MINISTERS(廳)		
24.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	Kusmayanto Kadiman
25.	Ministry of Cooperativ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 Surayadharma Ali, M Si
26.	Ministry of Environment	Rachmat Witoelar
27.	Ministry of Women Empowerment	Meutia Farida Hatta(女)
28.	Ministry of Administrative Reform	Taufik Effendi
29.	Ministry of the Acceleration of Development of Eastern Indonesia	Saefullah Yusuf
30.	Ministry of State Owned Enterprises	Soegiharto
31.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s	Sofyan A. Djalil
32.	Ministry of Public Housing	Muhamad Yusuf Asyari
33.	Ministry of Youth and Sports Affairs	Adhiyaksa Dault
LEVEL STATE MINISTERS		
34.	Ministry /State Secretary	Yusril Ihza Mahendra
35.	Cabinet Secretary	Sudi Silalahi
36.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Paskah Suzetta
37.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Abdul Rahman Saleh

4. 외교관계

가. 기본외교정책

-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비동맹 중립외교 강화 비동맹의 창설회원국으로서 비동맹의 순수성 회복을 통한 실질 협력 추구
- 경제발전추진을 위한 경제 실리외교 5개년 경제 개발계획 이행지원 대 인니 원조그룹 (CGI: Consultative Group for Indonesia)을 통한 경험자금 지속 확보
-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국내 및 지역안정 유지 외교 아세안 회원국간의 결속을 통한 역내 안정 유지
- 인니의 안정과 영토 일체성 유지를 위한 지지 확보

나. 외교방향과 주요시책

1) 신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적극적 역할

- 신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UN, ASEAN, NAM(비동맹 운동), OIC(이슬람회의 기구)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도국간의 협력 강화로 역할 증대 노력
- 각종 국제적, 지역적 분쟁에 있어 역할 증대

2) 역내 협력체제 강화

- 동남아 평화, 자유, 중립 지대화 실현 노력 강화
- ASEAN의 확대로 역내문제의 ASEAN 주도 촉구
- ASEAN 회원국 및 역외 대화상대국과 정치, 안보대화 강화
 - ARF(ASEAN Regional Forum)을 통한 역내 안보대화 마련
 - 쌍무관계를 기초로 한 정치, 군사협력 관계 모색
- ASEAN에서의 주도적 위치 견지(아세안 사무국 자카르타 소재)
- 2003.7-2004.7월 ASEAN 의장국 역할 수행

3) 경제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강대국 의존관계를 탈피하고 협력의 다변화 추구
- 대 인니 원조그룹(CG)과의 협력강화
 - 외국인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미,일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

4) 이슬람제국간 협력 강화

- 이슬람회의기구(OIC) 주도국
- 이슬람권 국가들과 긴밀한 정치, 경제협력 관계유지
-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 투자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 견지

다. 주요 국가와의 관계 및 지역정세 평가

1) 개 요

동남아 지역은 95년 7월 베트남의 ASEAN 가입, 97년 7월 라오스, 미얀마의 ASEAN 가입, 매년 공식 또는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SEANWFZ) 체결, 아세안 자유 무역지대(AFTA) 실현 가속화 등으로 역내협력과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ASEAN 회원국들 간의 양자간 정치, 안보 협력과 병행하여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을 통한 다자간 안보대화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ASEAN - SOM 등을 통한 ASEAN의 내부 안보협력대화도 활성화되고 있다.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지위와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 4강 간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는 체제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 지역정세는 역내 국가들간의 우호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상당기간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남지나해에서의 역내국들간의 영유권 분쟁과 분리 독립 움직임 등 역내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테러 사건의 빈발과 이슬람-기독교도간 갈등 등이 새로운 불안정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2) 아세안 국가

아세안 회원국간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남아지역을 자유평화 중립지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ASEAN 10'의 조기 실현을 통해 아세안국들간 결속과 협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캄보디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아세안 각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불란서와 공동으로 파리국제회의의 의장국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캄보디아 문제해결에도 기여한 바 있다. 아세안 내부의 경험증진 및 통상 증대를 위해 ASEAN 자유 무역지대 결성 등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3.7-2004.7월간 ASEAN 의장국으로 ASEAN 공동체 실현 구상(Bali Concorde II) 합의를 도출해 내기도 하였으며, 2006년 8월 하순에는 ASEAN 회원국 무역장관들이 모여 2015년까지 ASEAN을 EU스타일의 경제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3) 주요 국가와의 관계

□ 미 국

경제 및 군사원조를 제공받고 있으며, 석유 등 각 분야에서 미국 민간자본투자도 활발하여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측면에서 미국이 원조를 통해 인니의 군장 비현대화 및 군사력 강화에 기여해 주길 기대하나, 미국은 인니의 인권문제,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등을 대인니 원조문제와 연계, 인니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1999년 동티모르 인권탄압을 이유로 인니에 대한 군사 교류나 무기수출 등을 전면 금지하였다. 그러나 2002년 말 발리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이후 인니 정부가 반 테러법 제정 등 국제테러 조직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한편, 2003년 미-이라크전쟁 시 국민들의 일부 반미정서에도 불구하고, 메가와티 대통령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2004년 새로 당선된 유도요노 대통령은 친미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2004년 말 발생한 쓰나미 피해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계기로 2005년 들어 미국과의 군사적 교류가 재개되었다. 그 동안 말라카해협에서의 해적행위 근절을 위해 태평양함대를 파견하겠다는 미국의 제의를 인니에서 번번히 이를 거부해 왔었으나, 2005년 5월 2일에 말라카 해협에서의 테러 및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미-인니 합동 훈련이 12일간 진행되었다. 또한 2005년 7월에는 1,500명의 양국 군인이 참가하는 해군 합동훈련도 8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11월에는 군수품 수출 엠바고도 해제하였다. 2006년 3월에는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인니를 방문 하여 우호 분위기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인니 정부는 양국간 군사훈련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슬람 세력의 반발에 고심해 왔으나, 유도요노 대통령은 테러 예방과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타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1월 18일에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APEC 행사에 참석하고 11월 20일에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예정이다.

□ 일 본

인니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며 최대 규모의 차관 공여국인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자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협력방식이 합작을 표방하면서 과대한 이익 추구를 도모하는데 대해서 일본이 성실한 협조자적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군비증강 등 군사력 강화와 이에 수반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하여 경계심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채 1,300여 억 불 중 40%가 엔화차관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일본은 매년 1억불의 무상원조 포함, 10억불 규모의 차관을 인니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처음으로 가설되는 모노레일 건설에 일본에서 기술과 차관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가는 중이며, 11월 26일부터 3일간 일본을 국민 방문해 일본의 대 인니 투자 진척상황을 정상간에 검토 예정이다.

□ 중 국

중국과의 관계는 65년 공산쿠데타 사태로 악화되고 67.10월 양국 외교관 상호 철수로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주의 정책 실시 이후 85.7월 양국간 교역이 재개되고 실질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89.2월 일본 히로히토 장례식 참석차 방일한 수하르토 대통령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간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90.8월 외교관계 정상화 절차를 통해 양국은 90.10월 대사를 상호 교환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이 90.11월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이 91.6월 인니를 공식 방문하였다. 94.11월에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강택민 국가주석이 인니를 공식 방문하여 상호우호협력관계 재확인 및 양국 경협관계 증진에 합의한 바 있다. 2001년에는 인니내 중국어 방송 허용 등 대 중국 우호정책이 실시되었으며, 특히 2001년말 주룽지 총리의 인니 방문 및 메가와티 대통령의 중국방문으로 대중관계가 한층 진전되었고, 2003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AFTA 참여선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인니와의 정치,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ASEAN/ASEAN + 3협력의 틀 내에서 중국-인니 간 양자협력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하는 반면, 인니는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실질 경제협력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 북 한

인니는 남북한 공간이 모두 주재하는 지역으로, 인니는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2004년 5월 인니 외무장관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였으며 인니에서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 장관 회담까지 제안하였다. 2005년 4월에는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을 만난 바 있다. 2006년 들어서도 인니는 남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유도요노 대통령의 남북한 동시 방문이 6월 초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5월 26일 족자카르타 지진사태 발생으로 7월로 연기되었다가 결국 취소되었다.

□ 호 주

호주는 인니의 가까운 이웃 국가이나 양국간의 관계가 그다지 좋은편은 아니다. 특히 동티모르 독립 문제로 인해 양국간의 사이가 크게 벌어졌으며, 인니 주민의 호주 밀입국 문제도 양국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슬람 교도들의 호주에 대한 반감이 커 2002년 발리 호텔 폭파 사건도 호주 관광객들이 주 대상이었으며, 2004년에는 자카르타의 호주 대사관을 겨냥한 폭탄 테러도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상호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호주는 인니에서의 자국민 보호와 인니 정부의 대테러 방지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인니는 호주로부터의 투자확대 등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2004년 말의 쓰나미 사태에 대해 호주는 인니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호주 수상이 인니를 방문하고 인니의 유도요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하는 등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5월 호주 여성(샤렐 코비)이 인니의 발리에 마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인니 법정이 이 여성에게 20년 징역형을 선고하여 호주와 인니간 관계가 다시 냉각된 바 있다. 호주정부는 2006년 4월 들어 이리안자야의 분리 독립 운동과 관련, 이리안자야 반체제 인사의 망명을 허용하여 인니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 말레이시아

인니와 말레이시아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웃 국가이나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양국간의 경제 수준 차이로 인한 인니 근로자들의 대말레이시아 불법 체류가 양국간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인니의 불법 근로자는 약 45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이들을 모두 돌려 보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입국을 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인니 정부에 이들을 소환해줄 것을 요청 했으나, 인니 정부가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2005년 초 동부 칼리만탄주 해양의 암바랏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양국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암바랏 가스전은 양국간의 영토 분쟁이 있는 시피단과 리기탄 섬에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 인니는 1999년 이후 미국과 이태리게 석유회사들과 공동으로 가스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된 양국의 영유권 분쟁의 첫 공판 결과가 2002년 말 말레이시아에 유리하게 나왔으며,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가 2005년 초 암바랏 가스전과 일부 겹치는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영국의 쉘사에 부여하자 인니가 이에 강력 반발하여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한 때 양국의 해군이 충돌 위기까지 갔으나 현재는 양국이 이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데 합의한 상태이다.

5. 주한주재국기관

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 대사: JAKOB S H.H.L TOBING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1-877
- 전화: (02) 783-5675/7(비자 및 영사업무), 782-8555
- 팩스: (02) 780-4280

나. 부산 인도네시아 영사관

- 명예영사: 김수일(金守一, 부산 외대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교수)
-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2동 384-7, 도시개발공사 8층
- 전화: (051)808-0041
- 찾아가는 길: 부산 지하철 부암역 하차- 3번 출구- 고가도로 옆 도시 개발공사 건물 8층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인니 관계

1) 외교관계

- 49.12: 아국, 인니 승인
- 66. 8: 영사관계 수립
- 66.12: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개설
- 73. 9: 대사급 외교관계수립

2) 정상간 교류

- 81. 6: 전두환 대통령 인니방문
- 82.10: 수하르토 대통령 방한
- 88.11: 노태우 대통령 인니방문
- 92. 9: “노태우.수하르토 대통령 정상회담(뉴욕)
- 94.11: 김영삼 대통령 국빈방문 및 제2차 APEC 정상회의 참석(보고르)
- 99.11.27: 김대중-와히드 대통령 정상회담(마닐라, ASEAN + 3 정상회담)
- 2000.2.10-11: 와히드 대통령 국빈방한
- 2000.11.27-29: 김대중 대통령 인니 국빈방문
- 2002.3.30-4.1: 메가와티 대통령 국빈방한(남북한 동시방문)
- 2003.10.6-9: 노무현 대통령 ASEAN + 3 정상회의 참석(발리)
- 2004.11.29: 노무현, 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비엔티엔 ASEAN + 3 정상회의)
- 2005.1.5: 이해찬 총리. 유도요노 대통령 정상회담(자카르타, 지진. 해일 피해 관련 ASEAN 긴급 정상회의)
- 2005.11: 유도요노 대통령 부산 APEC 정상회담 참석
- 2006.3: 김원기 국회의장 인니 방문
- 2006.12: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문

3) 대 남. 북한 입장

□ 대 한국 관계

- 인니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을 인식, 경제.통상관계 강화에 치중, CGI (대인니 원조자문그룹회의)를 통한 지원증대 및 우리 기업인의 대인니 투자 확대 기대
- UN, APEC, ASEAN, ASEM 비동맹 등 국제기구에서 협조적, 정치.경제적으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대 북한 관계

- 비동맹회원국으로서의 북한 입장을 의식, 대남북한 균형기조유지 그러나 대 북한 실질적 협력관계는 미미

4) 주요 협정체결

- 71. 8: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 81. 7: 건설협력 양해각서
- 87. 6: 임업협정
- 89. 9: 항공협정
- 89.11: 이중과세방지협정
- 91. 2: 투자보장협정
- 96.12: 범무자료교환협정
- 97.1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
- 99.4: 건설협력 약정
- 00.1: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
- 02.3: 사법공조협정
- 02.4: 자원협력 협정
- 03.1: 도로협력 약정
- 05.12: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 06. 6: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

5) 양국간 정기 고위급 회의

- 한.인니 자원협력위원회(각료급)
- 한.인니 통상장관회담(각료급)
- 한.인니 임업위원회(각료급)
- 한.인니 군사정보교류회의(국방부)
- 한.인니 민간경제협력위원회(민간부문)
- 한.인니 외교부간 정책기획협의(외교부)
- 한.인니 도로교류 회의(건교부)

나. 교역규모

- 우리나라와 인니의 교역규모는 97년 76억 49백만 불에서 97년 말에 발생한 아시아 국가들의 IMF경제위기로 인해 98년 48억 42백만 불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99년 65억 26백만 불, 2000년 87억 91백만 불로 다시 증가하였다.

- 그러나 2001년 9월 미국 무역센터 테러사건이후 인니 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한-인니 교역이 다시 감소, 양국간 교역 총액은 2001년에 77억 53백만 불, 2002년에는 78억 68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2003년에는 수출입 모두 전년대비 큰폭의 증가세를 보여 교역 규모가 86억불에 이르렀다.
- 2004년들어 우리의 대인니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가의 상승과 석탄 등 원자재 수입의 확대로 대인니 수입은 전년비 22.2% 증가한 63.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전년비 8.9%가 증가한 36.8억불을 기록함으로써 총 교역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억불을 돌파하였다.
- 2004년 중 우리의 대인니 수출 증가율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인니의 총선,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정치, 사회적인 불안이 예견되어 무역거래가 위축되었던 점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경쟁력 저하, 치안 불안으로 대인니 투자가 감소한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동남아는 대선진국 진출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되면 수출이 늘어나고 동남아에 주로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와의 교역도 늘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
- 2005년에는 대인니 수출실적이 50억 46백만 불로 전년동기비 37.2%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으며, 수입은 81억 84백만 불로 전년동기비 28.5%의 증가율을 보여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인 132억 3천만 불을 기록하였다.
- 대인니 수출의 높은 신장률은 석유제품(경유) 수출 증가에 크게 기인하는데, 석유제품 수출은 총 16억 13백만 불로 전년동기비 무려 961%가 증가하였다. 석유제품의 수입은 2005년에 갑자기 증가한 것은 아니며, 종전 싱가포르를 통해 인니에 수출하던 것이 2005년부터는 직수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대인니 주 수입 품목인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이 각각 34.1% 및 41.6% 증가하였고 석탄 수입이 30.2%, 동광 수입이 133.8% 증가하였다. 대인니 수입의 80% 이상은 자원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니는 한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원자재 수입선이다.
- 그러나 2006년 들어 대인니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석유제품 수출의 중단 때문이다. 2005년 10월 인니 정부가 국내 유류판매시 지급하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여 국내유가를 무려 120%나 인상하자 국내 유류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유류 재고가 늘어 수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유류가격 인상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고, 이는 내수침체로 이어져 다른 수입수요도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한-인니간 교역규모 추이

(단위: U\$백만,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9
교역규모 (증감률)	7,754 (-11.8)	7,868 (1.5)	8,590 (9.2)	10,045 (16.9)	13,230 (31.7)	10,084 (6.1)
수출 (증감률)	3,280 (-6.4)	3,145 (-4.1)	3,378 (7.4)	3,677 (8.9)	5,046 (37.2)	3,473 (-7.8)
수입 (증감률)	4,474 (-15.4)	4,723 (5.6)	5,212 (10.4)	6,368 (22.2)	8,184 (28.5)	6,611 (15.7)
무역수지	-1,194	-1,578	-1,834	-2,691	-3,138	-3,138

자료원: KOTIS

다. 한국과의 투자관계

1) 투자관계

- 우리나라의 대인니 투자규모는 1967-2005기간 중 누계치 기준 2,327건 총 135억 1백만 불(인니정부 승인기준)로 전체 외국투자국가중 건수면에서 3위, 금액면에서 7위를 점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투자 건수 309건에 금액으로는 4억 17백만\$로, 건수면에서는 1위, 금액면에서는 8위를 기록하였다. 건수에 비해 금액이 작은 것은 우리나라의 대인니 투자가 중소기업의소액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1,050개사 내외로, 이중 섬유 및 섬유관련 업체가 195개사, 신발 및 완구 관련업체가 97개사, 전기 및 전자 관련 업체가 79개사, 금속 및 기계류관련 74개사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한국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니 근로자수는 약 50만 명 정도로, 인니 전체 경제 활동 인구(9천만 명)의 0.5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인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출비중을 보면, 섬유·봉제가 인니의 전체 섬유·봉제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발은 31%, 완구는 33%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 투자진출기업은 인니 내 노동집약산업 부문의 생산,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95년 이후부터는 철강, 자동차, 전자, 건설, SOC 등 기간산업분야까지 진출 하고 최근 들어서는 IT분야에의 진출도 매우 활발하다.

주요 업종별 한국투자기업 현황(2005년 말 기준)

(단위: 개사)

분 야	업체수	분 야	업체수	분 야	업체수
섬 유	195	통신·컴퓨터	43	종이·목재	24
신발·완구	97	고무·플라스틱	39	금 용	17
전기·전자	79	석유화학	37	가 구	16
금속·기계	74	건 설	36	기 타	335
운송·창고	62	출판·인쇄	25	계	1,102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조사

연도별 한국의 대인니 투자 실적

(단위:건/ 미\$백만)

	2002	2003	2004	2005	2006.1-8
건 수	246	200	210	309	220
금 액	378.3	166.2	419.3	417.3	607.0

자료원: 인니투자조정위원회(BKPM) 홈페이지

라. 대한 수입규제 현황(반덤핑 피소추이)

- 인도네시아는 96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13건의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가 있었으며, 현재 제소된 건은 없는 상황이다.
- 이중 Tin Plate, Carbon Black, 비코팅 인쇄용지 등 3건은 덤핑 판정이 났으며, 3건은 무혐의 판정, 7건은 기각되었다

품목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진행상황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98.7.1	'04.9.16	관세율 : 7~10% 재심 진행 중
Un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4802.52	반덤핑	'03.2.10	'04.11.11	관세율 : 59.64%
담배용 라이터	9613.10 9613.20 9613.80 9613.90	SG	'05.7.28	'06.1.19	별다른 피해가 없는 사례로 판정, 종결되었음 (065/SG-K2/I/2006)
Cast Glass & Rolled Glass	70031220 70031290 70031920 70031990 70032090	SG	'06.1.2	'06.9.20	별다른 피해가 없는 사례로 판정, 종결되었음 (240/SG-K3/IX/2006)
Ceramic Tableware	6911 69112	SG	'05.5.13	'06.1.4	1차년도 1,600Rp/kg 2차년도 1,400Rp/kg 3차년도 1,200Rp/kg
Hot coil	7208	SG			7월에 한국은 발동 대상에서 제외됨.
Garments(의류)	6103 62류 전반	SG	하반기 (예상)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에서 청원추진중이나 조사개시 가능성은 낮음

자료원: Komite Anti Dumping Indonesia(KADI/인니 반덤핑위원회) 2006년 9월 자료

II. 경제

7. 경제정책

가. 경제발전사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왔다. 인구가 2억 3천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배에 달하며 202만㎢의 국토는 한반도의 9배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1,2위의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 생산국이며 에너지, 광물, 목재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성장잠재력은 아직까지 충분히 발휘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50,60년대에 경제적 혼란기를 겪고 80년대 중반 석유가 하락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성장력이 이웃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 한 박자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정책이 대외지향적으로 바뀌면서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성장계도에 들어섰으며, 90년대 들어 97년까지 연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거품 경제 현상이 생기면서 IMF 관리감독체제로 들어갔다. 1998-2002년은 경제구조 조정 기간으로서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재정적자로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국면을 맞았다. 2003년에는 4%의 경제성장률에, 인플레이션 축소, 재정적자 감소, 현지화 가치 상승 등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2003년 말 IMF 감독체제를 벗어났다.

1) 경제 정책의 변화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발정책은 독립 직후부터 시작되었지만, 인도네시아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선 것은 독립을 이룬 지 20여 년이 지난 60년대 말부터였다. 45-65년 동안 집권했던 수카르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민간 및 외국인 기업을 국유화하여 이들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수카르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정치논리가 강하게 개입된 것으로서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계획 자체에 무리가 많았으며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될 수도 없었다.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기의 인도네시아 경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과도한 물가상승으로 전반적인 경제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영기업의 생산능력도 떨어지는 혼란기였다.

65년에는 IMF와 세계은행에서도 탈퇴하여 스스로를 세계경제의 흐름으로부터 고립시켰다. 제자리 걸음을 하던 인도네시아 경제는 67년 수하르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탈퇴했던 IMF와 세계은행에 재가입하고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국제경제의 흐름에 다시 합류하는 한편 68년부터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였다.

식량증산 운동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그 결과 60년대 초반까지 평균 2%에 머물던 경제 성장률이 82년에는 7.7%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석유 수출이었으며, 소비재 중심의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성장전략은 50, 60년대의 내수지향적인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82년의 경우 석유수출이 전체 수출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했으며, 재정수입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도 원조액을 제외한 세입의 70%를 넘었다. 석유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경제구조는 80년대에 들어 석유 파동이 일어나자 큰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경제성장률도 2.2%로 크게 떨어졌다.

86년과 87년에 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자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기본적인 전략을 새롭게 세울 수 밖에 없었다. 원유가 하락으로 닥쳐온 경제위기를 극복 하는 방안은 '정부가 주도하는 석유부문 중심'의 경제구조를 '민간 주도의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제일 먼저 수출촉진 방안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에서였다. 정부는 무역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 관세를 인하해 원재료와 부품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가공단지를 세우고 수출업체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내 경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루피아화의 점진적인 평가 절하를 유도한 것도 수출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킨 중요한 방법이었다. '민간주도 제조업

중심의 수출확대'는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90년대 들어서 외국자본 100% 기업을 허용하고 자본이양의무를 크게 완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호를 더욱 개방하였으며 관세인하와 세금우대 등 수출지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IMF 감독체제로 들어가 2002년까지는 경제침체현상이 지속되었으며 2003년부터 거시경제의 회복국면에 따라 인니정부는 2003년을 “투자의 해”로 선정,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4년에는 총선, 대선 등 정치일정 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으나 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져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혔으며, 10월20일 출범한 유도요노 정부는 국가 인프라 확충을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확대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에 저해가 되는 투자법, 노동법, 세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해결해야 할 과제

인도네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직까지 인구의 11%에 이르는 절대 빈곤층에 대한 문제이다. 인도네시아는 여느 개발도상국가와 마찬가지로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격차가 크며 빈민층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하여 INPRES Desa Tertinggal과 같은 특별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제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도로, 통신, 전력, 항만 등 인프라 시설을 확대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다.

인도네시아는 2004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했다. 그 동안 석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있는 석유마저도 오는 2010년대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석유를 대체할 만한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국내 자본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일변 도의 정책, 부정부패 등이 대 인니 투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유도요노 대통령은 투자환경 개선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얼마나 신속히 투자환경이 개선되는가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각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인도네시아는 3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지역은 문화적인 배경, 천연자원, 인구 분포 면에서 차이가 커서 지역간 소득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서로 다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넘는 자바의 경우 공업화가 진전되어 공해문제가 중요한 이슈의 하나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 수준에 불과한 동부 도서지방의 경우에는 전기와 선진농업기술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인구밀도가 희박한 곳으로의 이주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원주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폭력으로 치달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이주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기후와 풍토가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생활습관과 사고 방식을 가진 다양한 종족이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가면서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역간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전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밖에도 금년도에 해외투자유치 환경 개선차원에서 추진되던 노동법 개정안이 5월 노동자 시위사태로 인해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해 이를 반대하는 국회 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이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실업률과 경기 침체가 주요 해결과제인데, 유도요노 대통령은 바이오 디젤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대규모 농장 및 정제시설을 확충하면서 고용 창출과 석유부족 사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나. 경제정책

1) 기본 경제정책 방향

□ 경제부문 지침

독과점,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 창달 자유시장경제 구조하에서 중소기업 및 협동기업 발전을 위해 특별시책 강구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재정의 건실화 물가 및 환율 안정 낙후 지방 특히 동부 변경지역 등 개발 촉진,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2) 경제정책 원칙

- 정부 및 사회제도 강화
 - 공무원 개혁: 반부패법 시행감독위원회 설치
 - 국영은행 운영개혁: 은행운자의 건전한 상업적 원칙 기반
 - 사법제도 개혁: 반부패법 통과 및 법원의 재판 의지 및 능력 보장 조치
 - 지방의 권한 증대: 인니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 권한강화 추진
- 기업채무 구조조정 촉진 및 은행의 활성화
 - 국영은행 재정비 및 자본확충
 - 국영은행의 민영화 강력 추진
 - 은행구조조정청(IBRA)의 활동 개선
 - 기업 부채의 공공부채로 전환 방지
- 재정 개선
 - 공공채무 감소를 위해 지출 증가 억제 및 국내 세수 증대
 -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이 필요하며 재정부족보충위해 외채도입 불가피
 -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석유 보조금 축소 또는 철폐
- 거시경제 및 사회안정
 - 환율 및 물가안정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기반 마련
 - 사회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program)기금 지출

-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
 - 수산자원 및 산림자원 보호에 역점
 - 환경감시제도 강화 및 천연자원 가격구조 현실 반영토록 개선

다. 중기경제전략

1) 경제회복 및 물가안정

- GDP 성장률 2005년 5.5%, 2006-2008년 6-7%, 2009년 7.6%
- 2005년 물가상승률은 7%, 2009년까지 3% 로 축소
- 6개월 수입대금에 해당하는 외환보유
- 현재 GDP의 5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2009년까지 GDP의 14%로 감축

2) 은행 및 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 모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CAR)을 최소한 8%에 이르도록 자본을 확충
- 은행의 구조조정을 하며, 은행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감독을 강화
- 금융의 은행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채권 및 주식시장을 육성
- 파산법의 집행을 개선하고 법원의 집행능력을 제고
- 은행구조조정청(IBRA)의 채무기업 처리를 가속화
- 국영기업의 개혁 및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부채를 축소

3) 제도개선

- 세제를 개혁, 공평·투명한 세제를 확립
- 재정회계검사 철저 및 투명성 제고
- 공직자의 전문화 및 부패방지
- 투자를 방해하는 지방세 개정
- 산업경쟁력 향상 위해 투자규정 개정 및 세관행정 간소화
- 중앙은행은 국회에 정기적 활동 보고
- 사법운영체제 및 행정법 개혁, 법원의 행정업무 개선, 법률교육 강화, 재판 시스템 개혁, 대법관에 대한 국회 승인을 추진하며 검찰청 역할을 강화
- 인프라 설비확충을 위한 관련법 개정
-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투자관련법 정비

4) 자원관리 개선

- 새로운 정책 결정, 공공투자지역 선정시 이해 관계자 참여 및 협의 확대
- 산림자원관리 개선에 특별한 관심 경주

라. 금융통화제도

금융체제는 5개의 국책은행이 계속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자카르타 및 다른 대도시에 11개의 주요 국제적인 은행 및 많은 외국은행의 지점이 있으며, 25개 이상의 은행이 외환거래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도네시아 은행 지점이 있는 35개 이상의 도시에는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은 지난 수년간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여 왔다

1)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금융체제 및 외환관리를 책임지며 정부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 투자가의 입장에서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BKPM(투자조정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투자를 위한 차관협정(안)의 승인
- 외국인 합작투자는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모든 외화의 거래가 이루지는 PMA(외국인 투자기업)계좌의 관리
- 외국투자계획의 자본이 역외로부터 유입된다는 보증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역외차관의 등록

2) 증권시장

주식시장은 자카르타와 수라바야에 설립되어 있으며, 최근의 규제 완화 조치의 결과로 주식 매매 및 장외시장을 포함하는 증권시장은 대규모 신주 발행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주식 시장은 국내외인에게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2004년 1000포인트를 넘긴 주가지수는 2005년 8월 환율이 불안하면서 다시 900대로 내려왔으나 9월 이후 다시 1000대를 회복하였다. 2006년 들어서도 인니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도 증가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 6월 20일 현재 주가지수는 1,295를 기록하고 있다.

3) 국내금융

외국합작회사는 내국인 소유율이 51%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국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없으며 국내상업 및 외환은행은 단기 및 중기 차관을 국내업체외에 외국인 투자업체에도 제공한다. NBF도 중기차관을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 주식자본도 제공한다. 자본시장에서의 채권발행을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고정 이자율의 장기 금융은 없다.

4) 주식매매

PMA(외국인 투자기업)는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자카르타 주식시장, 수라바야 주식시장 또는 장외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자본을 적립할 수 있고, 기업은 또한 자카르타 및 수라바야 주식시장 또는 장외시장을 통하여 채권 또는 기타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 관

- 인니 경제는 거시경제면에서 볼 때는 1997-1998년의 금융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세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에는 총선과 2번에 걸친 대선 등 사회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2005년에도 쓰나미 피해, 환율 불안, 대폭적인 유가 인상, 거둬들인 발리 폭탄 테러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2004년을 웃도는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또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정치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유가를 150% 이상 인상함으로써 정부의 유류 보조금을 대폭 축소시킨 점,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인이 되는 투자환경 개선과 부정 부패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투자자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12월 초 단행한 바크리 경제조정 장관 경질 등 경제팀 개편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 인니 경제는 현재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경제를 이끌어가던 시대가 지나고 있다. 그 동안의 투자부진으로 인니는 2004년 하반기부터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으며, 석유·가스 부문의 성장률은 2001년 -4.95%, 2002년 -2.13%, 2003년 -3.42%, 2004년 -4.4%에 이어 2005년에도 3.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광업 분야 역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2004년에는 -4.61%를 기록했으나, 2005년에는 약간 나아져 1.6%의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 또한 인구 2억 3천만 명이 받치고 있는 탄탄한 내수 시장이 경제 성장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현재와 같은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니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와 수출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고용 증대가 필연적이며, 한편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화도 필요하다.
- 그러나 국내 자본축적이 미약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현재 진행중인 투자환경 개선책이 얼마나 빨리 실현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또한 2005년 두 차례에 걸친 국내 유가 인상을 통해 정부의 유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정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가 인상에 따라 유류 보조금은 2005년 예산의 약 20%인 120조 루피아에서 2006년에는 8% 수준인 54조 루피아 규모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예산의 15%가 넘는 외채 원리금 상환 비중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2005년도 주요 경제 동향

- 2005년 인니 경제는 쓰나미와 함께 시작되었다. 2004년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는 아태지역을 초토화 시켰다. 그러나 아체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어서 인명피해는 컸으나, 경제적인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유도요노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쓰나미 구호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 50억\$이 넘는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수완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 인니 정부는 1월 13일 자카르타에서 제 1차 인프라서밋을 개최하였다.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확충이 선결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인데, 이 회의에서 정부는 220억\$ 상당의 91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5년 말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는 6개에 불과하여 11월로 계획하였던 제2차 인프라 서밋은 2006년으로 연기되기도 했다.
- 유도요노 대통령은 3월 1일부로 국내유가를 29% 인상하였다. 인니정부는 당초 2005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25\$로 계상, 유류보조금으로 19조 루피아를 산정했으나, 계속되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유류 보조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유가 인상을 단행하였다. 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이 IMF의 요구로 유가인상을 단행했다가 폭동이 일어나 해야했던 만큼, 유가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큰 조치였으나,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를 과감히 실시했으며, 국지적인 소요는 있었으나 큰 혼란 없이 지나갔다.

- 유도요노 대통령은 일본, 중국 등 해외 순방을 통해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단히 더디게 진행되어 2005년이 다가도록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 외국인 투자가 2004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 그러나 계속되는 국제 유가의 상승은 인니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당초 19조 루피아(유가 배럴당 25\$ 기준)였던 유류보조금 예산은 2005년 3월 수정예산에서 40조 루피아(유가 35\$ 기준)로, 6월의 수정 예산안에서 76.5조 루피아(유가 45\$ 기준)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65\$을 넘어 70\$에 육박하게 되자 정부 재정을 더욱 압박하여 국영석유회사(Pertamina)에 지급하는 보조금교부가 지연되어 석유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한편, 유류 수입을 위한 달러 수요 증가로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005년 7월 발표한 2006년 예산(안)에 정부가 2006년도 유가를 배럴당 40\$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제계에서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금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 되어, 8월 22일 환율이 1\$당 10,000루피아를 넘었으며 1주일 만인 8월 30일에는 12,000루피아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주가지수도 2005년 들어 처음으로 1,000p 아래로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이에 인니 중앙은행은 8월 30일 기준금리를 8.75%에서 9.5%로 인상하고 다시 며칠 후 10%로 인상하는 등 즉각적인 환율 방어에 나섰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환율은 안정세를 찾았으나, 정부 예산의 30%까지 육박하고 있는 유류 보조금 문제가 해결해야 될 근본 과제로 대두되었다.
- 정부는 유류보조금의 문제점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유가 인상 계획을 주지시키는 한편, 대응책으로 빈민들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10만 루피아의 현금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추진 하였다.
- 유도요노 대통령은 유가 인상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어 10월 1일부로 유가인상을 단행 하였다. 당초 50% - 80%의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과감하게도 평균 126.6%의 유가 인상을 단행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 중심으로 산발적인 반대 시위가 있었으나 큰 소요는 없이 지나갔다. 특히 10월 1일 밤 발리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이목이 그쪽으로 쏠리게 된 것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유가인상 조치로 정부는 국회와 약속한대로 유류보조금을 89.2조 루피아 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적자를 GDP의 0.9% 선에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 정부는 유가 인상이 인플레이에 미칠 영향을 고려,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10월 4일 10%에서 11%로 인상하였으며, 11월에는 12.25%로, 12월에는 다시 12.75%로 인상하였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가 내수와 투자 그리고 인건비에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가 문제이다. 내수 부진은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며, 과도한 인건비 상승은 가뜰이나 약한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빈민들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정부패 척결 의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 인니는 2005년 들어 쓰나미 재난을 비롯, 조류독감, 발리 폭탄테러사건 등 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으며, 경제적으로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잘 극복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2006년도 주요 경제 동향

- 인니 경제는 2005년 4/4분기의 고인플레이와 고금리 여파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이다. 내수와 투자의 부진으로 전체적인 경제가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4분기 중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공공투자도 외국인 투자도 예상보다 저조한 상태이다.
- 2006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대수는 지난해 대비 약 50%가 감소하였고 외국인 투자도 지난해 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 유도요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 일본, 중동 국가로부터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히 가시화된 투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유도요노 정부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5월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는 후 국회의 반발까지 겹쳐 재검토 하기로 물러선 상황이다.
- 반면에 인니의 높은 이자율과 정치적인 안정에 따라 포트폴리오 투자는 크게 늘어 주가지수가 지난 연말 1,162에서 9월 26일 현재 1,500으로 상승했고, 환율은 지난 연말 1\$=9,830루피아 에서 9월 26일 현재 1\$=9,235 루피아로 7%가 떨어졌으며,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말 350억\$에서 7월말 411억\$로 61억\$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물가와 환율의 안정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말의 12.75%에서 금년 5월, 7월 8월, 그리고 9월 5일 네 차례에 걸쳐 11.25%로 총 1.5%를 인하하였다.
- 인니 경제는 정부가 실물부문을 여하히 공고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민간의 실물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환경 개선, 금리의 추가 인하, 공공투자의 신속한 진행 등이 요구된다.

나. 경제 성장

- 2005년도 인니 경제는 5.6%의 성장률을 보여 2004년의 5.13% 에 이어 5%대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률을 보였다. 부문별로는 교통·통신분야가 13%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호텔서비스, 건설업이 8.6%의 성장을 보인 반면, 농업은 2.5%, 광업은 1.6%의 저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니 경제는 2004년 4/4분기 6.65%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4분기까지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유가와 그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으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05년 3월(29%)과 10월(126.6%)의 두 차례에 걸친 대폭적인 국내유가 인상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율과, 인플레이를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지난 8월 4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환율(11,300Rp/US\$) 불안 등이 소비를 위축시킨 주 요인이 되었다. 다행히 2006년 2/4분기 성장률이 5.22%로 1/4분기보다 다소 나아져 상반기중 경제성장률은 4.97%를 기록하였다. 인니는 GDP 중 민간 소비 비중이 65%에 달하고 있으나,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04년 5.5%에서 2005년 4.0%, 2006년 1/4분기 2.9%로 둔화되었다가, 2/4분기 들어 3.0%로 소폭 증가하였다.

2005/2006 년도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5 년				2006	
분 기	1/4	2/4	3/4	4/4	1/4	2/4
성장률	6.25	5.63	5.63	4.90	4.59	5.22

자료원: 인니 통계청

2006 년도 상반기 비석유가스 분야의 업종별 성장률

(단위: %)

분 야	성장률	비 중	분 야	성장률	비 중
운수.통신	12.18	6.56	숙박.요식	4.68	16.70
건 설	7.71	6.00	서비스	5.65	9.18
금융.리스	5.23	9.24	농.축.임업	4.47	14.80
제조업	3.07	27.67	광 업	4.54	9.10
전력.가스.수도	5.73	0.67	계	4.97	100.0

자료원: 인니 통계청

- 2006년 상반기의 경기위축은 정부가 이미 예견했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투자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2005년 미 집행 예산 10조-15조 루피아(10-15억\$)도 1/4분기중에 집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료주의적인 행태로 실제 1/4분기중 공공투자는 전체 예산의 겨우 12%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부문 지출이 결과적으로 2/4분기 경제성장을 견인했고, 3/4분기에도 그 효과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의 5.6%에서 5.4%로 하향 조정한 바, 하반기 이후에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인니 정부는 2006년도 예산 계획 수립 시 경제성장률 목표를 6.2%로 정한 바 있다.)

* 아시아 개발은행(ADB)도 인니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당초 5.9%에서 5.4%로 하향 조정하였다.

다. 무역

- 2005년도 인니의 수출은 856억\$로 지난해 대비 19.5%, 수입은 575억\$로 지난해 대비 23.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는 지난해의 251억\$보다 30억\$이 증가한 281억\$을 기록하였다.
- 수출은 원유의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가스 부문이 23.3% 증가하고, 비 석유가스 부문도 1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중 루피아화 약세도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수입은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석유.가스부문 수입이 48.2% 증가하고, 소비재는 24.0%, 자본재는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도 8월까지 수출은 고무, 팜유, 석탄, 유지 등의 원자재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13%가 증가한 646.3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인플레이션

- 2005년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7.1%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물가 상승률은 2005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국내 유가 인상에 그 원인이 있다.
- 유가가 29% 인상된 3월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91%, 유가가 127% 인상된 10월에는 소비자 물가가 8.7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인상에 따라 교통비 등 수송비의 인상폭이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전기 등 공공요금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의 서비스 요금도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유가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유가인상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 기준금리가 9월 중 10%에서 12월 12.75%까지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12월 이후 인플레이션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 2006년 들어 1월까지의 유가인상의 여파가 미쳤으나, 2월 이후 특히 내수 침체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져, 9월까지 4.06%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2006년 예견된 전기료 인상도 미루고 있는 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금년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전망치 8%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리 인하와 전기료 인상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2006년도 월별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월 간	0.03	0.05	0.37	0.45	0.45	0.33	0.38
누 계	1.98	2.03	2.41	2.87	3.33	3.67	4.06

자료원: 인니 통계청

마. 환율

- 2005년 연말 환율은 9,850Rp/US\$, 연평균 환율은 9,720Rp/US\$이었다. 2005년 들어 외국인 투자 유입의 확대, 쓰나미 피해에 따른 외채 상환 연기 등으로 루피아화의 강세 요인이 있었으나, 계속되는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석유 수입대금 증가로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 또한 유가상승과 이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 연초 9,290 루피아로 시작된 환율이 8월 하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000 루피아를 넘어섰다.
- 정부는 7월 중 국제유가가 배럴 당 70\$에 육박한 상황에서 200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유가를 40\$로 계산, 정부 경제팀이 불신을 산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이에 정부는 8월 30일을 기해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8.75%에서 9.5%로 0.75%p 인상하고, 9월 6일 이를 다시 10%로 0.5%p 인상하였다. 그리고 10월 1일을 기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국내 유가를 무려 126.6%나 인상함으로써 유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였다. 유가 인상은 단기적으로 사회적 혼란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감소 등 경제에 부정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인니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 10월의 유가 인상 후 수 차례에 걸쳐 중앙은행 금리가 인상된 것이 인플레이 억제는 물론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되어 환율은 12월 5일부터 다시 9,000루피아 대로 하락하였다.
- 2006년 들어서도 미국의 달러 약세와 인니의 고금리에 따른 달러 유입 확대, 내수 위축과 특히 지난해 달러 초과수요의 주원인 되었던 석유 소비의 감소로 달러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환율은 4월까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5월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설이 고개를 들면서 다시 환율이 오르기 시작, 9,000 ~ 9,500루피아 대에서 오르내리다가 8월에는 9,100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 연초에 루피아화가 강세를 보인 것은 인니 경제가 튼튼해서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달러 약세와 인니의 고금리에 의한 투기 자본 유입 확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5월말 현재 442억\$로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했으나, 인니에 유입된 투기자본이 2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투기자본이 빠져나갈 시 막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니의 외환시장은 하루 거래량이 약 5억\$ 정도로 작아 조그만 요인에도 움직임이 큰 것도 환율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 루피아화 강세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인니의 주력 수출품이 환율에 비탄력적인 원자재 위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는 상황이다.

2005/2006 년도 월별 환율 변동 추이

(단위: 루피아/\$, %)

	2005			2006				
	6 월	9 월	12 월	3 월	6 월	7 월	8 월	9 월
환 율	9,713	10,310	9,830	9,075	9,260	9,070	9,102	9,226
변동률	+4.55	+9.04	+5.81	-7.69	-5.80	-7.74	-7.41	-6.15

자료원: 인니 중앙은행

주: 월말 기준, 매월 변동률은 각연초 대비, (-)는 환율하락폭(루피아화의 평가절상)

바. 외국인 투자

- 2005년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승인 기준으로 136억\$, 실현기준으로는 91억\$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4년 대비 승인기준으로는 34.4%, 실현기준으로는 93.7%가 증가한 것이다.
-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유도요노 정부 수립 후 정치적 안정성이 제고되었고, 또한 신정부의 친 서방 경제정책, 투자환경 개선노력 등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와 부정부패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프라 서밋 개최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아직 투자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별로 없으나, 투자자들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2006년 1-8월 중 외국인 투자 승인액은 86억 51백만\$로 전년 동기 대비 18.8%가 증가한 반면, 투자실현액은 39억 36백만\$로 전년동기대비 45.5%가 감소하였다. 투자조정위원회

(BKPM)는 이와 같은 투자 감소가 지난해 말 유가 인상에 따른 투자 재검토와 현재 진행 중인 투자법, 노동법, 세법 등 투자 환경 개선 상태를 관망해본 다음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인니 정부는 2005년 1월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 제 1차 인프라 서밋을 개최하고 91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중 연말까지 실제 입찰에 부쳐진 것은 고속도로 6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니 정부는 현재 42건의 프로젝트를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2006년 11월 중 제 2차 인프라서밋을 개최,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니 정부는 인프라 확충에 향후 5년간 약1,45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 등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사. 경상수지, 외채, 외환보유고, 이자율

1) 경상 수지

- 인니는 상품 교역에서는 200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서비스 교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98년 71억\$이었던 서비스 교역 적자가 2002년에는 99억\$, 2004년 109억\$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도 2003년 24억\$에서 2004년에는 3억\$로 대폭 감소 했으나, 2005년에는 12억\$ 수준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20억\$로 소폭 증가가 전망 된다.

2) 외 채

- 2005년 말 현재 인니의 외채는 공공부문 795억 58백만\$, 민간부문 539억 23백만\$등 총 1,334억 81백만\$에 달하고 있다. 외채의 GDP 비중은 51% 선으로 1998년의 140%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이미 IMF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졸업했으며, IMF는 인니의 외채가 감내할만한 수준으로 더 이상 채무 조정은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전체 외채 중 단기 외채는 240억\$ 정도로 18% 수준이며, DSR (Debt Service Ratio/ 총 수출액 중 외채원리금 상환 비중)도 2003년 32.2%에서 2004년 30.1%, 2005년 22%, 2006년 1/4분기 22%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 2005년 중 쓰나미 피해로 인해 파리클럽으로부터 2005년 상환 예정이었던 외채원리금 약 30억\$의 지불을 연기 받은 바 있는데, 인니 정부는 2006년도 정부 예산에서 채무 상환 예산으로 91.6조 루피아(약 92억)를 계상해 놓고 있다.
- 2006년에도 외채의 급격한 증가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예산 중 채무 변제 예산 비중이 15% 이상으로 너무 높은 점과 인니의 신용등급이 아직 BB-(S & P 기준/ 무디스 기준은 B1)로, 투자 부적격지역으로 분류되어 이자율이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투자 적격은 4단계 위인 BBB 이상 등급.

3) 외환 보유고

- 외환보유고는 무역흑자의 확대와 함께 계속 증가, '99년 264억\$에서 2003년에는 350억\$, 2004년 말에는 363억\$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5년 4월 최고 370억\$에 달했던 외환보유고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외환 수요 확대와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달러 매각으로 9월에는 303억\$까지 감소하였다.
- 10월의 국내 유가 인상 이후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외환사정도 호전되어 2005년 말에는 외환보유고가 347억\$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 들어 외환수요의 감소와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외화 유입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고는 계속 증가, 5월말 442억\$에 달하였다.
-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자 인니정부는 IMF 차관을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 6월 중 전체 78억\$의 절반 수준인 37억\$을 상환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는 6월말 401억\$로 감소하였으나 8월말에는 다시 420억\$로 증가하였다. 인니 정부는 가능하면 2006년 중 나머지 IMF 차관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4) 이자율

- 인니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와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2005년 7월 이후 6개월 동안 무려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8.5%에서 12.75%로 4.25%p나 인상하였다.
-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10월 이후 상승세를 보여 내수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가 안정선으로 유지될 때까지는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데, 2006년 1-4월까지 물가가 안정되자 5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인플레이를 봐가면서 2006년중에 이자율을 10% 밑으로 인하 한다는 계획이다.
-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화
 - 8.5%(6월)→ 8.75%(7월)→ 9.5%(8월 30일)→ 10%(9월 6일)→ 11%(10월 4일)→ 12.25%(11월 7일)→ 12.75%(12월 6일)→ 12.50%(06.5.9)→ 12.25%(06.7.6)→ 11.75% (06.8.8)→ 11.25%(06.9.5)

아. 실업률 및 최저임금

1) 실업률

- 인니의 실업률은 1980년 2% 대에서 90년대 이후 계속 높아져 '99년 6.4%, 2001년 8.1%, 2003년 9.5%, 2004년 10%에 달하였다.
- 유도요노 대통령은 실업률을 임기가 끝나는 2009년까지 5%까지 끌어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2005년에도 석유, 전기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소비 감소에 따른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로 실업률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장관은 2006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실업률이 2005년보다 1 ~ 2% 높은 13 ~ 14%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최저임금

- 가장 임금이 높은 자카르타 지역의 2006년도 최저임금은 819,100 루피아로 2005년의 711,843 루피아 대비 15% 인상되었다. 이를 미화 기준으로 볼 때는 90\$(환율 1\$= 9,100 루피아)정도로 지난해 대비 약 10% 인상된 폭이다.

자. 한국과의 교역

- 2005년도 우리나라의 대 인니 교역은 수출이 전년비 37.2% 증가한 50.5억\$, 수입은 전년비 28.5% 증가한 81.8억\$로 31.3억\$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품목(백만\$): 경유(1,445), 석유화학제품(517), 식물(486), 철강제품(444), 가정용 전자제품(271), 전자부품(228), 자동차(86), 휴대폰(21) 등
 - 수입품목(백만\$): 천연가스(2,582), 원유(1,953), 석탄(714), 동광(506), 석유제품(331), 펄프(320), 목재(245), 천연고무(112) 등
- 우리의 대인니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은 경유 수출이 14억 45백만\$로 전년의 5천만\$ 대비 무려 27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며, 인니 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우리 전자업계의 생산품목 조정으로 원부자재 수출은 크게 감소 하였다.
 - 가죽(-23.5%), 플라스틱(-6.9%), 섬유원료(-17.4%), 전자부품(-36.3%), 영상기기부품(-34.2%) 등
- 반면 고부가, 기술집약 품목 수출은 증가하였다.
 - 정밀화학(40.3%), 자동차부품(13.4%), 컴퓨터 모니터(740.2%), 합성고무(28.8%), 철강제품(18.9%) 등
- 섬유 수출은 폴리에스터, 나일론 식물 수출은 감소했으나, 편직물 수출의 급증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소폭(7.6%) 증가하였다.
 - 편직물 112백만\$ -> 171백만\$로 52.3% 증가
 - 폴리에스터 식물 92백만\$ -> 78 백만\$로 14.9% 감소
 - 나일론 식물 12백만\$ -> 10백만\$로 17.5% 감소
- 한편, 대 인니 수입은 원자재가 85%를 차지하였다.
 - 원유, 천연가스를 포함한 광물 수입이 54.4억\$로 전체 수입의 75%를 차지
 - 목재, 펄프와 나프타 등 석유화학원료 포함시 원자재 비중은 전체의 약 85%
- 2006년도 1-8월 중 우리나라의 대 인니 수출은 29억 62백만\$로 전년동기 대비 10.8%가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58억 76백만\$로 전년동기대비 17.3%가 증가하였다. 수출감소의 주 원인은 경유 수출의 감소 때문인데, 그래도 1/4분기 중단되었던 경유 수출이 4월 이후 재개되어 수출 감소율이 축소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 전망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e
GDP 성장률 (%)	3.45	3.69	4.10	5.13	5.6	5.4
1인당 GDP (US\$)	805	811	1,116	1,207	1,250	1,300
총 수출 (US\$십억)	56.3	57.2	61.1	71.6	85.6	93.0
총 수입 (US\$십억)	31.0	31.3	32.6	46.5	57.5	68.0
무역수지 (US\$십억)	25.3	25.9	28.5	25.1	28.1	25.0
인플레이션 (%)	12.55	10.03	5.06	6.4	17.1	8.0
환율 (US\$1당 루피아)	10,400	8,940	8,465	8,950	9,705	9,600
경상수지 (US\$십억)	1.14	1.85	2.39	0.32	1.25	2.0
외환보유고 (US\$십억)	28.0	32.0	36.3	36.3	34.7	35.0
총 외채 (US\$십억)	133.1	131.3	135.4	137.0	133.5	136.0
은행 예치 이자율(3개월)						
- 국영은행 (%)	17.5	13.7	7.1	6.5	11.71	11.0
- 일반은행 (%)	17.2	13.6	7.1	6.5	11.75	11.0
은행 대출 이자율(3개월)						
- 국영은행 (%)	16.4	16.8	16.0	14.6	15.2	17.0
- 일반은행 (%)	19.9	20.2	18.7	16.6	16.8	19.0

자료원: 인니 중앙은행, DATA CONSULT, EIU

9. 주요 산업 동향

인도네시아 산업체계는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 숙박요식업, 운송통신, 금융 및 기업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으로 분류되며, 산업별 국내총생산금액 및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각 산업별 총 생산액 및 GDP 구성비

(금액: 십억 루피아, 구성비:%)

구 분	2003		2004		200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농업.어업.임업	325,654	15.9	354,435	15.4	365,559	13.4
광 업	169,536	8.3	196,892	8.5	285,087	10.4
제 조 업	590,053	28.8	652,729	28.4	765,967	28.1
전기.가스.용수	19,541	1.0	22,855	1.0	24,993	0.9
건 설 업	112,571	5.5	134,478	5.8	173,441	6.4
상업,숙박.요식업	337,840	16.5	372,348	16.2	429,944	15.8
운송.통신업	118,267	5.8	140,604	6.1	180,969	6.6
금융,기업서비스	174,323	8.5	194,542	8.4	228,108	8.4
기타서비스	198,069	9.7	234,245	10.2	275,641	10.0
GDP 계	2,045,854	100.0	2,303,032	100.0	2,729,708	100.0

자료원: 인니 중앙은행 홈페이지(2006.4.7), Indonesian Financial Statistics(2006.1월발간)

가. 농 업

수하르토 정부 이래 최근 유도요노 대통령까지 약 50 여년간 인도네시아는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시행으로 농업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농업은 경제적 의미는 물론, 농업 생산양식이 이 나라 문화, 종교, 사회구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도네시아 농업은 농업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쌀과 관련해서는 Bulog 이라는 특별기구를 두고있다. 농업개발의 주요 목표는 식량자급을 위한 미곡 증산과 수출 농산물의 증산 및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쌀 증산을 위하여 작물의 집약재배 토지의 집약적 이용, 품종개량, 비마스(BIMAS), 인마스(INMAS) 사업의 확대, 농업금융의 확대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의 경지 면적 구성을 보면 벼농사가 총 경지면적의 42%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옥수수 15%, 천연고무 11% 카사바 6%, 두류 3%의 순이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바이오디젤이 대체 가능 연료로 급부상하면서 전국 각지에 팜농장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향후 피마자 농원이나 카사바 농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임 업

인도네시아 산림 자원은 브라질에 이은 세계 두번째 규모로 아시아에서는 제일의 산림자원 보유국이다.

세계열대 다우림의 10%가 인도네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티크재를 포함한 각종 목재를 보유하고 있다. 전 국토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1억 4,200만ha가 임야로 덮여 있으며, 이중 생산림은 5천만ha에 달하고 연간 목재 생산량은 3,500만 입방미터에 달하고 있다.

원목의 생산 수출을 보면 연간 원목 생산량은 전 세계의 약 5%, 수출량은 생산량의 70~80%에 이르고 있다. 목재산업은 1985년 정부가 원목수출을 금지시키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가공목재 수출이 크게 늘고 제지와 펄프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산림이 황폐해가고 있어 산림과 환경보호를 위해 원목개발을 강력 규제 하고 있다. 산림이 황폐해가는 이유는 불법채벌 때문인데, 부패한 군. 공무원과 결탁하여 벌채된 나무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밀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법한 벌목은 의무적으로 조림을 하게 되어있으나, 불법 벌목은 조림을 하지 않아 산림 황폐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벌목허가를 거의 해주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산림 자원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1957년부터 산림개발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어 산림개발권이 부여됨으로써 다수의 외국인 투자 업체가 진출하게 되었다. 한국기업으로는 남방개발(현 KODECO)이 최초로 진출했으나, 지금은 목재부문은 접고 원유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계 기업인 KORINDO가 대규모 조림사업과 합판, 펄프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KORINDO는 2007년부터는 조림목을 공급할 수 있어 정부의 벌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합판공장에 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광업

인도네시아는 석유를 비롯하여 천연가스, 석탄, 주석, 동, 니켈, 보오크사이트, 아연 등 많은 종류의 광물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어 동남아 최대의 광산물국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광업은 산업발전 경제성장의 대표적 산업으로 앞으로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 기간인 1980년대 초까지는 광업이 산업생산의 27%, 수출의 81%를 차지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정책을 수출지향산업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광업이 GDP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으며 그 중에서 석유, 천연가스, 주석 구리 등은 인도네시아 외화 획득원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1) 석유

석유의 매장 규모는 이를 추계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Pertamina의 발표에 의하면 확인 매장량은 60억 배럴로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순물이 적어 중동산 석유보다 양질로 평가되고 있다. 가채 연수는 20년으로 추정, 세계 평균가채 연수인 30년에 못 미치고 있다.

석유탐사 및 발굴 정유산업은 국영석유회사인 Pertamina와 Chevron, Texaco등 Pertamina와 생산공유계약을 맺은 외국의 석유메이저들에 의해 관장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약 40% 가량은 수출되고 있다. 유전지대는 수마트라 전역, 자바의 서부, 칼리만탄의 동남부, 이리안자야의 서부 등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주요 유전으로는 미나스유전과 해저 유전인 아드주나 유전, 이타카 유전 등이 있으며 마두라해역에서는 한국의 KODECO 에너지가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석유개발 공사도 이리안자야 해역에서 석유 탐사를 벌이고 있다.

인니 석유 산업의 문제는 원유 생산이 한계에 달한 반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니는 OPEC 회원국이나, 2004년 하반기부터 석유의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생산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OPEC가 배정한 인니의 1일 원유 생산쿼타는 145만배럴인데, 실제 하루 생산량은 100만배럴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6년 들어서는 생산량이 92만 배럴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일 석유 수요는 약 110만 배럴 정도로 하루 10만 배럴 정도는 수입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는 그 동안 석유 개발을 게을리한 점, 석유 분야에 대한 투자규제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지 않은점을 들 수 있는데, 석유의 탐사시점부터 시작하여 가채기간을 30년을 주고 있으나, 탐사 및 개발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실제 생산은 얼마하지 못하고 채굴권을 인니 국영석유인 Pertamina에 넘겨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외국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대규모 유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소형 유전들 뿐이라서 개발에 따른 이득이 작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가 스

천연가스의 확인 매장량은 112조 ft^3 로 세계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의 13%이며 2000년 생산량은 연간 약 9천6백억 ft^3 이다. 주요 가스 유전으로는 아룬 가스전과 바닥 가스전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천연가스의 생산은 1968년부터 시작,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생산되었으며 2000년까지 생산량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이나, 최근의 유가 상승으로 석유보다는 가스 사용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니 정부는 오는 2010년경 끝나는 일본, 한국, 대만과의 가스 공급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3) 주 석

인도네시아의 주석매장량은 2,480만 톤으로 세계 전체매장량의 9%를 차지하며 말레이시아와 볼리비아에 이어 세계 3위의 보유국이다. 생산량은 1995년 말 35,350천 톤에서 2000년 말 62,304천 톤으로 44.3%증가하였고 세계 생산량의 약15%를 점유하고 있다. 주석의 산지로는 동부 수마트라의 리아우링가(Riau-lingga) 열도지역의 방가(Bagnes)섬, 불리둥(Beilitung)섬, 싱켵(Singkep)섬 및 카리문(Karimun)섬 등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석 소비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전량 수출하고 있다.

4) 니켈

니켈은 술라웨시 동부의 빠말루아(Pamalu)일대와 칼리만탄 동남부의 세부카(Sebuka)섬 서이리안의 다도해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확인매장량이 84백만 톤으로 세계 매장량 27를 차지하는 세계 1위의 보유국이다. 생산량은 1995년 25억 톤 2000년 41억 톤으로 세계 1위의 생산국이기도 하다. 생산량의 대부분은 일본과 한국, 오스트레일리아로 수출하고 있다.

5) 기 타

그 외에도 석탄, 동, 금, 은, 주철, 망간, 유황 등이 매장되어 있다. 금과 은은 주로 프리 포토금광과 동부칼리만탄에 위치하고 있는 켈리안금광에서 생산되고 있다.

라. 제조업

1) 섬유산업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고용인력 120만명에 연간 70억 달러를 수출, 석유, 가스를 제외한 전체 수출액의 15.1%를 점유하고 있는 전자산업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산업을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980년대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고 우리나라 봉제기업들도 이때를 기점으로 인도네시아에 대거 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고용이나 수출 창출 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1998년 인도네시아 경제위기 발생후 사회간접자본 및 기업부문의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섬유산업부문의 투자도 부진하여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생산단가는 오히려 높아져 후발 개도국들에 의해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시장의 약 8%를 점하고 있는 폴리에스터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섬유관련 기계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원료에서부터 의류 완제품까지의 연관업체간 수직계열화가 미비하여 원자재 조달에 시간 및 코스트가 과다 소요되고 있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세계섬유교역이 자유화되게 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한창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도 2006년 들어 노후화된 설비교체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중국이 미국과 EU로부터 앞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석유쿼터에 묶여있는 동안 인도네시아 석유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 목재 가공 및 제지산업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2위의 임산자원의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목재가공 및 펄프 제지업은 경제수준의 낙후, 수요의 부족, 관련산업의 미 발달로 인하여 1970년대 중분까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1973년 국제 석유파동이 발생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원목의 개발 및 수출에 대한 제한과 목재 가공의 육성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목재, 합판, 제지등의 목재 가공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3) 화학 및 석유 화학 산업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석유화학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비료, 비누, 고무제품, 농약, 합성세제 등 농업용 및 소비자용 화학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단계였으나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전자산업 및 관련산업이 발전하면서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또 원유 천연가스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4) 철강 산업

인도네시아의 철강산업은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에 중점육성 전략산업의 하나로 지정되어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 제철공장건설을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국영기업 PT. Kratatau Steel사가 인도네시아 전체 철강생산량의 90%를 점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소규모 민간업체가 주로 하청을 통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전자, 건설산업이 활기를 띄면서 철강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자국생산량은 수요의 30%에 불과,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대만, 러시아, 루마니아 등지로부터 철강을 수입하고 있다.

5) 전기 및 전자산업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산업은 연평균 25%의 고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격히 발전하고있는 산업이다. 그 발전도 제조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생산품목이 크게 다양화, 고도화되고 고 최근에는 가전제품 이외에 컴퓨터 관련제품과 산업용 전자제품 등 보다 기술 집약적인제품의 생산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전기 전자 산업의 발전은 주로 일본기업들의 진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들도 현지생산, 판매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특히 LG는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하는 냉장고 생산 기지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6) 자동차 산업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급속히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3년도에 시행한 자동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는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 발전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은 현재 완성차용 부품을 들여와 조립생산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후 조건 및 도로사정, 정부의 조세제도에 의해서 승용차보다는 승합차 부문이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되었다.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부문에서 자립기술 구축을 위해 한국과 국민차 사업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1996년 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기아자동차와 ‘국민차 계획’을 발표했고 하반기부터 기아자동차의 세피아가 인도네시아산 ‘티모르’로 생산되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자동차와 경쟁에 불안을 느낀 일본의 자동차회사들이 급기야 일본 정부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거래의 불공정을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 한국, 유럽,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2006년에 들어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국제화전략을 펼치면서 인도네시아에 연산 10만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시설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자동차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7) 항공산업

항공산업은 인도네시아 산업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산업에 속한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발전은 하비비 주도하에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과학기술처장관이던 하비비는 항공기산업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항공기 제작회사(Industri Pusaawat TerbangNusantara; IPTN)를 설립하였고, 첨단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으로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IPTN은 스페인의 CASA, 독일의 Messerschmitt 네델란드의 Fokker등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회사와 기술협력 기술이전의 형태로 공동제작을 하면서 항공기를 생산하기 시작, 1978년에 Casa와 공동 개발한 35인승 프로펠러기(CN 235)를 시발로, 1990년 50인승 중형 수송기, 최근에는 64인승 터보프롭제트기 (N235)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N235기의 성공에 고무된 IPTN은 현재 130인승 초음속 제트여객기인 N2130을 개발하고 있다.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일간지

주요신문으로는 KOMPAS, SUARA PEMBARUAN, BISNIS INDONESIA, THE JAKARTA POST, INDONESIA TIMES, INDONESIA OBSERVER, NERACA, SUARA KARYA, MERDEKA 등이 있음. 영자지로는 THE JAKARTA POST가 유일하다.

나. 주요 정보조사 웹사이트

- Ministry of Industry(산업부)
 - Homepage: www.dprin.go.id
- Ministry of Finance(재무부)
 - Homepage: www.depkeu.go.id
- Custom And Excise Department(관세청)
 - Homepage: www.beacukai.go.id
- Central Bank Indonesia(중앙은행)
 - Homepage: www.bi.go.id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국가표준원)
 - Homepage: www.bsn.go.id
- Jakarta Stock Exchange(자카르타 증권거래소)
 - Homepage: <http://www.jsx.co.id>
-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Bappenas/경제개발기획청)
 - Homepage: www.bappenas.go.id
- BKPM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투자조정위원회)
 - Homepage: www.bkpm.go.id
- INDONESIA EXHIBITION COMPANIES ASSOCIATION (IECA/전시업체협회)
 - Homepage: www.ieca.or.id
- NATIONAL AGENCY FOR EXPORT DEVELOPMENT (NAFED/무역진흥청)
 - Homepage: www.nafed.go.id
- INDONESIA INTERNET SERVICE PROVIDER ASSOCIATION (APJII)
 - Homepage: www.apjii.or.id
- INDONESIA INDUSTRIAL ESTATE ASSOCIATION (HKI/공단협회)
 - Homepage: www.ina-industrialestate.com
- Indonesi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kadin/상공회의소)
 - Web-site: www.kadin-indonesia.or.id

- BPS-Statistics Indonesia (통계청)
 - Web-site: www.bps.go.id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년 중
GDP 성장률 (%)	3.45	3.69	4.10	5.13	5.60	4.97(6월)
1인당GDP (US\$)	805	810	1,116	1,207	1,250	1,356(예상)
총수출 (US\$십억)	56.3	57.2	61.1	71.6	85.6	46.9(6월)
증감률 (%)	-9.4	1.6	6.8	17.2	19.5	15.1(“)
비석유/가스(US\$십억)	43.7	45.0	47.4	55.9	66.3	36.5(“)
증감률 (%)	-8.6	3.0	5.3	17.9	18.6	14.4(“)
총수입 (US\$십억)	31.0	31.3	32.6	46.5	57.5	28.8(6월)
증감률 (%)	-7.5	1.0	4.2	42.6	23.7	1.3(“)
비석유/가스(US\$십억)	25.5	24.8	24.9	34.8	40.2	19.9(“)
증감률 (%)	-7.3	-2.7	0.4	39.8	15.4	-3.1(“)
경상수지 (US\$십억)	1.14	1.85	2.39	0.32	1.25	-
외환보유고 (US\$십억)	28.0	32.0	36.3	36.3	34.7	41.1(7월)
총 외채 (US\$십억)	133.1	131.3	135.4	137.0	133.5	-
인구 (백만 명)	206	210	210	215	220	240(예상)
인플레이션율 (%)	12.55	10.03	5.06	6.40	17.11	15.15(7월)
은행 예치 이자율(3개월)						
- 국영은행 (%)	17.5	13.7	7.1	6.5	11.71	11.58(6월)
- 일반은행 (%)	17.2	13.6	7.1	6.7	11.75	11.70(6월)
은행 대출 이자율(3개월)						
- 국영은행 (%)	16.4	16.8	16.0	14.6	15.2	15.44(6월)
- 일반은행 (%)	19.9	20.2	18.7	16.6	16.8	17.82(6월)
환율(연평균, RP/US\$)	10,400	8,940	8,465	8,950	9,700	9,140(8월)

자료원: 인니중앙은행, 인니통계청

12. 무역통계

대외거래지표

(단위: US\$ 백만)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6
수 출	56,321	57,159	61,058	71,585	85,565	46,919
수 입	30,962	31,289	32,551	46,525	57,547	28,836
수 지	25,359	25,870	28,507	25,060	28,018	18,083

자료원: 인니통계청

가. 교역대상국 별 수출입통계/국별 수출입통계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별 수출현황

(단위/US\$ 백만)

순위	국 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56,321	57,159	61,058	71,585	85,660
1	일 본	13,010	12,045	13,604	15,962	18,049
2	미 국	7,749	7,559	7,374	8,767	9,868
3	싱가폴	5,364	5,349	5,400	5,998	7,835
4	한 국	3,773	4,107	4,324	4,830	7,086
5	중 국	2,201	2,903	3,803	4,605	6,662
6	말레이시아	1,779	2,030	2,364	3,016	3,431
7	인 도	1,054	1,302	1,743	2,171	2,878
8	대 만	2,188	2,068	2,233	2,854	2,475
9	태 국	1,064	1,227	1,393	1,976	2,246
10	네덜란드	1,498	1,618	1,401	1,797	2,233
	기 타	16,641	16,951	17,419	19,609	22,897

자료원: 인니통계청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별 수입현황

(단위/US\$ 백만)

순위	국 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30,962	31,289	32,551	46,525	57,701
1	싱가폴	3,147	4,100	4,155	6,083	9,471
2	일 본	4,690	4,409	4,228	6,081	6,906
3	중 국	1,843	2,427	2,958	4,101	5,842
4	미 국	3,208	2,640	2,695	3,225	3,879
5	태 국	986	1,191	1,702	2,772	3,447
6	한 국	2,209	1,647	1,528	1,943	2,869
7	사우디	1,314	1,104	1,498	1,967	2,712
8	호 주	1,814	1,587	1,648	2,215	2,567
9	말레이시아	1,006	1,037	1,138	1,682	2,148
10	독 일	1,301	1,224	1,181	1,734	1,780
	기 타	9,444	9,923	9,820	14,722	16,080

자료원: 인니통계청

나.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

주요품목별 수출

(단위: US\$ 백만)

구분(HS CODE)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수 출	56,320.9	57,158.8	61,058.2	71,584.6	85,659.9
액화천연가스(271111)	5,832.6	5,277.8	6,145.6	7,289.4	8,599.3
원유(270900)	5,680.3	5,035.3	5,268.5	5,557.8	6,958.0
역청탄(270112)	1,547.5	1,703.3	1,894.7	2,367.8	3,714.6
구리 원석/정광(2603)	1,704.3	1,755.5	1,854.7	1,802.4	3,311.0
팜오일 제품(151190)	674.5	1,200.4	1,392.4	1,997.4	2,163.0
특수천연고무(400122)	666.4	879.3	1,254.4	1,760.5	2,043.6
팜 오일 원유(151110)	406.4	892.0	1,062.2	1,444.4	1,593.3
가공유(2710)	622.6	732.2	887.8	1,044.3	1,299.3
기타광물유(2709009)	34.3	19.3	352.5	683.6	1,187.8
프린터(847160)	259.9	283.2	219.7	850.4	155.4
백상지(480252)	459.2	460.7	439.0	548.2	1,009.1
합판(441213)	1,330.3	1,289.3	1,235.1	1,178.5	974.4
기 타	37,102.6	37,630.5	39,051.6	45,059.9	52,651.1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주요품목별 수입

(단위: US\$ 백만)

구분(HS CODE)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수 입	30,962.1	31,288.9	32,550.7	46,524.5	57,700.9
원유(270900)	2,887.5	3,216.9	4,027.4	5,831.4	6,797.0
경유(271000600)	1,355.2	1,728.4	1,609.7	2,639.3	5,227.5
휘발유(271000290)	387.2	603.5	1,008.6	1,455.7	2,814.9
등유(271000300)	455.6	474.1	399.6	671.7	1,159.6
자동차부품(870899)	763.6	651.0	762.6	684.3	888.6
비종자용 밀(100190)	398.0	610.0	577.0	838.5	799.0
파라-크실렌(290243)	365.6	403.5	330.0	567.3	606.5
未 카드/콤 먼(5201)	1,064.1	704.8	644.5	679.9	576.0
철강 강편(720712100)	14.5	9.4	4.4	493.9	561.1
기타 석유(271000990)	1091	148.0	121.9	577.9	547.7
덤프트럭(870410)	146.9	112.6	88.7	182.8	484.4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다.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대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대 인도네시아 수출규모

(단위: 천불, %)

연도	금액	증가율	월별	2005		2006	
				금액(누계)	증가율	금액(누계)	증가율
2001	3,279,783	-6.4	3	1,066,747	27.9	839,944	-21.3
2002	3,144,766	-4.1	4	1,481,669	30.2	1,170,876	-21.0
2003	3,377,626	7.4	5	1,889,570	31.4	1,564,097	-17.2
2004	3,677,740	8.9	6	2,260,573	28.7	1,918,646	-15.1
2005	5,045,582	37.2	7	2,767,919	35.3	2,505,228	-9.5

자료원: KOTIS 2006.8.30

대 인도네시아 수입 규모

(단위: 천불, %)

연도	금액	증가율	월별	2005		2006	
				금액(누계)	증가율	금액(누계)	증가율
2001	4,473,515	-15.4	3	1,771,354	14.2	2,176,971	22.9
2002	4,723,422	5.6	4	2,412,811	18.2	2,804,119	16.2
2003	5,212,310	10.4	5	3,028,150	20.7	3,561,710	17.6
2004	6,368,132	22.2	6	3,682,865	23.6	4,364,251	18.5
2005	8,184,433	28.5	7	4,343,387	23.8	5,067,708	16.7

자료원: KOTIS 2006.8.30

라.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 인니 품목별 수출 현황(MTI 3단위 기준)

대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5		2006. 1-7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1,613,173	961.2	501,308	-30.2
2	합성 수지	297,083	0.3	157,465	-15.7
3	편직물	170,608	52.3	150,395	69.5
4	철강판	311,672	6.0	114,732	-42.4
5	음향기기	192,199	10.6	87,582	-29.3
6	기타 직물	122,288	-8.2	65,631	-11.6
7	인조장섬유직물	93,750	-14.3	56,050	-4.6
8	아연제품	43,533	-19.0	55,600	116.5
9	전자관	102,557	-42.1	53,087	-20.6
10	석유화학 중간원료	48,866	-56.6	52,062	243.3
총 계		5,045,582	37.2	2,505,229	-9.5

자료원: KOTIS(2006.8.30)

마.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 인니 품목별 수입 현황 (MTI 3단위 기준)

대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5		2006.1-7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천연가스	2,582,396	41.6	1,744,703	33.4
2	원 유	1,953,873	34.1	896,080	-14.0
3	석 탄	713,778	30.2	510,460	31.4
4	구리 원석 및 정광	505,512	133.8	231,141	7.8
5	석유제품(나프타, 벙커C유)	330,910	-12.5	190,455	-9.8
6	제지원료(펄프)	320,428	18.2	177,815	-3.1
7	기타 금속광물	17,916	5,197.8	127,766	1,386배
8	목재류(합판 등)	244,927	3.2	127,007	-8.9
9	기타 석유화학제품	120,482	1.0	89,483	13.4
10	임산 부산물	112,287	8.9	85,972	41.7
총 계		8,184,433	28.5	5,067,709	16.7

자료원: KOTIS (2006.8.30)

13. 투자통계

가.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연도별 투자 승인 동향(2001~2006.7)

연도	내국인 투자(PMDN)		외국인 투자(PMA)	
	건수	금액(Rp.십억)	건수	금액(미\$백만)
2001	270	59,881.5	1,378	15,206.3
2002	196	25,935.7	1,239	9,955.7
2003	232	55,120.9	1,238	14,278.1
2004	201	44,472.5	1,228	10,416.0
2005	218	50,577.3	1,648	13,579.2
2006(1-7)	111	86,913.1	976	7,495.1

자료원: 인니투자청(BKPM)

산업별 외국인투자 승인 현황

(금액: US\$백만)

NO	산업부문별	2003		2004		2005		2006.1-7	
		P	I	P	I	P	I	P	I
I	1차산업	36	283.9	53	410.2	100	1,381.6	82	541.0
1	농업	13	129.6	15	169.3	25	434.0	25	313.7
2	축산	4	13.9	5	39.0	2	27.8	5	19.2
3	삼림	2	95.2	-	0.2	4	128.6	1	0.5
4	어업	7	26.8	12	133.9	8	15.3	3	77.4
5	광업	10	18.4	21	67.8	61	775.9	48	130.2
II	2차산업	352	6,640.8	332	6,397.4	436	6,028.0	244	3,463.8
6	식품	42	516.0	43	740.4	62	642.6	22	647.6
7	섬유	44	129.7	46	408.1	85	139.5	56	96.8
8	가죽, 신발	10	37.2	7	20.0	10	80.9	9	31.4
9	목재	23	245.9	9	15.5	17	108.3	7	48.4
10	제지, 인쇄	11	1,299.9	15	60.4	15	227.7	11	298.7
11	화학, 의약품	26	3,038.2	34	3,421.4	42	2,879.0	26	644.7
12	고무, 플라스틱	28	77.6	31	182.0	33	164.4	21	63.1
13	비철금속	10	714.8	4	47.2	10	368.2	6	756.4
14	금속, 기계, 전자	94	324.3	83	1,020.0	101	694.9	46	524.6
15	정밀, 광학, 시계	4	4.8	1	2.9	2	16.1	-	1.9
16	자동차, 운송기기	20	159.7	26	427.9	33	629.1	20	331.6
17	기타제조	40	92.7	33	51.6	26	77.3	20	18.6
III	3차산업	850	7,353.4	843	3,608.4	1,112	6,169.6	650	3,490.3
18	전기, 가스, 용수	2	362.9	3	275.5	2	22.5	7	604.6
19	건설	43	903.6	46	964.2	91	1,777.2	23	1,589.9
20	무역	471	490.5	445	620.4	573	645.5	371	796.2
21	호텔, 요식	69	613.5	77	616.4	87	259.2	38	101.3
22	운송, 통신	55	4,592.1	58	579.1	68	3,107.3	52	182.7
23	부동산	6	52.6	9	339.7	20	124.7	12	21.2
24	기타 서비스	204	338.2	205	213.1	271	233.2	147	194.4
합계		1,238	14,278.1	1,228	10,416.0	1,648	13,579.2	976	7,495.1

주: P: 건수 / I: 투자금액

자료원: 인니투자청(BKPM)

나.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 통계/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

1)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투자현황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1967년-2005년 기간 중 누계치 기준 총 2,327건에 135억 1백 만 불로(인니 정부 승인 기준)전체 외국 투자국가 중 건수 면에서 3위, 금액 면에서 7위를 점하고 있음.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1,050개사 내외로, 이중 섬유 및 섬유관련 업체가 195개사, 신발 및 완구 관련업체가 97개사, 전기 및 전자 관련 업체가 79개사, 금속 및 기계류관련 74개사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한국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니 근로자수는 약 50만 명 정도로, 인니 전체 경제활동 인구(9천만 명)의 0.5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출비중을 보면, 섬유·봉제가 인니의 전체 섬유·봉제수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발은 31%, 완구는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투자진출기업은 인니 내 노동집약산업 부문의 생산,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95년 이후부터는 철강, 자동차, 전자, 건설, SOC 등 기간산업 분야까지 진출하고 최근 들어서는 IT분야에의 진출도 매우 활발하다.

주요 업종별 한국투자기업 현황(2005.12월 현재)

(단위: 개사)

분 야	업체수	분 야	업체수	분 야	업체수
섬 유	195	통신·컴퓨터	43	종이·목재	24
신발·완구	97	고무·플라스틱	39	금 융	17
전기·전자	79	석유화학	37	가 구	16
금속·기계	74	건 설	36	기 타	335
운송·창고	62	출판·인쇄	25	계	1,102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조사

연도별 한국의 대 인니 투자 실적

(단위:건/ 미\$백만)

	2002	2003	2004	2005	2006.1-7
건 수	246	200	210	309	192
금 액	378.3	166.2	419.3	417.3	512.8

자료원: 인니 투자 조정위원회(BKPM) 홈페이지(2006.8.28)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이며, 인구는 약 2억 3천만 명, 면적은 203만 평방 킬로미터이다. 인도네시아는 '동인도의 섬들'이란 뜻을 가졌는데 적도를 따라 북위 6도-남위 11도, 동경 95-141도 지역에 6,000여 개의 무인도를 포함한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그 섬들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르면서 아시아와 대양주의 징검다리처럼 적도 위에 펼쳐져 있다. 그 중 수마트라, 자와, 칼리만탄, 술라웨시, 이리얀자야 등 5개 섬이 중심이 된다.

기후는 전형적으로 열대성으로 고온다습하며,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구분된다. 우기는 10-3월 경, 건기는 4-9월경이다. 우기에는 하루 약 30분 정도의 스콜이 집중적으로 내리며 일단 스콜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날이 개는 것이 열대 우기의 특징이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우기의 특징이 조금씩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우기가 4-5월까지 길어지고 비도 하루 종일 내린단든지 2-3일 계속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는 비가 하루 잠깐 식 내려 충분히 빗물이 빠질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배수시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들어 물난리로 생명과 가옥을 잃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25-28도, 습도는 73-87%이다.

복장은 일년 내내 여름 옷으로 생활한다. 따라서 반팔 셔츠가 기본이나 사무실에 주로 근무하는 사무직의 경우 장시간 에어컨에 노출되므로 긴 팔 셔츠를 입는 경우도 있다. 바지는 주로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예의이므로 가급적 외출 시에는 반바지를 피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에어컨을 강하게 작동시켜 놓고 있어 의외로 감기에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출장자들은 호텔 방의 찬 공기로 인해 감기에 걸리는 수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외부의 더운 기후와 실내의 찬 기온 간의 온도 차가 심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 西部(자카르타): GMT + 7, KST - 2
(자카르타 오전9시가 한국은 오전 11시로 한국이 2시간 빠름)
- 中部(발 리): GMT + 8, KST - 1
- 東部(이리안자야): GMT + 9, KST - 0

나. 근무시간

1) 공공기관

- (월-목)08:00-16:00, (금)08:00-11:30, 13:00-16:30 토요일은 휴무. 금요일은 이슬람의 주일로서 12시 예배를 위해 오전 근무를 30분 앞당기는 대신 오후근무를 30분 연장함.
- 민간기업: 08:00- 17:00 (금요일 오후는 많은 기업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음).

2) 은행

평일 근무시간은 08:00-15:00까지 이며 토요일에는 국영은행을 포함, 전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음. SOGO 백화점 빠사라야 등 대형백화점에는 환전소가 있으므로 주말에 환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음.

3) 금요일

오후시간(12:00 - 13:00) 회교 대예배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위시해서 민간기업, 심지어는 가게까지 업무 공백이 있으므로 상담 또는 비즈니스 방문 시 금요일 오후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독교, 카톨릭, 불교 등 여타 종교인은 무관함)

- 한국대사관: (평일) 08:30 - 16:30, 토요일 휴무
- KOTRA 무역관: (평일) 08:00 - 17:00, 토요일 휴무

3. 도량형

- 길이: 미터법
 - 단 골프장의 경우에는 야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음.

- 무게: 그램(gr), 킬로그램(kg), 톤(ton)
 - 식당에서는 스테이크 게, 가재 등은 온스로 함)
- 부피: 리터(Liter), 킬로리터(Kilo Liter), 큐빅미터
- 전기규격: 220V(한국처럼 라운드형 플러그 사용함, 50Hz로 주파수가 다름), 와트(Watt) 단위 사용
- TV: PAL 방식
- 온도 : Celcius
- 화폐 단위: 미국처럼 천 단위로 끊으며, Milliar가 백만이 아닌 10억(Billion)인 것이 간혹 혼동을 일으키고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람.

4. 출입국/비자

비자발급은 각국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4년 1월까지만 해도 한국관광객의 경우 2개월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였으나, 2004년 2월부터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는 상호주의에 의한 것이나, 관광입국의 편의 제공을 위해 미국, 일본, 호주 등 22개국에 대해서는 공항(또는 항구)에 도착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교관, 관용여권의 경우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해 2004년 5월부터 14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니 정부도 2004년 6월부터 한국에 대해 동일 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14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최장 3개월 부여)

그러나 일반 여권의 경우 비자를 반드시 한국에서 받을 필요는 없으며 도착지 비자제도가 있어 도착지 공항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30일간).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한 공항과 항구는 다음과 같은 바,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비자를 받아 와야 한다.

- 공항(7)
 -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 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빠겐바루)
- 항구(13)
 -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이상 Bintan), Belawan항(메단), Sibolga항(북 수마트라), Yos Sudarso항(두마이), Teluk Bayur항(빠당), Tanjung Priok항(자카르타), Padang Bai항(발리), Jaya Pura항(빠뿌아)

도착비자는 관광, 사회, 문화, 공용의 목적에 한하고 상용비자인 경우 출국지에서 받아야 하니, 세일즈 출장의 경우에도 관광이라고 얘기한다. 입국카드에 방문목적은 적을 때 Holiday 또는 leisure 란에 체크를 한다. 비즈니스 출장자들은 습관적으로 Business란에 체크를 하는 수가 있는데, 비자 발급 시 또는 입국 심사 시 한국에서 상용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시비를 걸며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비자 수수료는 7일 체류 시까지 미화 10\$, 8일-30일은 미화 25\$ 이다. 그리고 도착비자를 받으면 체제목적 변경과 체재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종전에는 3일 체류까지는 10\$, 4일 - 30일은 25\$ 이었으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05년 8월 1일부터 단기체류기간을 7일로 연장하였다. 이는 관광객들이 가급적 오래 체류토록 하기 위함이다.

도착비자 받는 요령은 공항 입국심사 전에 도착비자 받는 창구가 있으므로 이 창구에서 먼저 비자 수수료를 내고, 다음 창구에서 여권상에 도착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도장을 받는다. 그러나 시장개척단과 같이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비자는 서울의 주한 인니 대사관이나 부산의 인니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일반사항의 주한 인니 기관 항목 참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인니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입국시점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탑승을 거부하지만, 제 3국을 경유하여 오는 경우 아무런 제지 없이 인니에 도착하는 수가 있다. 이때는 공항 이민국에서 입국을 거부하여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며 해결책으로 고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수도 있다.

또 한가지, 간혹 가다 해외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들은 여권의 비자란이 꽉 차서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부착할 면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입국이 거부되거나 해결책으로 고액을 요구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와 상기 공항 및 항구 이외의 지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 신청 시 비자 발급 신청서 2부와 여권사진 2매, 왕복 비행기표 사본이 필요하고, 상용은 출장명령서 원본과 사본, 방문비자는 초청장 원본과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3-4일 정도가 걸리며 여행사에 부탁하면 된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단 인도네시아 도착 전 6일 이내에 콜레라 오염지구를 통과한 경우 예방 접종증을 요구하므로 제시하여야 한다.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비디오 카메라 등 고가제품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나, 자진 신고를 안 한데 대한 불이익은 별로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기지가 필요하다. (통상 기재치 않음).

면세 반입은 술 1 리터, 담배 20갑 이며, 외화 소지, 반입은 자유로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인니 화폐를 1억 루피아 이상 반출할 경우 에는 신고해야 한다. 포르노물, 마약은 반입이 금지된다. 인니는 특히 마약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니 유의해야 한다.

2005년 7월 발리에 입국한 호주의 한 여자 관광객 짐에서 소량의 마약이 발견되었는데, 본인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짐에 넣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20년 징역형을 선고하여 양국간의 외교문제가 된 일이 있다. 마약범은 거의 사형이다.

입국 및 출국 카드가 우리나라와 같이 두 면으로 되어 있어, 입국 심사대에서 출국카드는 절단하여 돌려준다. 출국카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출국카드를 분실하면 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인도네시아 공항 입국 시 출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마중을 나온 일행과 못 만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출구를 정확하게 지정해 두어야 한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나오면 짐 찾는 곳이 좌우 둘로 나뉘어져 있고, 짐을 찾고 나가는 출구가 각각 따로 있는데, 출구를 나가면 다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 마중 나온 사람이 정확한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만나기가 힘들어진다.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경우, 짐을 찾는 곳에서 가까운 출구로 세관검사를 통과하고 나가면 다시 두 갈래로 길이 갈리므로 나갈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서로 약속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까지 못 만날 경우에는 1층 입국장 출구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 안에서 만나기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출국 시에는 통상 비행기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절차를 밟아야 하며 공항세는 국제선이 100,000루피아 이며 국내선은 15,000-20,000루피아가 징수된다. 그러나 지상사 요원과 같이 현지 거주증을 소지한 사람은 내국인으로 간주 출국 시 추가로 1,000,000루피아를 납부 해야 한다. 출입국시 외화의 소지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자카르타에 입국해서 바로 수라바야, 메단, 발리 등 다른 도시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카르타 공항은 국제선이 있는 2청사와 2청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국내선 전용의 1청사로 구분된다. 2청사는 국제선 전용이나, 인니 국적의 가루다 항공과 라이온 항공 국내선도 같이 이용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항공사 국내선은 1청사를 이용하니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행기 Transit 때문에 공항 근처에서 1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Sheraton Bandara 호텔이나 공항 2청사 내에 있는 Quality호텔을 이용하면 좋다. Sheraton 호텔은 공항에서 10분 거리로 공항 내에 안내 데스크가 있고,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Quality Hotel은 공항 내에 있어 이동할 필요가 없는 편리한 점이 있으나, 수준은 좀 쳐진다. 1박 비용은 양쪽 모두 미화 90\$ 수준이며 Quality Hotel의 경우 6시간 미만 쉬어 갈 경우 미화 50\$을 받는 다. (호텔 연락처는 호텔 항목 참조)

5. 환율/환전

인니의 화폐단위는 루피아(RUPIAH)이며, 지폐는 1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등 6가지가 있다. 동전은 25, 50, 100, 500루피아의 4종류가 있으며 드물게 5, 10 루피아 짜리도 볼 수 있으나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10,000루피아, 20,000루피아, 50,000루피아, 100,000 루피아 지폐는 2004년 말 - 2005년에 걸쳐 신 화폐가 발권되어 구 화폐와 혼용되고 있다.

인니에서는 호텔이나 일부 한국식당, 한국수퍼를 제외하고는 달러가 거의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화로 환전을 해야 한다.

환전은 공항출구, 일반백화점, 공인 환전소, 은행, 호텔 등에서 쉽게 할 수 있으나, 환율은 BCA, BII 은행 등 은행이 가장 좋고 다음으로 공인환전소, 일반백화점, 공항출구, 호텔 순이다. SOGO 백화점의 경우 국영은행 출장소가 있어서 영업시간까지 환전을 해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급하게 환전을 하여야 할 경우 동 출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저녁9시까지 영업)이 될 수 있다.

미 달러화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로 환전 시 달러화 지폐에 흠이 없는 99년 이후 발권된 새 돈이어야 환전이 용이하다. 은행 및 환전소에서는 달러화 지폐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환전 및 입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지폐가 접혀있거나, 도장이 찍혀있다거나, 볼펜으로 조금 이나마 낙서를 했다가거나 하면 환전이 안되거나 환전에 응하더라도 환율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보통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화 100불짜리 중에서도 지폐 번호가 CB, DB, DF, DR로 시작되는 것은 위폐가 많다 하여 환전을 거부하는 일이 많으니 한국에서 미화 환전 시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위폐가 발견되면 중앙은행에서 각 은행, 환전상에 지폐번호를 추가로 고지한다.

또한 일반 환율은 100불짜리 지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50불 이하의 소액 달러 지폐들은 환율 적용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때는 소액권은 피하고 가급적 100불짜리 신권만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간혹 1불짜리를 서비스 팁으로 현지인들에게 주기 위해 일부러 가져오기도 하는데, 현지인들은 1불의 절반가치 밖에 안 되는 현지화폐 5,000루피아를 더 고맙게 받으므로 소액 미화 달러를 일부러 가져올 필요는 없다.

아울러 여행자수표의 경우 환전이 매우 어려운바 가급적 현찰을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호텔,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통용이 잘 되는 편이다.

최근에는 국내 공항의 은행에서 한화를 인니의 루피아화로 직접 교환하여 주므로 한국에서 직접 루피아화로 환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조만간 인니의 지정된 은행이나 환전소에서도 한화를 루피아화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율은 2006년 들어 루피아화가 강세를 보여 연초의 1\$대 9,700 루피아에서 8,700루피아 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해 8월 30일 현재 9,115 루피아를 기록하고 있다.

6. 물가정보

□ 도시 :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환율 : US\$1 = RP9,7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u>1. 의복</u>			<u>7. 잡화</u>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536.08	7.1	구두(1켤레, 소가죽)	88.66
1.2	넥타이(1개, 실크100%)	41.24	7.2	치약(150g, 1개)	0.74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33.92	7.3	칫솔(1개)	1.41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2.58	7.4	면도기(1세트)	4.18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340.21	7.5	건전지(1세트, 1.5V AA)	0.92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0.88	7.6	화장지(1통, 300매)	0.73
1.7	청바지(Levi's)	56.6	7.7	비누(1개)	0.62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6.7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1.37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3.51	8.2	볼펜(12개)	1.86
2.3	닭고기(1KG, 생닭)	1.29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2.47
2.4	쌀(1KG, Short Grain)	1.03	8.4	공CD(1통, 12개입, 700MB)	6.19
2.5	밀가루(1KG)	0.57	8.5	휴대폰(범용형)	257.73
2.6	설탕(1KG, 백설탕)	0.67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6.7
2.7	계란(10개)	1.03	8.7	인터넷가입비(1회최초, 1회설치)	51.55
2.8	감자(1KG, 현지산)	0.67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46.39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1.41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4,432.99
3.1	고추장(1Kg)	7.14	9.2	엔진오일(1L)	6.9
3.2	된장(1Kg)	3.71	9.3	휘발류(1L)	0.61
3.3	라면(1개)	0.71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85.57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등)	7.73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515.46
3.5	불고기(1인분, 200g)	10.31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5.67	10.1	지하철(1구간)	없음
3.7	김치찌개(1인분)	5.46	10.2	시내버스(1구간)	0.46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0.52
4.1	햄버거(1개)	1.72	10.4	택시(추가요금/Km)	0.26
4.2	피자(1판)	6.7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29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45.36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0.89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3.52
4.5	담배(수입산, 1갑)	1.03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03
4.6	위스키(1병, 750ml)	36.07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01
4.7	커피(1병, 175g)	2.62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2.0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15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1,50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이하, 현지-서울)	0.46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1,50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44.31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5%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06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0~3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42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6.49
6.1	TV(29인치, 칼라, 범용)	402.06			
6.2	VTR(6헤드, 범용)	187.53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85.57			
6.4	전자레인지	118.55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592.78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237.11			

□ 도시 :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환율 : US\$1 = RP9,7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42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자카르타)	84.43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없음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3년치)	10,000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 연간)	3.94~5.44%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3,4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2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5,5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3개월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5,500	18.6	연간국경일	14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72.16	18.8	노동쟁의시 냉각기간일수	없음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7,731.96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25.77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360.82	19.1	법정최저자금	2,061.86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19.07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5,0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5.15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주)참고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주)참고
14.1	의료보험료(4인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주)참고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1~15%
14.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20.62	※14.1 의료 보험은 별도로		
14.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주)참고	없으며, 근로자 사회 보장제도		
14.4	치과(스켈링, 1회)	30.93	내 임의 보험으로 운영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0.26	※18.3 고용주부담(3.94~5.44%)		
15. 신문·방송·잡지			※19.1 규정상 2천만 루피 이하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5.77	외투기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에		
15.2	한국신문(1개월)	43	따라 최저 자본금을 권고함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19.16	※19.3 세제혜택은 없으며, 10,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2.58	15, 30%로 업종에 따라서 구분됨		
16. 호텔			※19.4 인니네 발생 소득 20%에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95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부과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00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49.9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40.21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2.37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5.61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급여, 대졸초임)	335.05			
17.2	사무실비서(월급여, 학력불문)	278.35			

7. 교통/통신

가. 교통

1) 대중교통

1997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치안불안 상황이 노정되고 있어 방문객 특히 외국인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버스 등 대중교통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BUS WAY라고 해서 전철 대신에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전용도로 이용 버스는 그 중 서비스가 나은 편이므로 대중 교통수단 중에는 그나마 가장 추천할 만한 교통수단임. (1회 탑승 시 3,500루피아 임)

택시의 경우에는 운송 그룹인 Bird사가 운영하는 Silver Bird(한국의 모범택시에 해당) 또는 Blue Bird 라고 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택시를 타는 경우 요금을 속이거나 강도를 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Silver Bird는 흑색, Blue Bird는 청색이나, 일반택시가 대부분 청색이기 때문에 택시 측면 또는 후면의 Blue Bird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니면 공항, 호텔 프런트, 사무실 또는 공공건물 입구 Car Call 서비스에 요청하여 반드시 Silver Bird 또는 Blue Bird를 불러도 좋다. Blue Bird 보다는 Silver Bird가 차나 서비스 면에서 더 우수하다.

그리고 Golden Bird도 있는데, 이는 리무진 서비스로 호텔에 얘기하면 시간제로 빌릴 수 있으나 상당히 고가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용할 필요는 없다.

- Silver Bird 및 Blue Bird 호출 Tel: (021) 794-1234

Blue Bird 는 기본요금 5,000루피아에 1km 추가 주행에 2,500 루피아가 부과되며, Silver Bird는 기본요금 6,000루피아에 1km 추가 주행에 3,200루피아가 부과된다. 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이고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자카르타 시내는 교통 체증이 워낙 심해 택시요금이 생각 보다 많이 나올 때가 많다. 그러나 요금 자체가 비싼편은 아니다. 택시회사에 택시를 부른 경우 최소 요금이 20,000 루피아여서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20,000 루피아를 지불해야 한다.

2) 철도

인도네시아를 달리는 열차는 국유열차 PJKA가 있으며, 총 연장 6천km 인데 이중에서 4천km 는 자와, 마두라섬에 있고 나머지는 수마트라 섬에 있다. 기차표 구입은 언제든지 정거장에서 출발 1 시간 전에 가능하나 여행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여행사를 통하여 미리 예매하는 것이 좋다.

3) 항공

인니는 국토의 특성상 육상운송이 낙후되어있어 항공운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항공사도 국영항공인 가루다 항공을 비롯하여 소규모의 국내선 항공사들이 여러 개 있다. 주요 국내선 항공사들로는 Lion Air, Merpati Air, Mandala Air, Adam Air, Efata Air, Jatayu Air,

Batavia Air, Kartika Air, Pelita Air, Star Air, Sriwijaya Air 등이 있다. 가고자 하는 행선지는 여행사를 통해서 또는 공항에서 항공권을 직접 구입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선(짧은 구간)일부는 예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일찍 공항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제선은 자카르타에서 인근 싱가포르, 방콕, 호지민, 시드니 등에 직항편이 운항된다. 한국과의 항공편은 KAL이 매일 1회 운항한다. 아시아나는 주 3회 운항하였으나, 2005년 8월 조종사 파업 이후 운항이 중단되었다.

KAL 항공기는 오후 3시 20분에 인천을 출발하여 자카르타에 오후 8시 10분 도착하며, 이 비행기가 밤 9시 40분에 다시 자카르타를 출발, 다음날 아침 6시 15분에 인천에 도착한다. 서울-자카르타간 비행시간은 약 7시간이다. 가루다 항공은 자카르타 서울편을 KAL과 코드쉐어 방식으로 운항하고 있다. 인천-발리편은 KAL과 가루다 항공이 각각 주 4회씩 운항하고 있다. KAL편은 매주 월, 수, 금, 일요일 밤 10시 5분에 인천을 출발, 다음날 오전 01시 55분에 발리의 덴파사 공항에 도착한다. 이 비행기가 03시 10분에 다시 발리를 떠나 인천에 오전 11시 05분에 도착하니 발리->인천 비행기는 화, 목, 토, 일요일에 있는 셈이다. 가루다 항공의 발리(덴파사)-인천 항공편은 2006년 4월부터 운행되고 있는데, 매주 화, 목, 토, 일요일 0시 45분에 발리를 출발, 08:30분에 인천에 도착하며 이 비행기가 같은 날 11시 00분에 인천을 떠나 16:50분에 발리에 도착한다. 가루다 항공은 자카르타 - 발리경유 - 인천 티켓을 팔고 있는데, KAL 직행 보다 저렴하나 발리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국내선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국내 도시들로 출장을 다닐 때, 여행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루다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국내선들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한 두시간 연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제선과 연계해 탑승하려다 비행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통신

1) 공중전화

인도네시아에서는 호텔이나 공항 등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길거리에서는 WARTEL(와르텔/가게를 뜻하는 Warung과 Telephone의 합성어)이라고 전화기를 설치한 가게에서 국제 전화를 할 수 있다.

공중전화 거는 방법은 버튼 식으로 우리나라와 같다. 공중전화인 경우 100루피아로 1분동안 통화할 수 있으며 카드 (Rp. 10,000 - 50,000권)를 구입 할 시 국제전화 및 지방에도 통화가 가능하다. 최근 공중 전화는 동전 식으로부터 카드 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 바 인니 방문 시 전화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의 통화 시 카드를 구입하여 호텔 및 백화점, 일반 공공장소에서 항시 통화할 수 있다. 통화 방식은 001 + 82(한국코드)+ 2(서울코드) + 원하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국식당 등에서는 한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 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 전화 보다 요금이 50%-70% 저렴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통신의 수신자 부담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동 서비스 번호는 001-801-82 이다. 호텔과 공공장소(공항 등)에서 수화기를 들고 동 전화번호를 누르면 한국 교환원이 '여보세요' 하면서 원하는 전화 번호를 묻는데 번호를 제시하면 통화가 가능하다.

2) 휴대폰

아직까지 인니에는 핸드폰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없다. 국내 SK 텔레콤 휴대폰의 경우 자동 로밍 서비스가 있어 인니에서 모드만 바꾸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금은 비싼 편이다.

인니는 GSM과 CDMA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GSM이 먼저 도입되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CDMA는 2003년 말에 처음 도입되어 아직 점유율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통화 품질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니의 휴대폰은 SIM Card란 칩을 장착하는 형태이며, 요금도 미리 카드를 사서 입력시키는 선불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출장자들도 핸드폰을 구입하여, SIM Card를 사서 칩을 장착하고 선불카드(보통 10만루피아)를 사서 요금을 입력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폰도 저가폰은 60만~70만루피아 (미화60~70불)면 구입이 가능하니, 장기 출장자들은 현지에서 휴대폰을 사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3) 인터넷

인니는 인터넷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하다. 대부분의 일류호텔은 방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요금은 보통 하루에 미화 10불 정도이다. 방에서 인터넷 접속이 안되면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거리의 PC 방도 이용할 수 있다. PC Café 또는 Warnet(와르넷/ 가게를 뜻하는 Warung과 Internet의 합성어)이라고 불리는 PC 방이 많이 있는데, 요금은 지역과 가게마다 달라 5,000루피아에서 15,000 루피아까지 받는다.

그러나 인니는 ADSL도 이제 도입단계에 있고 일반 전화 라인이나,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려 한국의 출장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8. 호텔/식당

가. 호텔

자카르타 호텔들은 대부분 고급호텔들이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어 한국 호텔보다도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지만 가격대는 좀 더 저렴한 편이며, 무역관을 통해서 예약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예약이 가능하다.

- SHANGRI-LA HOTEL
 - BNI City Complex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usat
 - Phone: (62-21) 5707440
 - Fax: (62-21) 5702657
 - Rooms: 669
 - Class: *****
- HOTEL MULIA SENAYAN
 - Jl. Asia Afrika Senayan, Jakarta
 - Phone: (62-21) 5747777
 - Fax: (62-21) 5747888
 - Class: *****

- JAKARTA HILTON INTERNATIONAL HOTEL
 - Jl. Gatot Subroto PO BOX 3315, Jakarta Selatan
 - Phone: (62-21) 5703600, 587981, 583051
 - Fax: (62-21) 5733089, 5733091
 - Rooms: 1130
 - Class: *****

- GRAND HYATT JAKARTA HOTEL
 - 4th Floor Plaza Indonesia Jl. MH Thamrin 28-30
 - PO BOX 4546/JKT 10045
 - Phone: (62-21) 3107400, 3901234
 - Fax: (62-21) 334321, 3107300
 - Rooms: 450
 - Class: *****

- MIDPLAZA INTER-CONTINENTAL HOTEL
 - Jl. Jen. Sudirman Kav.10-11 Jakarta 10220
 - Phone: (62-21) 2510888
 - Fax: (62-21) 2511777, 2512807
 - Class: *****

- BOROBUDUR JAKARTA HOTEL
 - Jl. Lapangan Banteng Selatan PO.BOX.1329 JKT Jakarta Pusat
 - Phone: (62-21) 3805555, 3440300
 - Fax: (62-21) 380 9595, 359741
 - Rooms: 864
 - Class: *****

- LE MERIDIEN JAKARTA HOTEL
 - Jl.Jend Sudirman Kav. 18-20 Jakarta Pusat
 - Phone: (62-21) 5711414, 2513131
 - Fax: (62-21) 5711640
 - Rooms: 267
 - Class: *****

- MANDARIN ORIENTAL HOTEL
 - Jl. MH Thamrin PO BOX 3392 Jakarta Pusat
 - Phone: (62-21) 3141307
 - Fax: (62-21) 314860
 - Rooms: 455
 - Class: *****

- FOUR SEASON HOTEL
 - Jl. H.R Rasuna Said, Jakarta 12920
 - Phone: (62-21) 2523456
 - Fax: (62-21) 2524480
 - Class: *****

- SAHID JAYA HOTEL & TOWER
 - Jl. Jend Sudirman 86 PO BOX 41 Jakarta Pusat
 - Phone: (62-21) 5704444
 - Fax : (62-21) 5733168
 - Rooms: 750
 - Class: *****
- LE CRISTAL HOTEL
 - Jl. Tarogong Raya 17 Pondok Indah Jakarta Selatan 12430
 - Phone: (62-21) 7507050-60/70
 - Fax: (62-21) 7507110
 - Rooms: 328
 - Class: *****
- ANCOL TRAVELODGE
 - Jl. Lodan Timur No.7 Jakarta Utara 14430
 - Phone: (62-21) 6405641
 - Fax: (62-21) 3405645
 - Rooms: 309
 - Class: ****
- CENTURY PARK HOTEL
 - Jl. Pintu I Senayan, Jakarta Pusat
 - Phone: (62-21) 5712041
 - Fax: (62-21) 571219-3
 - Rooms: 630
 - Class: ***
- Quality Hotel(Jakarta Airport Hotel)
 - Terminal 2E,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Jakarta
 - Phone: (62-21)559-0008
 - Fax: (62-21)559-0018
 - Class: ***
- Sheraton Bandara Hotel
 -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Jakarta
 - Phone: (62-21)559-7777
 - Fax: (62-21)559-7700
 - Class: *****

나. 식당

인도네시아 식당에서 계산서 상에 세금과 팁(Tax 밑에 Service로 명시됨)이 미리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만일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별도의 도장이나 표시가 계산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약 10%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1) 한식당

자카르타에는 약 80개의 한국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음식가격은 탕이나 찜계류는 미화6-7\$ 로 한국보다는 다소 비싸고, 고기류는 싼 편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 가 나

- 주소: Landmark Bid. Ground Floor, JL. Jalan Sudirman No.1 Jakarta
- TEL: 252-0077, 571-0909

○ 가 효

- TEL: 5289-7044
- 주소: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akarta Selatan

○ 뉴 코리아타워

- TEL: 3193-0311/0112
- 주소: Bank Bumi Daya Plaza 30th Fl Jl Imam Bonjol No. 61 Jakarta 10310

○ 다 솔

- TEL: 251-2030, 251-2031
- 주소: KOMPLEX TAMAN RIA SENAYAN UNIT E2, 1, JL.GERBANG PEMUDA NO.3 JAKARTA 10720

○ 대감집

- TEL. 7279-4206
- 주소: JL. MELAWAI VI/IA (BLOCK M), Jakarta

○ 산타 코리아

- TEL: 720-6091, 722-9911
- 주소: Jl. Senayan No.2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 수라청

- TEL : 527-8721, 527-8722
- JL. Senopati No. 49 Kebayoran Baru, Jakarta

○ 아리랑

- TEL: 739-7032, 720-8048
- 주소: Jl. Mahakam I No.28 Block M Jakarta 12130

○ 토 박

- TEL. 720-3642, 7280-0753
- 주소 : JL. Woltermonginsidi No.30, Jakarta

○ 한국관

- TEL. 726-2703, 720-7322
- 주소: JL JEND SUDIRMAN NO.1, Jakarta (HILTON HOTEL에서 1.5KM)

○ City Seoul

- TEL: 5289-7506
- 주소: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akarta Selatan

2) 중식당

- 놀라얀 (TEL. 570-0235)
- 밍 가든 (TEL. 521-0505)
- 드레곤 시티 (TEL. 522-1933)
- 가야성(TEL. 720-9355): 한국식 중식당
- Ahyat Seafood(TEL 570-5333)
- Christal Jade Palace (TEL 574-4888)

3) 일식당

- Bushido (TEL 570-0723): Sahid Jaya 호텔 내
- Honzen(TEL 570-7796): Midplaza Inter Continental 호텔 내
- Kyoka(TEL 526-6688)
- Kirishima(TEL 526-8080): Gran Melia Hotel 내
- Kisoya(TEL 574-7581): 한국식 일식당
- Asuka(TEL 5798-8888): Marriot호텔 내

4) Steak House

- Angus House(TEL 570-0198)
- The Grill(TEL 570-6200)

9. 관공서 관행

아직도 매우 낙후된 행정처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료적인 성향이 강하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 보다는 권리 의식이 강하여 소위 말하는 꾀발을 부리려는 경우가 많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관행화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업무에 대해 상급자에게 요청을 해도 실무담당자선에서 해결이 안된 경우가 많다. 자신의 업무이지 상급자가 간섭 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이다.

또한 이권부서에서는 비리가 공공연하게 성행되고 있어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기업활동 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커미션을 항상 10-20% 사전에 계산해 두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정도이다. 해외 투자가들이나, 국제 기구에서도 인니의 부패 문제를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한 2004년 국가 청렴도 순위에서 인니는 146개국 중 133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취임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부정 부패 척결을 정책의 중심 과제로 삼고 부패 방지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5년 5월에는 부패 방지 위원회와는 별도로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범죄척결 팀을 구성하였다. 부패범죄 척결 팀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재정개발감독청장 등 3인의 고문과 4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패관련 조사와 수사를 하여 매 3개월마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가 국가의 최대의 적이라는 인식하에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세관 관리들이 수입 화물의 전수검사를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킨다거나, 인허가 관련 관리들이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전보다 고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실제 일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신정부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한지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부패가 줄었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홍콩에 있는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가 2006년 2월에 발표한 아시아 주요국의 부패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부패도는 10점 만점에 8.16으로 여전히 가장 부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9.10보다는 좋아졌지만 베트남의 7.91, 필리핀의 7.80, 중국의 7.58, 인도의 6.76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최고의 국영은행인 Mandiri 은행 총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체주 주지사 BKPM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혐의로 구속되는 등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는 보여지고 있다. 부패 척결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일시적이 아닌, 강도 높고 지속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006년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반 공무원 급여를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해 공무원 처우를 대폭 개선하면서, 부정부패 단속을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10. 공휴일

□ 2006년 공휴일

- 1월 1일(일) New Year's Day
- 1월 10일(화) Idul Adha
- 1월 29일(일) Chinese New Year
- 1월 31일(화) Hijiriyah New Year(무슬림)
- 3월 30일(목) Nyepi Day(힌두)
- 3월 31일(금): 단체 휴가일
- 4월 10일(월) Birth of Prophet (마호메트 탄신일)
- 4월 14일(금) Good Friday
- 5월 13일(토) Waisak Day(석가탄신일)
- 5월 25일(목) 예수 승천일
- 5월 26일(금): 단체 휴가일
- 8월 17일(목) 독립기념일
- 8월 18일(금): 단체 휴가일
- 8월 21일(월) 마호메트 승천일
- 10.24(화)~ 25(수) End of Ramahadan (Idul Fitri)
- 10.23일(월), 10월 26일(목), 10.27(금): 단체 휴가일
- 12월 25일(월) 크리스마스
- 12월 31일(일) Idul Adah

□ 참고사항

인도네시아 정부는 명절과 주말 사이에 긴 샌드위치 데이는 단체휴가일로 정하여, 공휴일은 아니지만 연가에서 공제하고 단체로 휴가를 주도록 권하고 있다. 공무원은 모두 휴무하며, 회사들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를 수락, 대부분 휴가를 주고 있다.

2006년에는 3월 31일, 5월 26일, 8월 18일과 이슬람 최대명절인 르바란 전 후의 3일 (10월 23일, 26일, 27일) 등 총 6일이 단체휴가일로 지정되어 있다.

11. 여행시 유의사항

인도네시아인은 대부분 회교도들으로써 왼손을 불결하게 여기기 때문에 악수, 물건 수수 등 타인과 접촉할 때 오른손을 사용하고, 머리를 만지는 것을 싫어하며 술에 취하는 것은 불손한 행위로 여긴다.

특히 작은 현지식당에 갔다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갈 경우,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고 받아놓은 수도물로 뒷 처리를 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휴지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 (왼손으로 화장지 없이 뒷 처리를 하고 물로 씻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식사나 악수에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 면도 있다)

수돗물은 식수로 사용 불가하므로 음료수는 AQUA, ADES, OASIS 등 상표의 밀봉된 것을 마시고 식당에서 음료수에 얼음을 타 마시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장이 약한 사람은 현지식당에서 날 채소를 먹는 것도 금하는 것이 좋다. 깨끗하지 않은 물로 채소를 씻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식당에서는 'WATER' 라고 말하는 것보다 'AQUA' 라고 부르는 것을 쉽게 알아듣는다. 원래 AQUA는 브랜드 명이지만 이제는 거의 생수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

또한 인니가 열대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추워서 감기에 걸리는 여행객들이 많다. 호텔 방이나 사무실의 에어컨이 너무 세서 냉방병에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방에서 취침할 시는 자기 전에 온도를 조정해 놓거나 에어컨을 끄는 것이 좋다.

여성의 미모나 치장에 대한 언급을 삼가야 하고, 대낮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노상 절도 행위 혹은 소매치기가 간혹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저녁에 홀로 외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압은 220V 이므로 휴대 전기용품 사용시 주의하고 봉사료의 경우, 공항 또는 호텔의 포터에게는 짐 1개당 5,000루피아 정도 팁을 지불해야 하니 사전에 잔돈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당 Bill에는 대개 10%의 봉사료가 포함되므로 별도 팁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식당에 따라서는 Bill에 'No Service Charge' 라고 적혀 나오는 수가 있는데, 이는 팁을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팁이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 10% 미만 의 팁을 주는 것이 좋다.

인니 방문기념으로 현지식당(유명식당 제외)에서 인니 음식을 맛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니 식당은 비위생적인 곳이 많으므로 삼가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니는 조류독감 다발 지역으로 자카르타에서 여러 명이 사망하였으니 개인 위생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조류

독감은 열이 많이 나고 호흡에 곤란을 겪는 증세를 보이니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간다. 또한 Dengue열도 인니의 풍토병이라고 할 수 있으니 가급적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카르타 시내의 교통 혼잡이 심하여 시간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시간 약속이 있는 경우 충분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중에서도 우리의 모범택시에 해당하는 검정색 대형 Silver Bird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택시요금은 비싸지 않아 자카르타 시내에서 1시간을 타도 미화로 10\$을 넘지 않는다.

대중교통으로 버스가 비교적 많이 있으나, 요금이 3,500 루피아 인 도시 고속버스 Trans Jakarta (자카르타 시내의 버스 웨이를 달리는 버스로 현재 2개 라인이 있음) 정도만 외국인이 탈 수 있고 나머지 시내 버스는 매우 혼잡하고, 낡고, 소매치기도 많아 외국인이 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12. 유용한 연락처

□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 주소: JL GATOT SUBROTO NO.57, JAKARTA, INDONESIA
- 전화: 520-1915
- 대사: 이 선진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주소: Suite 2102, 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 Jakarta
- 전화: 574-1522
- 팩스: 572-2187, 572-2204
- 관장: 김 병권

□ 수출보험공사

- 주소: Suite 2104, 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 Jakarta
- 전화: 570-5565
- 팩스: 574-1470
- 소장: 김 은성

□ 석유 공사

- 주소: 17th Floor, Gedung BRI II, JL. Jendral Sudirman No. 44-46, Jakarta
- 전화: 5793-2517
- 팩스: 5793-2519
- 지사장: 권 흥삼

□ KOICA

- 주소: JL GATOT SUBROTO NO.57, JAKARTA, INDONESIA
- 전화: 522-7771

- FAX : 525-4735
- 소장: 한 충식

□ 외환은행

- 주소: 12TH FL 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Jakarta
- 전화: 574-1030
- FAX : 570-7189
- 은행장: 조 종수

□ 수출입은행

- 주소: Menara Mulia 2007, JL. Gatot Subroto Kav. 9-11,Jakarta
- 전화: 525-7261
- FAX : 525-7260
- 은행장: 신 재용

□ 우리은행

- 주소: BRI II BLDG., 11TH FL., JL.Jendral Sudirman, JAKARTA
- 전화: 571-3366/8
- FAX: 571-3369
- 은행장: 임 철진

□ 대한항공

- 주소: 7TH WISMA BANK DHARMALA, JL.Jendral Sudirman KAV. 28, JAKARTA
- 전화: 521- 2180
- FAX: 521-2179
- 지점장: 김 창모

□ 기타 인니 내 주요 연락처

- 대사관 당직전화: 0811-852-446
- 국제전화 신청: 101, 104
- 시내전화 안내: 108
- 경찰(일반범죄): 110
- 서울직통전화: 001-82-2-전화번호
- 한인회: 521-2515
- 한국병원: 5296-1522/24
- 서울 메디칼 센터: 799-1333
- 뉴월드 메디칼 클리닉: 7279-3809
- 한국 국제학교: 844-4961

□ 주요 호텔 연락처

- Hyatt: 390-1234
- Hilton Hotel: 573-8011, 570-3600
- Hotel Mulia Senayan: 574-7777
- Sahid Jaya Hotel: 570-4444
- Mandarin Hotel: 314-1407
- Hotel Inter continental Midplaza: 251-0888
- Hotel Shangrila: 570-7440
- Marriott Hotel: 5798-8888

13. 관광명소

□ 독립기념탑 (MONAS)

자카르타 중심부 띠만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탑은 독립기념광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방형의 음을 나타내는 대(臺)위에 양을 나타내는 탑을 조화시킨 건축물이다. 1945년 8월 17일 인니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이 탑의 높이는 137M이며, 탑의 꼭대기는 불꽃 모양의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다. 이 황금불꽃은 1995년에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금된 금의 양을 34KG에서 50KG으로 증축하였다. 탑의 상층부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내부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볼 수 있으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다를 볼 수도 있다. 탑의 하층부 지하에는 역사 이전의 시대부터 인니 고대왕국, 네덜란드와 일본의 지배, 독립 과정까지의 과정이 파노라마식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그 윗층에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과 하타 부통령이 선언했던 독립선언문이 소장되어 있고 선언 당시 음성도 직접 들을 수 있다.(관람시간 08:30-1700)

□ 독립광장 (MERDEKA SQUARE)

독립기념탑을 중심으로 워싱턴 광장을 표본으로 만들어진 이 광장은 방사선상으로 뻗어 있으며, 푸른 잔디와 나무들로 어우러진 자카르타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이들,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곳은 무료공원이며 사진 찍기도 좋은 장소여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 대통령궁 (ISTANA PRESIDENT)

1942년까지 화란 총독에 의해 사용되다 독립 후 대통령의 공관으로 사용되었던 이 궁은 네덜란드 지배 당시 총독부의 궁전이었으나 지금은 외국에서 오는 국빈을 대접하는 파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에는 궁전 앞 뜰에서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 건물은 전체가 흰색으로 되어 있으며, 밤이 되면 건물에 불이 밝혀져 한층 더 아름답게 보인다.

□ 회교사원 (Masjid ISTIQLAL)

이슬람 교도들이 90% 이상인 인니에서는 어느 곳을 가나 회교사원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사원이 바로 이곳이다. 아시아권 최대의 사원이며 전세계

적으로 3번째로 큰 곳이다.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1961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1978년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에 완성된 거대한 사원으로서 이 나라가 이슬람국가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다. 기존구조로는 거대한 여러 개의 큰 기둥을 비롯해서 회교사원의 기본양식인 둥근 탑과 뾰족한 철탑도 가지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1시 경에는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합동 예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며, 매년 이슬람의 최대 행사인 르바란에는 대통령도 이곳에서 예배를 본다.

□ 국립박물관 (MUSEUM PUSAT)

이 박물관은 1862년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착공하여 1967년에 완공되었다. 그 당시에는 'BATAVIAACSH GENOOTSCHAP VAN KJNSTEN EN WETENSCHAPPEN'(인니 문화를 사랑하는 인니 거주 네덜란드인의 모임) 이라고 불렸다. 독립 후 1979년 5.28일 “인니 국립 박물관” 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시 품목도 더욱 다양하게 보충하였다. 이 박물관의 주요 전시내용은 선사시대 도구 '피테칸트로프스 에렉투스(자바원인)'의 두개골을 비롯하여 돌도끼, 토기, 동물의 뼈, 가죽으로 만든 연장 등 고고학적 발굴품, 고대 화폐, 역사적 물품, 각 지방문화 물품, 각종 미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 시간: 화. 수. 목. 일요일 08:30-14:30/ 금요일 08:30-11:30/토요일 08:30-13:30/월요일은 휴관)

□ 안쥘 유원지 (ANCOL)

1967년에 완성된 총면적 552Ha의 대규모 종합유원지로서 정식 명칭은 (TAMAN IMPIAN JAYA ANCOL)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즐길 수 있도록 골프장, 요트장, 볼링장, 수영장 등의 스포츠 시설과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가라오케, 마사지실 등의 성인 오락시설과 수족관, 놀이동산 등의 아이들을 위한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인니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유원지이다. 해안을 끼고 있는 이 유원지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자카르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 따만미니 인도네시아

흔히 '따만미니'로 불리우는 이곳 민속촌의 정확한 명칭은 'TAMAN MINI INDONESIA INDAH'이다. 번역하면 '아름다운 인도네시아의 작은 공원'이 된다. 이 공원은 1970년대 초 수하르토 대통령의 부인인 이부 틴 수하르토 여사의 제안으로 건설이 시작되었다. 특별한 관광명소가 없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각광 받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이 곳은 모든 자카르타 방문객들의 필수코스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인니 초중고 학생들이 한번은 꼭 오게 되는 견학코스으로도 유명하다. '여기에 오면 인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100Ha를 넘는 넓은 공간 내에 인니 27개 주 각 지방의 문화 및 주거, 의상 등을 전체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해놓았다. 또 공원 중앙에는 큰 인공호수가 있으며, 그 안에는 인니의 지도모양을 한 인공 섬들이 지도처럼 꾸며져 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곳을 관람하게 되면, 인니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관람시간 09:00-1700/월요일 휴관)

□ 수하르토 박물관 (Purna Bhakti Pertiwi)

수하르토 대통령 재직시절 국내외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오랜 기간 동안 큰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이어서 상아제품, 도자기, 공예품 등 수 천점의 진귀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 한번 볼만하다. 특히 따만미니 인도네시아와 바로 붙어 있어 따만

미니와 함께 관람하기가 아주 용이하다. 그리고 박물관 현관에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출생부터 대통령 시절 업적까지 일대기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목판에 조각하여 전시하고 있어 인니 역사를 아는데도 도움이 된다. 따만미니 바로 옆에 있다. (관람시간 09:00-1700 / 월요일 휴관)

□ 보고르 식물원(Kebun Bayar Bogor)

자카르타에서 약 60km 거리에 위치하며 87ha의 공원 안에 인도네시아와 세계 각지의 희귀 식물 15,000여종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 시간 08:00-17:00)

□ 따만 사파리(Taman Safari)

뽕짝 산 기슭에 위치한 자동차를 타고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동물원이며, 외부에는 별도의 어린이 동물원과 놀이공원이 소재해 있다. 그러나 휴일에는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니 조심해야 한다. (관람시간: 평일 09:00-17:00/ 휴일 08:30-17:30)

□ 반둥 화산 및 온천

해발 2,096m 높이에 거대한 분화구가 있는 서부자바 최대의 화산이 있으며, 산기슭에 노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레저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자카르타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소요된다.

□ 족자카르타(Yogyakarta)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인니의 古都이다. 한국의 경주에 비교되는 곳으로 많은 불교사원과 힌두사원들이 혼재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원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불교사원인 보르부드르 사원과 가장 아름다운 힌두사원이라는 뽕람바난 사원을 들 수 있다. 또 족자카르타는 아직도 왕(Sultan)이 있는 곳으로 왕이 주지사를 맡고 있다. 그 밖에 인니의 전통 직물인 바틱공장과 은세공품 가공공장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자카르타에서 아침에 가서 오후 늦게 돌아오는 당일치기 관광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6년 5월 족자카르타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뽕람바난 사원 일부가 훼손되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인근의 활화산인 머라피가 6월까지 분출위험이 높았으나 최근에 위험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화산관광을 하려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가. 무역관련 법규

- 외환관리법
 - Law No 24/1999 concerning Foreign Exchange Flow & Exchange System
- 저작권법
 - Law No. 19/2002 concerning on Copyright

- 특허권법
 - Law No. 14/2001 concerning on Patent
- 상표법
 - Law No. 15/2001 concerning on Mark
- 상기밀법
 - Law No. 30/2000 concerning on Trade Secret
- 산업디자인법
 - Law No. 31/2000 concerning Industrial Design, Law No. 32/2000 concerning Layout Design Integrated Circuit

나. 투자관련 법규

- 외국인 투자법
 - Law No. 1/1967 on the Foreign Investment
- 외국인 투자법
 - Law No.11/1970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 세법
 - Law No. 16, 17, 18, 19, 20/2000 on Tax
- 외국인 투자규제 법령
 - Presidential Decree No.96/2000 concerning business fields closed and open to investment under certain conditions.
- 외국인 투자규제 법령
 - Presidential Decree No.118/2000 concerning the amendment to presidential decree no. 96/2000
- 노동법
 - Law No. 13/2003 on Manpower

16. 수입규제제도

가. 관세장벽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부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을 비롯하여 타이어, 튜브, 가정용 전가기기, 일부 섬유류, 자동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 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실효특혜관세 (CEPT) 협정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CEPT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인하 대상은 농업, 서비스

를 제외하고 자본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 가공 농산품, 기타 비 농산물 등이며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 국산자재 및 부품 사용비율이 40%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2006년 5월에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체결되었고, 년 말까지 국회동의를 거쳐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게 되면, 자유화 일정에 따라 점진적인 관세철폐 및 인하가 이루어 질 전망이어서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도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수입관세 과세가격 산정상의 불합리

관세 평가가격을 세관 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관세 부과 기준가격 산정의 불합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수입부가금등

수입과 관련된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사치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형태의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수입·판매·서비스 제공시점에서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가전제품 등 일부 내구 소비재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외에 사치세를 부과한다. (에어컨 및 냉장고의 경우 10-15%의 관세 외에 20%의 사치세 부과)

라. 통관

인도네시아 통관규정은 수입 후 검사제도(post-entry audit system) 및 수입자, 은행, 세관을 연결하는 전자자료교환(EDI)시스템 도입 이후 종전의 절차와 비교 많이 개선되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검사관의 자의적인 규정해석 등 행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마. 원산지 규정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관세 환급 신청 시 요구되는 정도이다. 인니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무역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FTA에 의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특히 2005년 섬유류에 대한 쿼터 철폐 이후 미국과 EU가 중국산 섬유에 대해서만 잠정적으로 2-3년간 쿼터규제를 취하기로 하자 중국산이 쿼터회피를 위해 인니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섬유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들어 EU가 중국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신발류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엄격히 하고 있다.

바. 수입규제

인도네시아는 국가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수입금지나 수입쿼터 같은 수량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입은 허가된 수입업자만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 수입금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은 환경관련 유해물질 (폴리머에틸렌 등), 오존 파괴 물질, 납폐기물 등이다. 그러나 납폐기물 등 생산용 폐기물은 특별허가를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다.

아. 반덤핑상계관세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는 반덤핑 제소 등의 절차가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었다. 모든 무역 관련 규정이 해당 부처의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규제 또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주무장관이 즉각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제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반덤핑 조사 위원회 관계규정이 정비되고 위원회가 조직된 이후 섬유, 주석판, 철강 등 인니 국내제품과 경쟁이 되고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 반덤핑 규제도 하고 있다.

자. 수입허가

- 허가제와 쿼터제에 의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수입허가 대상품목은 현재 166개로 축소
- 수입허가 품목
 - 등록된 수입업자 취급품목(33개): 주류 및 음료수류 27개, 공구류 6개
 - 생산하는 수입업자 취급품목(71개): 인조설탕류 3개, 프로필렌류 2개, 엔진 펌프류 5개, 트랙터류 3개, 전자키보드류 1개, 절단 금속류 57개
 - 승인 수입업자, 대리점 취급품목(47개): 오토바이류 47개
 - 국영석유회사 PERTAMINA 취급품목(3개): 윤활유 3개
 - PT.Multi Nitrotama Kimia 취급품목(4개): 화약류 4개
 - 인니측은 WTO에 국영 무역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10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약속. (2010년까지)

차. 주요 품목에 대한 검역, 검사시의 수입허가 요건

- 과일: 보건증명서 및 과실파리와 접촉이 없었다는 증명서 첨부
- 감자: 보건증명서 및 흑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첨부
- 특정동물: 인도네시아 수의부의 검사증명서 첨부
- 가축
 - 수출국의 가축보건 관련 규칙을 참조하여 해당규칙을 제정하고 인도네시아 도착 후 10-14일 이내 검역실시 (소는 도살용과 번식용으로 나누어서 수입허가)
- 마늘, 완두콩, 식물의 구근, 옥수수, 세이고우, 야자줄기 및 타피오카 뿌리에서 추출한 전분가루, 기름 추출용 씨앗, 식품성 기름, 지방산, 타피오카, 비료 및 사료용의 기름 찌꺼기, 가공되지 않은 담배, 소금, 생고무 및 가공 고무, 조리된 과일 및 야채, 과일 주스, 커피 및 차, 조리된 고기 및 생선, 비알콜 음료
 - 농업부나 무역부의 수입허가 필요
- 비료, 살충제 및 살균제
 - 농업부나 관계기관의 실제사용 검사를 거쳐야 함. (검사기간은 18개월 가량)
- 인공 감미료: 보건부의 특별 수입허가 필요
- 아편 및 마취제: 보건소의 증명서 첨부

- 조제약품 (항생제, 인슐린, 진단시약, 액체주입물, 샘플형태의 일부 항생제)
 - 보건부의 의약품 및 식료품 관리 담당관의 특별허가 필요
- 동물용 의약품: 수의부에 등록 필요
- 피하주사바늘, 무수초산, 아편파이프: 의약품 및 식료품 관리 담당관의 특별허가 필요
- 화장품 및 위생품: 등록, 포장, 상표 및 광고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어야 함
- 가공식품 및 기타 수입 식료품: 보건부 장관에게 등록 필요
- 컬러 복사기 및 기타 수입 식료품: 보건부 장관에게 등록 필요
- 중고기기 및 장비: 특정조건에 부합해야 함
- 화기 및 탄약: 국방부의 특별허가 필요
- 고등교육기관, 훈련기관, 정부기관 등의 교육용 과학서적
 - 교육, 무역 또는 문화부의 특별 수입 허가 필요

17. 관세제도

가. 관세 분류방식

인도네시아의 수입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 체계로 되어 있다. '93년 1월부터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가 추진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CEPT에 따른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FTA 협정 체결로 2004년부터 일부 농산물에 대해 Early Harvest Program을 적용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2005년 7월부터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본격 관세인하가 시작되었다. 인니는 '89년부터 HS제도를 도입, 총 품목은 종전의 약 5,000개에서 9,100개 (HS 9단위를 기준)로 증가하였다

한-ASEAN 간에도 FTA 상품양허 협정이 2006년 5월 중 체결되어(ASEAN 국가 중 태국은 제외) 오는 2010년 까지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다.

나. 관세율

1)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안정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2) 품목별 평균 관세율

수입관세는 수입품 관세평가액의 0-170%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 분	품 목	적용세율
자동차	승용차, 상용차	25-80%(완성차)
자동차부품		15%
전기제품		5-15%
가죽류		10-15%
알코올/알코올음료	에틸알코올, 맥주, 포도주	30-170%
농산물	동물, 식물성제품	0-5%
기타	화학품, 약품류, 고무제품 등	0-5%

3) 가공도별 차등관세 적용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2배 이상이다.

4) 실질관행과 관련 관세 절감 요령 및 특기사항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상 또는 기업 비즈니스맨들은 중국계로써 싱가포르 또는 바탐섬 등 자유무역지대로 일단 수입을 하여 하차, 보관한 후 인도네시아로 재수입하는 일이 많다. 또한 직수입하는 경우에도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선박에 일단 선적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환적한 후 제반 선적서류를 교환하여 아세안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불법 또는 편법적인 행위이나 바이어들이 관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

다. 관세평가제도

1) 관세산정 방식

HS 도입 이전에는 종량세 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 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89-90년 기간 중 모든 종량제를 종가세 및 수입 과징금으로 대체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관세율의 공개성과 예측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관세부과는 CIF 가격 기준
 - 관세금액 = 수입품 가격 X 관세율 X 관세 환율
 - 관세 환율은 재무성이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주 발표함

2) 관세부과 기준가액

- FOB가격기준으로 US\$5,000이상인 경우, 수출시 SGS가 평가한 수출국의 정상 시장가격과 송장금액 중 높은 가격
- US\$5,000 이하인 경우, 송장금액, 단 송장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유사 물품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

라. 관세 환급제도

1) 일반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수입관세를 환급해주는데 이는 수출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완제품 및 원자재의 수입시 수입관세를 일단 납부하고 제조, 가공 및 수출 후 환급받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관세 환급 절차를 밟아 왔으나 PAKJUL 조치 이후 사전 유예가 가능하므로(은행 보증서 이용)통상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잠정 유예 통관이 된다. (수출 신고시 완전 해제)

2) 환급대상

물품의 수출전 3년 이내에 수입한 완제품 및 원자재로써 최종 제품이 수출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환급대상 제외 물품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 윤활유, 연료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 수입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

3) 환급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수출 후 1년 이내에 제출
 - 수입관세 환급 신청서 제출(공통서류: Form E)
 - 수입증빙 서류
 - 수입되는 제품 및 원재료와 최종 수출품의 연계 증빙서류
- 최종 수출품 검정
 - Surveyor가 검정한 후, Export Clean Report of Finding(LKPI)를 발급 하는데 Surveyor는 정부가 지정하고, 재무성을 대신하여 SUCOFINDO (SGS Agent)가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 환급 결정
 - 담당부서(P4BM)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환급여부를 결정 환급승인 시 신청 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관련서류 확인 후 국영은행을 통해 지급
 - 수입관세 환급지시서(SPMKBM)이 3부 작성
 - 원본: 신청인
 - 1 부: 국영은행
 - 1 부: 예산국장에 송부
- 환급금 지급
 - 국영은행에서 환급지시서의 진위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
- 인도네시아에서 관세 환급은 절차나 시스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 원산지 규정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이 미국, EU 수출 시 GSP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된다. 또 미국이나 EU에 섬유류를 수출할 때도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다. 인니에서 통관

서류로서의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 후 관세 환급 신청 시에나 요구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한-ASEAN FTA 가 발효되면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될 것이다.

18. 주요인증제도

가. 인증제도 관리기관: 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주소: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k IV, 3rd & 4th Fl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Indonesia
- 전화: 62-21-574-7043
- 팩스: 62-21-574-7045
- e-mail: bsn@bsn.or.id
- Homepage: www.bsn.or.id

나.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표준은 SNI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 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제품의 경우, 수입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 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 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부품으로 TV나 PC 등에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9. 지적재산권

특허권(14년), 상표권(10년), 판권(무기한), 산업디자인특허(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소유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팔리고 있으며, 영화 DVD는 한국 영화들까지도 미화 1\$ 미만에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복제품은 속칭 도깨비 시장 등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쇼핑몰 등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미국은 인니를 미 통상법 301조(지적재산권 침해)상의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니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마리 빵에스뚜 인니 상무장관도 2005년 6월, 미국과 추진중인 무역, 투자 협정 체결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니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잘 되어있으나 이를 시행치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니 법무인권부의 지적재산권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2005년 하반기부터 격상시켰다. 종전 법무인권부 장관령에 의거 구성되어 법무 인권부 외에 외무부, 상업부, 공업부, 재무부 관세국, 국가경찰, 대법원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로 격상시켜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부처의 담당 국장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지적재산권 국장은 미국의 우선감시국 지정은 인니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선 감시국 에서 조기에 해제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2006년 6월에는 'Widodo' 정치안보조정장관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보호국(HaKI)'와 더불어 불법복제 상품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각종 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관 합동 저작권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인니가 가입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Trademark Law Treaty,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WIPO Copy Rights Treaty 등이 있다.

가. 상표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상표의 중요성을 크게 자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자기상표 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의 별도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1) 상표출원 등록 절차

- 소정 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 특허국에 신청
- 외국 소재 신청인은 반드시 인니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
- 신청 시 1주일 이내 상표출원. 등록 접수증 발급
- 상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며, 9개월 이내에 심사 종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출원자에게 통보하며, 출원자는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심사에 통과하면 3개월간 공고 실시하며, 등록에 이의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이의 신청 가능. 이의서 접수 시 2주일 내에 출원인에게 이의서 사본을 전달하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반박서 제출 가능. 이의서와 반박서가 접수되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 심사 실시
- 공고기간 중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증 교부

2) 상표권의 등록유지

-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며 매 10년마다 갱신 가능. 보호기간 종료 12개월 전에 연장 신청

3) 우선 등록주의 채택.

- PARIS 협약 가입국가, 또는 WTO 가입국가에 상표 등록을 마친자가 최초 등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니 지적재산권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하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
- 최초 상표등록을 출원한 국가에 출원한 일자부터 기산하여 인니에서도 상표가 이미 등록 되어진 것으로 인정

나. 특허

특정기간 동안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 권리이다. 발명자는 발명 자체에 대한 권리 이행자이면서 타인에게 동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취득조건

- 반드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한가지 발명에 대해 한가지 특허권 부여
- 법무성이 정해 놓은 비용을 특허국에 납부해야 함.
- 발명가 또는 일반인은 특허신청을 함으로써 동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영구거주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으로 PATENT CONSULTANT를 제출해야 함.

2) 취소사유

- 특허권 승인일로부터 4년간 권리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연간수수료(ANNUAL CHARGES) 납부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 특허사항이 다른 특허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명 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미 특허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자가 취소소송을 함으로써 특허가 취소됨.

3) 의장

- 상표권에 준하여 취급되며 등록절차 등 제반 사항이 상표권 담당기관인 특허국에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4) 저작권

다. 적용대상

- 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의 모든 창작물
- 비 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초로 창작한 것

라. 효력

- 책, 팜플렛, 논설, 강의, 연설, 통역, BATIK을 포함한 그래픽예술, 작곡, 건축술 등 최초로 등록된 창작물은 저자 생애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호받는다.

- 음악쇼, 전통음악 및 노래, 드라마, WAYANG 연극, 판토마임, 영화촬영기술, 비디오 녹화, 비디오녹화, 음향녹음 등은 최초 발표 후 50년간 보호를 받는다.
- 사진 촬영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번역, 각색 등은 최초 발표 후 25년 간 보호를 받는다.

20. 소비자보호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REGULATION FOR GOODS NO.10, THE CONSTITUTION LAW에 의거 시판되는 모든 상품은 지정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자가 있거나 국민건강을 해치는 상품이 유통될 경우에는 허가취소, 벌금 등 행정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 보호단체가 있어서 불공정거래와 불량상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도 미국만큼 반품이나 제품품질에 대한 보증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국가표준제도와 더불어 향후 시급하게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 소비자 보호단체: THE INDONESIAN CONSUMER ORGANIZATION
 - 주소: PANCORAN BARAT 7 NO.1 DUREN TIGA, JAKARTA
 - 전화: (62-21)797-1378
 - FAX : (62-21)798-1038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연번	부처	장관	업무
1.	Coordinating Ministry for the Economic	Boediono	경제정책 조정
2.	Ministry of Industry	Fahmi Idris	산업정책 총괄
3.	Ministry of Trade	Mari Elka Pangestu(女)	무역정책 총괄
4.	Ministry of Agriculture	Anton Apriyantono	농업정책 총괄

가. 수출진흥기관

- 기관명: NATIONAL AGENCY FOR EXPORT DEVELOPMENT (NAFED)
- 주 소: Wisma Darma Niaga, Jl. Abdul Muis No. 6-8, Jakarta 10160, INDONESIA
- 전 화: 62-21-3448164, 3800654
- 팩 스: 62-21-3858850
- Web-site: <http://www.nafed.go.id>
- E-mail: nafed@nafed.go.id
- 기관 개요: 인도네시아 수출진흥청
- 무역부 산하 수출지원기관: 전시회 개최, 무역 사절단 파견, 무역관련정보 제공 등

나. 상공회의소

- 기관명: Jakart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kadin)

- 주 소: Komp. Majapahit Permai Blok B/21-22-23 , Jalan majapahit No. 18-20-22, Jakarta 10160, INDONESIA
- 전 화: 62-21-3808091
- 팩 스: 62-21-384-4533
- Web-site: www.kadin.or.id
- E-mail: kadinjkt@indosat.net.id
- 기관 개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의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를 모두 합한 기능을 하고 있음. 국제부에서는 각국과 민간 경제 협력 위원회도 주관하며. 정부에 수시로 정책 건의도 하고 있음.

22. 시장 특성

가. 화교자본의 지배가 절대적인 시장

- 전체 2억 인구의 5%에 불과한 화교가 인니 경제계 주도
- 수하르토 집권('67) 이후 화교 공직진출 제한으로 대부분 경제계에서 활동
 - 2,067개의 대기업을 소유한 인니 10대 그룹 중 9개가 화교자본
 - 상장기업 가운데 화교기업 비중: 73 %
 - '98년 5월 폭동 시 800억불의 화교자본이 해외로 유출추정

나. 가격 시장 현상 심화

- '97년 경제위기 이후 바이어의 제품구매 결정요인은 가격
- 루피아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구매력 감소
 - 품질보증기간(1년) 만큼 사용 가능한 저가제품 구매선호

다. 석유자원 의존형 경제구조

- 아시아 국가로서 유일한 OPEC 회원국 (OPEC내 5% 생산비중)
 - 석유/가스는 인니 전체 수출의 22.5% (193억\$)차지 (2005년)
 - 한국의 대 인니수입중 석유/가스가 55.4% (46억불) 차지 (2005년)

라.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인구 2억 2천만의 인구대국 (세계 4위)
- 월 최저임금 819,100 루피아(91불/자카르타 기준) 수준의 저임금 노동시장
 - 전체 노동인구(9천만명)중 44%인 4천만명 실업추정

마. 외국자본 의존형 경제구조

- 자체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경제개발에 대외 의존도 심화
- 장기간 식민통치(네덜란드, 1602~1942)로 국민자본 형성 미흡
 - 외국인 투자 ('67~'05): 15,771건/2,689억불(누적실적)
 - 일본이 최대투자국, 한국은 7위 (최근 한국의 투자가 늘면서 투자 건수에서는 1위임)

바. 유통구조

1) 유통구조

인도네시아는 “유통구조의 민족화” 관점에서 외국기업의 유통업 참여를 배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유통구조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편이나 최근들어 대형매장에 한하여 외국기업의 소매업 참여가 허용되면서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미니마켓 체인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통구조는 지극히 단순하며 수입상이 중간 유통구조를 거쳐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대형백화점이 직접 수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997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시장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요인이 되면서 수입상들이 직접 도매까지 겸하는 등 중간상인을 배제하면서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통신, 항만 시설 등이 불충분하여 전국적인 상업 네트워크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따라서 자바섬과 그 외 도서 지역간, 도시와 농촌간, 생산자와 소비자간 경제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2) 유통단계

수입상이 백화점 또는 대형 슈퍼마켓인 경우에는 직접 수입, 소비자 판매형태를 거치므로 도소매상간의 유통단계는 배제되며, 전문수입상이 수입을 할 경우에는 도매업자 또는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3) 수입품 유통단계별 마진

수입의 경우 직수입과 간접수입의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직수입의 경우 백화점,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원자재 수입 등이 해당된다. 간접 수입의 경우 브로커, 에이전트, 정부 대행 기관, 등록무역상 등을 통해 수입하게 되므로 2 - 10% 정도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10 - 30%의 마진을 붙여 소매상 또는 중간규모의 유통업체에 인도한다. 여기에 소매상 또는 중간규모의 유통업체가 약30%의 마진을 붙이게 되어 최종 소비자가격 또는 RETAIL PRICE는 수입가격(CIF) + 수입세 + 부가세 + (기타 부과금 및 특소세) + HANDLING CHARGES + 기타 경비(각종 금융 수수료 및 보험료, 리스크 부담율) = 총수입가의 약 200 %가 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보통 총 수입가의 50~100% 이상의 유통 마진을 예상, 기대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4) 주요 유통업체 현황

2000 년 이후 인니 유통 산업은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인니 소매업 협회 (APRINDO/ Indonesian Retailers Association)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으로 자카르타 및 인근지역의 유통판매점은 슈퍼마켓 및 미니마켓이 318개, 도매 판매장이 23개, 하이퍼 마켓이 12개 등 41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니 소매업 협회는 2억이 넘는 인구와 소비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유통 체인 사업은 앞으로도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인니의 대형 유통업체는 인니 자본인 Alfa와 Hero, 프랑스 계열의 까르프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 3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바이어 발굴 방법

바이어 발굴은 KOTRA 사업 참가, 전시회 참가, 각 산업별 단체 접촉, 바이어 DB, 전화번호 검색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전시회참가는 다수의 바이어를 직접 현장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가 높으나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전시회는 자카르타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jakarta)에서 전시정보를 선택하면 볼 수 있으며, 이외 각종 단체나 협회(첨부 리스트 참조)를 통해서도 회원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나. 바이어 접촉 시 유의 사항

자카르타 무역관을 방문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동남아시아는 미 개척 시장으로 진출여지가 많은 편이며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시장진출이 비교적 용이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며, 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 중 시장진출의 첫 단계에 미숙한 바이어 접촉방법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아직도 상당수의 무역부 직원은 인도네시아의 바이어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간단한 거래 제의서를 송부하고 즉각적인 회신이 없는 경우 관련 바이어와의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기업의 구매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이지만 구매 담당자 앞에는 항상 수없이 많은 거래 제의서가 쌓여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구매 담당자는 책상에 쌓여있는 거래 제의서를 읽어 보지도 않는 경우가 다반사 이고, 읽어 본다 해도 특별히 관심을 끄는 거래 제의서가 아니면 거래 제의서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끌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팩스 또는 이 메일을 바이어에게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다 성의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래 제의서를 송부하는 것이 해당 바이어와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첫 번째 단계 일 것이다.

인도네시아 바이어와의 효과적인 접촉 요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관련자료의 우편송부

바이어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날 한국업체로부터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샘플, 가격표, 기술적인 특징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우편으로 받는다면 바이어는 이 자료를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단은 바이어의 관심 끌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바이어가 당장은 그 자료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자료를 검토해 볼 가능성이 높다. 즉, 완벽한 자료를 바이어에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편물 송부 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우편물의 분실 및 기업에 배달된 우편물의 경우 수신인에게 즉각 전달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여 송신인의 입장에서 우편물 수취인의 확인이 가능한 등기, 특사 배달 등의 통신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 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검토결과 문의

자료를 보낸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팩스, 전화, 이 메일 등으로 자료의 접수를 확인하면서 검토 결과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물론 검토 결과 관심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렇게 접촉하는 것은 바이어로 하여금 자료를 검토하도록 독촉하는 의미도 있고, 바이어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의 기능도 할 것이다. 단, 지나치게 독촉을 하는 경우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료를 보낸 후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검토결과를 묻는 것이 바이어를 배려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바이어는 한국업체의 진지성과 성실성, 그리고 합리성에 후한 점수를 줄 것이고 그만큼 거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3) 이 메일 사용에 관하여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메일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바이어는 거래 업체의 정체(identity)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다. 그런데 이 메일에는 보내는 업체의 회사 로고라든지 보내는 사람의 서명 등 발신자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이 거의 없다.

즉, 이 메일은 인도네시아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으로 볼 때 잘 맞지 않는 통신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들어 많은 인도네시아 업체들이 이 메일로 교신을 하고는 있지만 한국실정에 비한다면 이 메일 교신이 크게 성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바이어가 선호하는 교신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이 메일보다는 팩스가 낫다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불필요한 광고가 이 메일로 발송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광고들과 동일하게 취급 당하여 바이어의 주목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메일은 서로가 잘 알고 난 후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4) 홈페이지에 관하여

기업의 홈페이지는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소개자료로서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홈페이지의 제작은 필수적이며 최근 거의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이어에게 홈페이지를 방문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직도 많은 바이어들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우리만큼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바이어의 관심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5) [참고] 인도네시아 주요 Bbusiness Association

□ Adhesive Glue

- Association of Formaldehyde & Thermosetting Adhesive Manufacturers
 - Add : Kompleks Roxi Mas Blok DI/17, Jl. Hasyim Ashari, Jakarta Pusat
 - Tel : 62-21 385 60 50, 385 60 51
 - Fax : 62-21 386 84 55

☐ Aluminum Products

○ Association of Indonesian Aluminum Products Manufacturers

- Add : Jl Pinangsia Timur No. 50, Jakarta 11110
- Tel : 62-21 626 449

☐ Bags

○ Association of Indonesian Bags Producers

- Add : Jl. Blora No. 21. Jakarta 10310
- Tel : 62-21 331 407, 314 61 56
- Fax : 62-21 325 935

☐ Beverages

○ Association of Beverages Industries

- Add : Gedung GKBI, 8st Floor, Jl. Jend. Sudirman, Jakarta Selatan
- Tel : 62-21 572 38 38
- Fax : 62.21 5740 28 17

☐ Candy

○ Indonesian Candies Manufacturers Association PT. Trebor Indonesia

- Add : Jl. Pejaten, Pasar Minggu Km 18.5, Jakarta 10160
- Tel : 62-21 708 99 83
- Fax : 62-21 799 929 03

☐ Cardboard

○ Indonesian Corrugated/cardboard industry association

- Add : C/o PICCI, Jl. Raya Bekasi Km 22, Cakung, Jakarta 13910
- Tel : 62-21 430 32 90, 496 181
- Fax : 62-21 460 09 40

☐ Cement

○ Indonesia Cement Association

- Add : Gedung Irama, 2nd Floor, Jl. H.R. Rasuna Said, Jakarta
- Tel : 62-21 526 11 05-11 06
- Fax : 62-21 526 11 08

☐ Ceramics

○ Indonesian Ceramics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 Grand Ancol Center Blok C-17, Jl. R.E. Martadinata No. 1, Jakarta Utara
- Tel : 62-21 566 35 32
- Fax : 62-21 560 132 96

☐ **Chemicals (An Organic)**

○ **Association of Indonesia An Organic Chemical Industries**

- Add : Jl. Tanah Abang III No.16, Jakarta 10160
- Tel: 62.21 344 64 59. 344 66 45
- Fax: 62-21 384 19 94

☐ **Coal**

○ **Indonesian Coal Mining association**

- Add : Jl. Prof. Supomo No.10, Jakarta 12870
- Tel : 62-21 830 36 32, 828 07 63
- Fax : 62-21 830 36 32, 828 063

☐ **Concrete Products**

○ **Ready Mixed Concrete Association of Indonesia**

- Add : Gedung ADHI GRAHA 3rd suite 301 & 303, Jl.Jend. Gatot Subroto Kav.56, Jakarta
- Tel : 62-21 526 55 20
- Fax : 62-21 526 54 14

☐ **Coffee**

○ **Association of Indonesia Coffee Exporters**

- Add : Jl. RP Suroso No.20, Jakarta 10350
- Tel : 62-21 310 67 92, 310 67 65
- Fax : 62-21 314 41 15, 230 60 19

☐ **Cold Storage**

○ **Indonesian of Cold Storage Industry Association**

- Add : C/o PT.Panggung Interpers, Jl. Jembatan III Barat Blok B-6A, Jakarta 14440
- Tel : 62-21 661 50 13
- Fax : 62-21 661 24 55

☐ **Confectionary & Bakery – Raw Material**

○ **Association of Saccharine, Sodium Glutamate, Citric Acid & Calcium Citrate Producers**

- Add : Jl. Panjang Kedoya-Elok Plaza Blok DC 52, Jakarta Barat
- Tel : 62-21 580 61 09
- Fax : 62-21 580 61 10

☐ **Construction-Equipment**

○ **Indonesian Association of Construction Machineries Industry**

- Add : Jl. Cikini IV No. 15, Jakarta 10330
- Tel : 62-21 322 646, 314 20 30
- Fax : 62-21 314 20 30

□ Construction-Heavy Equipments

○ Association of Indonesian Construction Equipment Hire & Rent

- Add : Jl. Cikini IV No. 15, Jakarta 10330
- Tel : 62-21 322 646, 314 20 30
- Fax : 62-21 314 20 30

□ Contractors-Electrical Works

○ Indonesian Electrical Works Contractors Association

- Add : Komplek Setneg, Jl. Cempaka Putih Barat XXVI No. 30, Jakarta Pusat
- Tel : 62-21 424 20 58, 913 60 60
- Fax : 62-21 424 20 58

□ Contractors-General Works

○ Indonesian 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 Add : Jl. Raya Pasar Minggu Km.17 No.11-A, Jakarta 12740
- Tel : 62-21 798 16 70, 790 2426
- Fax : 62-21 790 25 82

□ Contractors-Water Works

○ Water Works Contractors Association

- Add : Gedung CTC, 4th Floor, Jl. Kramat Raya No. 94-96, Jakarta Pusat
- Tel : 62-21 392 84 70
- Fax : 62-21 392 84 70

□ Cosmetics

○ Indonesian Cosmetics Industries Association

- Add : Jl. Sapta No. 68-A, Jakarta 12870
- Tel : 62-21 83792601
- Fax : 62-21 83792601

□ Electrical Cable

○ Association of Indonesian Electrical Cabel Manufacturers

- Add : Komplek Ketapang Indah B2/32, Jl. KH. Zainul Arifin, Jakarta 10130
- Tel : 62-21 634 10 36, 600 11 13
- Fax : 62-21 633 87 02

□ Fertilizer

○ Indonesian Fertilizer Producers Association

- Add : Gedung Pusri 6th Floor, Jl. Taman Anggrek Kemanggisan, Jakarta Barat
- Tel : 62-21 548 40 57
- Fax : 62-21 548 33 13

☐ **Fertilizer-Trade**☐ **Indonesian Fertilizer Trade Association**

- Add : Rumah Maduma, Jl.Dr.sahardjo No.52, Jakarta 12970
- Tel : 62-21 831 11 84
- Fax : 62-21 831 11 85

☐ **Fiber, Synthetic**☐ **Indonesia Synthetic Fiber Producers Association**

- Add : Jl. Raya Kebayoran Lama No. 33, Jakarta 11560
- Tel : 62-21 530 54 14, 530 54 15
- Fax : 62-21 530 54 15

☐ **Fish, Canned**☐ **Indonesian Fish Cannery Association**

- Add : Inti Utama Building, Jl.Cipinang Indah Raya No.1, Jakarta 13420
- Tel : 62-21 819 69 10
- Fax : 62-21 850 85 87

☐ **Fish, Processing**☐ **Indonesian Processing Fish Industries Association**

- Add : Djajanti Plaza 6th Floor, Jl. Fachruddin No. 19, Jakarta 10250
- Tel : 62-21 390 70 01 ext 652
- Fax : 62-21 390 88 63

☐ **Fishery**☐ **Indonesia Fishery Industries Association**

- Add : Gedung ARSA 2nd Floor, Jl. Siaga Raya No. 31, Jakarta Selatan
- Tel : 62-21 798 73 09
- Fax : 62-21 798 73 09

☐ **Food Additive**☐ **Indonesian Monosodium Glutamate & Glutamic Acid Producers Association**

- Add : Kedoya Elok Plaza Blok DC 52, Jl. Panjang, Jakarta
- Tel : 62-21 580 61 09
- Fax : 62-21 580 61 10

☐ **Footwear**☐ **Association of Indonesian Shoes Manufacturers**

- Add : Gedung Langlang Asia Ruang A Jl. Daan Mogot No. 151, Jakarta 11510
- Tel : 62-21 566 41 57, 566 08 57
- Fax : 62-21 560 46 71

□ Furniture

- Indonesian Furniture & Handicraft Industries Association
 - Add : Jl. Pegambiran No.5A 3rd Floor, Rawamangun, Jakarta 13220
 - Tel : 62-21 478 640 28-64029
 - Fax : 62-21 478 640 31

□ Handicrafts

- Indonesian Furniture & Handicrafts Exporters & Producers Association
 - Add : Jl. Tomang Ancak No.10, Jakarta 11430
 - Tel : 62-21 560 18 62, 567 17 61
 - Fax : 62-21 560 18 70

□ Iron Steel, Galvanized

- Association of Indonesian GI Sheet Manufacturers
 - Ad : Jl. MT. Haryono Kav.31-32, Jakarta 12770
 - Tel : 62-21 799 50 09
 - Fax : 62-21 799 28 39

□ Machine Tools

- Association of Machine-Tools Industries
 - Add : Centra Mulia, Room 901 9th Floor, Jl. HR. Rasuna Said Kav.X-6 No.8, Jakarta Selatan
 - Tel : 62-21 252 96 56, 522 93 90
 - Fax : 62-21 252 50 69

□ Machinery-Agriculture

- Association of Indonesian Agriculture Machinery
 - Add : Jl. Cikini IV No.15, Jakarta 10330
 - Tel : 62-21 322 646
 - Fax : 62-21 325 974

□ Machinery-Industry

- Association of Indonesian Machinery Equipment Reconditioned Industries
 - Add : Jl. Cikini IV No.15, Jakarta 10330
 - Tel : 62-21 322 646, 314 20 30
 - Fax : 62-21 314 20 30

□ Metal, Foundry & Casting

- Indonesian Metal, Foundry and Casting Association
 - Add : Jl. Rawa Buaya No.6, Jakarta 11740
 - Tel : 62-21 544 07 17
 - Fax : 62-21 619 17 39

□ **Metal Works & Machinery**

○ **Metal Works & Machinery Industries Association**

- Add : Jl. Cikini IV/15, Jakarta 10330
- Tel : 62-21 322 646
- Fax.: 62-21 325 974

□ **Mineral, Industrial**

○ **Indonesian Industrial Mineral Association**

- Add : Menara Duta 1st Floor, Jl. HR Rasuna Said, Jakarta 10340
- Tel : 62-21 829 33 12
- Fax : 62-21 829 33 12

□ **Mining**

○ **Indonesia Mining Association**

- Add : Jl. Prof.Supomo 10, Jakarta 12870
- Tel : 62-21 830 36 32
- Fax : 62-21 828 07 63

□ **Mining-Precious Metals**

○ **Indonesian Precious Metals Association**

- Add : GALVA Building 5th Floor, Jl. Hayam Wiuruk No. 27A, Jakarta 10120
- Tel : 62-21 385 12 02, 385 49 91
- Fax : 62-21 381 27 13

□ **Motor**

○ **Indonesi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 Jl. Cikini IV No. 15, Jakarta 10330
- Tel : 62-21 322 646
- Fax : 62-21 325 974

□ **Motor Car-Component**

○ **Association of Motor-Car Components Producers**

- Add : Taman Palem Lestari, Ruko Blok D1/16,Jl.Lingkar Barat,Jakarta 11730
- Tel : 62-21 556 07 63 - 07 65
- Fax : 62-21 556 07 63

□ **Motor Car-Manufactures**

○ **Association of Indonesian Automotive Industries**

- Add : Jl. HOS Cokroaminoto No. 6, Jakarta 10350
- Tel : 62-21 314 21 00
- Fax : 62-21 314 21 00

☐ **Motorcycle**☐ **Association of Indonesian Motorcycles Assemblers & Manufacturers**

- Add : D/a PT Daan Motor Vespa Indonesia, Jl. Perintis Kemerdekaan, Jakarta 14250
- Tel : 62-21 452 35 45, 452 33 11 ext.180
- Fax : 62-21 452 35 55

☐ **Optics**☐ **Indonesian Optical Association**

- Add : Jl. Panglima Polim Raya 125-A, Jakarta 12160
- Tel : 62-21 739 36 17, 739 28 53
- Fax : 62-21 724 47 87

☐ **Paint**☐ **Indonesian Paint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 Jl. Menteng Raya 27, Jakarta 10340
- Tel : 62-21 390 90 18
- Fax : 62-21 375 30 43

☐ **Palm Oil**☐ **Indonesian Palm Oil Producers Association**

- Add : Jl. Brigjen Katamso, Medan
- Tel : 62-61 517 614, 518 614, 332 694
- Fax : 62-21 336 919

☐ **Paper and Pulp**☐ **Indonesia Pulp and Paper Association**

- Add : Jl. Cimandiri 6 flat 1 No.2, Jakarta 10330
- Tel : 62-21 314 43 11, 326 084
- Fax : 62-21 314 01 68

☐ **Pharmacies**☐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Enterprises of Indonesia**

- Add : Jl. Mangga Besar Raya 183 4 th fl, Jakarta 10730
- Tel : 62-21 639 50 31
- Fax : 62-21 639 50 31

☐ **Plastic Pipe**☐ **Association of Plastic Pipes Industries**

- Add : Gedung Alia 7th Floor, Jl. MI Ridwan Rais 8-10, Jakarta 10110
- Tel : 62-21 386 77 17
- Fax : 62-21 386 76 86

□ Plastic Products

○ Indonesian Plastic Goods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 Jl. Tebet Dalam 4 No. 67, Jakarta
- Tel : 62-21 829 97 90
- Fax : 62-21 829 97 90

□ Rubber Crumb

○ Rubber Association of Indonesia

- Add : Jl. Cideng Barat 62-A, Jakarta 10150
- Tel : 62-21 384 68 13, 350 15 10
- Fax : 62-21 384 68 13, 384 68 11

□ Ship Builders

○ Indonesian Ship Building and Offshore Industry Association

- Add : Griya Inti Sentosa Blok 0/53, Jl. Griya Agung 77, Jakarta 14350
- Tel : 62-21 640 42 53
- Fax : 62-21 640 42 53

□ Soap

○ Soap Producers Association

- Add : C/o PT. Cisadane Raya Chemicals, Jl. Halim Perdana Kusuma, Kebon Besar, Tangerang
- Tel : 62-21 619 76 11, 552 34 72
- Fax : 62-21 552 22 57

□ Steel-Preessured Tanks

○ Association of Pressured Tanks Manufacturers

- Add : BPP Teknologi Gedung I, 15th Floor, Jl. MH Thamrin No. 8, Jakarta
- Tel : 62-21 230 52 18, 230 52 19
- Fax : 62-21 230 52 20

□ Steel Mills

○ Indonesian Steel Factories Association

- Add : Wisma Baja 4th Floor, Jl. Gatot Subroto Kav. 59, Jakarta Selatan

□ Steel Products

○ Association of Steel Goods Industries

- Ad : Komp.Rasa Sayang E-36, Jl. Daan Mogot (Pesing), Jakarta 11460
- Tel : 62-21 566 20 25, 566 20 26

☐ **Surfactant**

○ **Surfactant Producers Association**

- Add : C/o BKS INKIMIDAS, Plaza Gani Djemat 3rd Floor, Jl. Imam Bonjol Kav.76-78, Jakarta 10310
- Tel : 62-21 390 28 75
- Fax : 62-21 390 28 75

☐ **Telecommunication**

○ **Telecommunication Equipment & Services Association**

- Add : Gedung Multi Eka Karma, Jl. Kap. Tendean No. 15, Jakarta Selatan
- Tel : 62-21 791 918 21 - 918 23
- Fax : 62-21 791 928 22

☐ **Textile**

○ **Indonesian Textile Association**

- Add : Adhi Graha 16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 Tel : 62-21 527 21 71
- Fax : 62-21 527 21 66

☐ **Textile-Accessories-Zipper**

○ **Association of Indonesia Zipper Manufacturers**

- Add : Jl. Daan Mogot Km.3, Komplek Rukan, Green Garden Blok Z2 No. 47-48, Jakarta 11520
- Tel : 62-21 582 81 81, 581 40 22
- Fax : 62-21 582 81 79

☐ **Textile-Garment**

○ **Association of Apparel Manufacturers**

- Add : Gedung Sasana Kriya 2nd Floor, Taman Mini Indonesia Indah, Jakarta Timur
- Tel : 62-21 840 33 31
- Fax : 62-21 840 47 50

☐ **Textile-Woven**

○ **Indonesian Textile Woven Association**

- Add : Jl. P. Jayakarta No. 46 AA, Jakarta 10730
- Tel : 62-21 639 27 65
- Fax : 62-21 639 27 65

☐ **Textile Yarn Spinning**☐ **Yarn Spinning Industries Association**

- Add : Jl. Iskandarsyah 11/90, Jakarta 12120
- Tel : 62-21 720 61 65
- Fax : 62-21 725 01 87

☐ **Toothbrush**☐ **Toothbrush & Nylon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 Jl. Raya Boulevard Kelapa Gading Pat 12-A, Jakarta
- Tel : 62-21 452 90 34, 450 25 53
- Fax : 62-21 453 23 02

☐ **Trade-Importers**☐ **Importer Association of Indonesia**

- Add : Gedung Bank Niaga 1st Floor, Jl.MH Thamrin No.55, Jakarta 10350
- Tel : 62-21 391 10 57 - 10 59
- Fax : 62-21 391 10 60

☐ **Tire Manufacturers**☐ **Tire Manufacturers Association**

- Add : Gedung Gani Djemat, 3rd Floor, Jl. Imam Bonjol, Jakarta Pusat
- Tel : 62-21 390 28 68 - 28 69
- Fax : 62-21 390 28 69

☐ **Welding-Industries**☐ **Indonesian Welding Industry Association**

- Add : Jl. Pulo Gadung No. 45 Kawasan Industri Pulo Gadung, Jakarta 13930
- Tel : 62-21 489 34 73, 489 33 45
- Fax : 62-21 560 11 30

☐ **Woodbase Industries**☐ **Furniture Industries & Handicraft Association**

- Add : Gedung Kehutanan Block IV, 5th Floor, Jl. Gatot Subroto, Jakarta 10270
- Tel : 62-21 573 78 88, 570 02 49
- Fax : 62-21 570 46 19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인도네시아의 제조/수출 및 수입 업체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검색(무료)이 가능하다.

- 업체정보: www.indonetwork.info
- 옐로페이지: www.yellowpages.co.id
- 인도네시아 산업부: www.dprin.go.id
- 인도네시아 수출촉진위원회: www.nafed.go.id
- 인도네시아 콤파스: www.kompassindo.co.id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담 일반사항

인니인들은 300여 년간 언어에 능통한 화란인들의 지배를 받은 탓인지 언어에 대한 능력과 관심이 높은 편이다. 영어도 비교적 쉽게 배우며 비즈니스맨들은 대다수가 영어를 구사할 줄 안다. 영어든 인니어든 언어를 잘 구사하여야 인니인들의 인정을 받기 쉽다.

인니의 모든 절차는 비서진으로부터 시작한다.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개인 비서를 두고 있으며 행정절차나 서류진행 상태가 비서의 손에 달려있어 비서를 잘 사귀어 두면 일하기가 편해지는 일이 많다.

인니인들은 시간관념이 약한 편이다. 특히 자카르타 시내의 경우 교통혼잡이 워낙 심해 10분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상대방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또 내가 시간 약속을 정해 찾아가는 경우에는 교통 혼잡을 고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는 것이 좋다.

특히 중국 화교상들은 네고를 많이 하려 들기 때문에 가격, 지불조건 등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사전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또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찬찬히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편지나 이 메일 보다는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현지 출장을 하거나 한국으로 초청하여 상담하는 것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서양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준비가 비교적 철저한 편이고 또 상대방에게 요구도 한다. 상담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확실한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미팅 자체를 거부하는 경영진들도 많다. 시장개척단 행사에 참가하는 바이어 중에서도 상담자료를 사전에 서면으로 준비해와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고 체크하여 우리 세일즈맨을 진땀 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비즈니스 의사소통

1) 바이어 교신

아직도 FAX를 많이 사용한다. 젊은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이 메일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인터넷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보급이 많지 않은 편이다. 또 나이가 든 바이어들은 이 메일 주소가 아예 없거나, 이 메일 주소가 있어도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샘플을 보내는 경우 상대방과 발송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송료는 누구 부담인지, 일반 우편인지, 특사 우편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인니는 샘플을 찾을 때 샘플에 따라 관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우체국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보내는 편에서는 이런 관계를 잘 모르니 바이어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든지 교신은 신속히 해야 한다. 바이어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중의 하나가 한국 기업들은 회신이 늦다는 것이다. 인니 바이어들도 결정이 빠른 것은 아니나, 일단 요청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회신을 해주는 것이 좋다.

2) 비즈니스 에티켓

인니인들은 의복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날씨 탓도 있겠지만 통상 서양과 같은 정장 차림은 공식적인 행사에서만 착용하며, 공식적인 행사라도 바틱(Batik)이라고 하는 인니의 전통 남방 셔츠는 허용이 된다. 바틱은 원래 수작업으로 천에 염색을 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통상 이렇게 만든 천, 또는 의상을 그냥 바틱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인니의 귀족들이 사용하던 전통 옷감으로 수공예 품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으나 지금은 기계로 대량 생산도 하여 일반 시민들도 많이 입고 있다. 인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 각국 원수들이 똑같이 입고 사진을 찍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셔츠가 바틱 의상이다.

또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해도 상의는 입지 않는 수가 많으며, 노타이 차림이 일반적이다. 아마 날씨 탓인 것 같다. 인니인들은 대체로 체격이 왜소하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린 검은 색으로, 정장을 안하면 그저 시장 잡상인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겉모습만 보고 바이어를 판단하면 오해를 하는 일이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 국내 세일즈맨은 바이어의 겉모습만 보고 박대를 했다가, 이 바이어가 벤츠 600을 타고 가는걸 보고 놀란 일도 있었다.

인니인들은 기본적으로 'Terima Dulu Kasih Lagi'(인니어로, take and give의 뜻)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먼저 받고 준다는 뜻이다. 인니어로 고맙다는 뜻이 뜨리마 까시(Terima Kasih)이다. 따라서 방문시 간단한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주 접촉하여 얼굴을 익히게 하고, 때로는 집을 방문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상대 파트너에게 호감을 주는 방법이다.

또 우리 기업인들이 만나는 인니의 고급 공무원, 대기업 사장이나 간부들은 자부심이 강한 경우가 많으므로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인니가 한국보다 못 산다고 하여 인니인들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한국인들이 종종 있는데, 자신이 상대하는 인니인들은 자신보다 한참 위의 상류사회 사람이란 걸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의 테러 사태와 관련 이슬람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니인들은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독실한 신자들도 많으니 이슬람을 폄하하는 발언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이슬람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할 경우 자신은 이슬람인이 아니라도 알코올 음료나 돼지고기 요리 등 상대방이 싫어하는 음식은 피해야 하며, 가급적 악수나 식사 시에 원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자세가 비즈니스에서도 에티켓의 기본이다.

3) 문화적 특성

인도네시아는 300여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전체인구의 절반 가량은 자바(Jawa)인이고 기타 북 수마트라의 아체(Ache)인, 중부 수마트라의 바탁(Batak)인, 서부 자와의 순다(Sunda)인, 슬라웨시의 토라자(Toraja)인, 발리섬의 발리(Bali)인 등이 주요 종족 들이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약 5%(1천만명)에 이르는 중국계 인니인들도 인니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니인들은 종족의식이 상당히 강한 편이며, 특히 주류인 자바인들은 타종족에 비해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수카르노 대통령시절에 실패한 공산 혁명으로 인해 수하르토 집권 30여 년 동안 박해를 받아 중국 말이나 글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중국식 이름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니사람들은 중국계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인니의 종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급적 종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인니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지만 이슬람교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독교가 7%, 천주교가 3%, 힌두교가 2%를 차지하고 있고, 불교도 일부 있다.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엔 반드시 5개 종교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지 무종교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 종교가 없는 것은 곧 공산주의자로 간주되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인식이 남아있어 종교가 없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2006년에는 유교도 여섯번째 종교로 인정되었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지만 이슬람이 대다수이다 보니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이다. 이슬람교도들에게는 코란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식품(할랄/Halal)과 먹을 수 없는 식품(하람/Haram)이 있다. Haram의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와 알콜 음료이다. 도박 또한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다. 이슬람 교도 들은 왼손을 좌욕 등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줄 때는 반드시 오른 손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머리는 영혼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린아이라도 머리를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

또한 이슬람 교도 들은 하루에 5회씩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공공 장소에는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장, 사무실 등에도 기도실을 마련해주고 있다. 현지 직원들을 급히 찾을 때 기도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수도 있지만 이는 법으로도 보장된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금요일이 휴일이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도가 많지만 서양과 같이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인들은 금요일 예배(보통 11:30-13:00)는 반드시 보기 때문에(기독교 신자들의 일요일 예배처럼) 금요일 오전 11시 이후의 미팅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6.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가. 수입관행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으로 가격 시장이다. 인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가격이 수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부유층도 수적으로 만만치가 않다. 인구의 약 10%를 중산층 이상으로 볼 때 2천만 명이 넘는다. 이들의 연간 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1만 5천불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경제발전에 따라 중산층의 규모도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들은 값 싼 인니산이나 중국산을 소비하고, 부유층들은 유럽, 미국, 일본제들을 구매한다. 중산층들은 중국산을 쓰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선진국산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하여 새로운 가격대의 상품을 찾게 되는데, 한국상품들이 이 틈새를 파고 들고 있다. 한국의 중저가 화장품이 인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인니 시장에 진출할 때는 중국산을 취급하는 바이어 보다는 선진국산을 취급하는 바이어들을 접촉하는 것이 좋다. 중국산 수입 바이어는 가격을 중국산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도국 소비자들이 비슷하지만 인니 소비자들도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류 드라마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니는 외환거래가 자유화 되어있어 수입 대금 결제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 큰 거래에는 L/C를 사용하지만 전통적으로는 T/T를 선호 한다. 지금도 소액의 거래에는 T/T가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 대금 지급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일부는 계약 시, 잔금은 선적 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가 진행되다 보면 신용거래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 주의를 요한다.

특히 자본재의 경우,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현지은행이나 수출보험공사와 같이 현지 신용도 조사가 가능한 기관과 연계된 신용공여를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매시즌은 품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가장 큰 구매시즌은 라마단 금식기간이 끝나는 르바란 휴일이다. 이 때는 우리나라의 추석명절처럼 선물을 사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는 인구의 대 이동이 이루어진다. 중국 화교들은 구정, 외국인들이나 기독교 인들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도 큰 구매 시즌이다.

나. 거래 시 유의 사항

인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 관계를 중요시 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정 부패와도 관련이 있다. 정부나 정치계의 실력자와 연계가 되어 있어야 사업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4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한 수하르토 대통령 때 대통령 측근이 이권에 많이 개입하면서 인맥에 의한 비즈니스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누구 누구 실력자와 아는 사이라면서 접근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정말로 인니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며, 특히 비즈니스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화교상인들과는 돈독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사이면 웬만

한 일로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스킨쉽이 필요하여 서신이나 전화로만 상담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얼굴을 맞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빠른 결정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너무 조급하면 바이어에게 끌려가거나 일을 그르치기가 쉽다.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니인들은 'No' 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상대방과 대립하거나 반목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 탓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에서 긍정과 부정을 느껴야지 말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다. 현지에 세일즈 출장을 왔을 때는 적극성을 보였던 바이어가 사후에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고, 사후 연락하면 즉답을 피하곤 하는 일이 많은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지나친 기대도 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중국계 화교상인들의 경우 특히 상대방을 조바심나게 하는 일이 많다. 이 것만 해결해주면 거래하겠다고 하고 하여 들어주면 아무 대답이 없다가 이쪽에서 재촉하면 다시 다른 요구를 하고, 하여 우리측을 지치고 손들게 만드는 일이 많다. 중국인들은 네고를 잘하니 항상 네고를 염두에 두고 오판을 하고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지 말고 조금씩 들어주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니인들은 거래를 시작하면서 독점 에이전트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2년 거래 관계를 보아가면서 독점권을 주겠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가급적 물건은 여기저기 뿌리지 않는 것이 좋다. 금방 시장에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바이어를 1-2군데 정도만 정하여 물건을 파는 것이 좋다.

다. 조심해야 할 바이어/거래/사기 유형

중소기업의 거래는 T/T 거래가 많은데,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물건을 받고 대금을 안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처음 거래에서는 대금을 잘 지급하다가 차츰 외상을 요구하면서 대금을 떼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 많은 편은 아니며, 바이어의 신용상태를 중간중간 파악하면서 거래하면 큰 문제는 없다.

프로젝트 거래의 경우 현지의 유력 인사를 잘 안다든지, 프로젝트 허가를 사전에 받았든지 하면서 우리 기업에 접근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로는 정부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으니 현지 유력 인사를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는 일단 조심을 하고 해당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또 최근 들어 광업권 등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 2005년에 한국에서 발전용 석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니산 석탄 수입을 희망하는 에이전트들이 많아짐에 따라 인니 브로커들이 석탄을 공급해주겠다고 하니, 광업권을 가지고 있으니 공동 개발하자 하니 하며 우리 기업들에 접근하는 일이 많이 생겼다. 광산 개발 같은 이권 사업은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인니에서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광업회사는 몇 개 안되고 이미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어 신규 공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을 해야 한다.

27. 통관절차

가. 수입 화물의 통관절차

- NEGOTIATION BANK에서 OPENING BANK로 선적 서류 발송.
- 수입자는 ORIGINAL NEGOTIATION 서류를 OPENING BANK로부터 받기 전에 수출자로부터 선적 서류 COPY를 받아 PIB(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거래 은행(OPENING BANK)에 수입 관세를 납부 후 L/C대금을 정산
- OPENING BANK로부터 선적 서류와 PIB 기재 내용을 확인
- 기타 통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통관업체에 양도
- 통관업체에서는 양도받은 통관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 통관을 진행하고, 통관이 끝나면, (수입화물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수입관세의 면세 또는 감세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BAPEKSTA나 BKPM의 관세 혜택 관련 서류를 통관 시 첨부함.)
- 세관에서는 통관 확인 서류를 통관업체에 발행(SPPB)하며, 통관업체는 PORT CHARGE등 관련비용을 납부 후, 항만청으로부터 D/O(TILA)를 발급
- 운송회사에 운송을 의뢰
- CY 또는 보세 창고로부터 수입 화물을 인도
- 수입자의 공장 또는 창고로 DELIVERY
- 통관 업체에서는 수입 통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자의 비용에 첨부함으로써 수입의 모든 과정이 종결

나. 수입 통관 관련 서류

- B/L: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OPENING BANK의 배서가 되어야 하며, 포워드 또는 선사로 부터 D/O (DELIVERY ORDER)를 받는데 사용.
- PIB (PEMBERITAHUAN IMPOR BARANG-수입화물신고서)
 - 수입자가 COMMERCIAL INVOICE를 기초로 작성하며, 수입 화물의 명세 및 관련 세금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세금은 은행에 납부 후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함. PIB는 가장 중요한 수입 통관 서류 중에 하나로 작성시 물품가, 운임, 화물 중량, CONTAINER 등을 오류 없이 작성해야 함.
- ORIGINAL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ORIGINAL INSURANCE POLICY
- 세금납부 영수증(SSP, SSBC-수입 관세, 부과세, 수입 소득세에 대한 영수증)
- ORIGINAL SKB(SURAT KETERANGAN BEBAS PEMUNGUTAN Pph 22): 일반적으로 수입관세는 수출용 원부자재 또는 투자의 경우 납부 후 환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환급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매 수입 건마다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면세를 받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임.

- TANDA TERIMA BAPEKSTA (BAPEKSTA의 FACILITY를 사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경우 - 수출용 원부자재의 경우)
- SKEP FACILITY BAPEKSTA COPY (BAPEKSTA로부터 FACILITY를 받은 확인서 I. D/O (DELIVERY ORDER))
 - (참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관세혜택을 받은 종류에 따라 수입통관 서류의 일부가 추가될 수 있음.
 - 예)BKPM의 FACILITY를 받은 경우는 MASTER LIST와 SURAT KEPUTUSAN MENTERI KEUANGAN (BKPM 투자 승인서)이 필요하며, BAPEKSTA FACILITY 이용 시 TANDA TERIMA BAPEKSTA와 SKEP FASILITAS BAPEKSTA 필요.

다. 수입 통관 시스템 전산화

- 현재 JAKARTA 지역세관(TG. PRIOK, SUKARNO-HATTA)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이 갖춰져 있어 수입자나 통관업체와 COMPUTER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입자 또는 통관업체에서는 PIB를 작성하여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의 확인을 받아 PIB 내용을 세관 MAIN COMPUTER로 전송하면, 세관에서는 전송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연결된 COMPUTER를 통하여 SPPB(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화물 통관 확인서)를 수입자 또는 통관업체에 전송, 통관업체에서는 SPPB를 받은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친 후 화물을 인수하게 된다.
- (참고): 현재 인도네시아 통관 규정 상 1건의 통관 서류상에 수출용 원, 부자재일지라도 수입화물의 종류가 5 ITEM(H.S. NO기준)이상이거나, 일반 소비재(내수 판매용)는 필수 검사 품목(JALUR MERAH)로 지정하여, 화물확인 검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실무자들에 따라 적용방법이 다르고 관할 세관마다 시행에 차이가 있어 수입자가 불 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라. 수입 통관 관련 비용

- OCEAN FREIGHT: CIF나 C&F는 수출자가 지불하며 FOB의 경우는 선사 TARIF에 따라 수입자가 지불
- TEMINAL HANDLING CHARGE: US\$ 100,-/20', US\$ 155,-/40', US\$ 16-26/CBM
- IPA (INTER ASIA): US\$ 8,-/20', US\$ 12,-/40', US\$ 12,-/40HC, US\$ 15,-/45'
 - (USA, EUROPE): US\$ 12,-/20', US\$ 18,-/40', US\$ 18,-/40HC, US\$ 23,-/45'
- D/O CHARGE : US\$ 20,-/DO
- CUSTOM CLEARANCE CHARGE: 통관 대행 수수료로 포워드나 통관 업체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음.
- PORT STORANGE & LIFTON: DIR Rp. 40.000,-에서 60.000,-정도이나 통관, 운송이 지연될 경우 PORT TARIF에 따라 SURCHARGE가 붙음.

- LIFT OFF & CREAMING CHARGE: 선사 및 DEPOT마다 차이가 있음
- 운송료: 지역에 따라 운송요율 적용.
- 항공 화물의 경우 창고료의 적용은 공항 창고의 TARIFF(US\$)에 따라 적용.
- 기타 CONTAINER REPAIR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해결을 위하여 과외 비용이 필요하며, 세관원과는 CASE BY CASE로 NEGOTIATE를 해야 한다.

마. 통관 소요 기간

기본적으로는 통관 서류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통관 완료 후 DELIVERY하고 있으며, JALUR MERAH(화물 검사 품목으로 지정)에 해당될 시 화물 검사 소요기간이 한두 시간 필요하다. 그러나 2004년 11월 신정부 수립 후 부정부패 단속 강화 차원에서 세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통관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 (참고): 상기 내용은 보세구역(EPTE)내에 소재한 업체가 아닌 일반 공단지역에 입주한 업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보세구역 내에 입주한 업체는 공단에서 수출, 입 통관이 이루어지고(세관원이 공단에 상주), 부두의 세관에서는 단지 신고 절차만 거치고 전반적인 흐름은 동일하다.

28. 운송

가. 항구 및 공항

인도네시아 주요 국제 공항 및 항구는 다음과 같다.

이중 한국 국적기가 취항하는 곳은 자카르타의 Soekarno-Hatta 공항과 발리 덴파사의 Ngurah Rai 공항(보통 덴빠사르 공항으로 불림) 두 곳이다. 나머지 지역들은 일단 자카르타에 도착한 후 국내선편을 이용해야 한다.

- 국제항구: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이상 Bintan), Belawan 항 (메단), Sibolga항(북 수마트라), Yos Sudarso항(두마이), Teluk Bayur항(빠당), Tanjung Priok항(자카르타), Padang Bai항(발리), Jaya Pura항(빠뿌아)
- 국제공항: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 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빠간바루)

나. 운송비용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의 순수 해상운임은 600달러 정도 소요된다. 터미널 차지는 2005년 11월 1일부로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종전 150달러에서 95달러로 인하되었다. 그동안 고 비용 경제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항구 관리 업체, 수출입 업자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며, 2005년 10월 1일 120%의 유가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리스트

회사명(국문)	회사명(영문)	전화	팩스
어코드 로지스틱 인도네시아	ACCORD LOGISTICS INDONESIA	6531-1202	6531-1119
에이스 멀티트랜스 카고	ACE MULTITRANS CARGO	654-0386	654-0387
에이, 씨, 아이익스프레스	ACI KORINDO EXPRESS	8370-2767	8379-5369
아네카 트랜스	ANEKA TRANS	520-4181	520-4171
아르페리 뿌라따마 해운	ARPERI PRATAMA OCEAN LINE	350-5443/6	380-3615
범양	BUMYANG	798-6128	798-6089
카고 프라자	CARGO PLAZA	831-7779	831-7720
동남아 해운	DONGNAMA SHIPPING CO.LTD	5296-2240	5296-2235
범한물류	FIRST AND SMILE LOGISTIC TRADING DIVISION	8998-2855	8998-2833
그라하 센트라 카고	GRAHA SENTRA CARGO	4584-0108	4584-0111
한인도 익스프레스 우타마	HANINDO EXPRESS UTAMA	252-5123	252-0551/6
한진해운	HANJIN SHIPPING CO.LTD	632-1055	632-1056
하스풀 인터나셔널 인도네시아	HASPUL INTERNASIONAL INDONESIA	8379-3732	8379-7930
흥아해운	HEUNG-A SHIPPING CO.LTD	8379-3732	8379-3728
홍토 라주아바디	HONGTO LAJU ABADI	7918-1450	7918-1515
현대상선	HYUNDAI MERCHANT MARINE CO.LTD	385-5372	384-0674
인스 텍노로지 인도네시아	INS TECHNOLOGY INDONESIA	8998-2855	8998-2834
조인어스 카고 부아나	JOINUS CARGO BUANA	654-6616	654-6626
코리아마린 트랜스포트	KOREA MARINE TRANSPORT CO.LTD	530-7866	530-7852
코르넷 트랜스 우타마	KORNET TRANS UTAMA	799-0831	799-0603
케이피엘	KPL	422-9282	422-9283
만디리 아바디 센토사	MANDIRI ABADI SENTOSA	5296-2234	5296-2235/38
미트라 트라신도 뿌르까사	MITRA TRANSIDO PERKASA	426-0175	420-3844
엔씨에스 해운	NCS LINE	352-4843	386-2675/76
범양상선	PAN OCEAN CHIPPING CO.LTD	798-6128	798-6089
프라야란 코린도	PELAYARAN KORINDO	797-5959	797-6388
프로트랜스 인도네시아	PROTRANS INDONESIA	8379-0822	8379-2177/8
큐씨엔	QCN	520-4189	520-4357
센다이 로지스틱	SENDAI LOGISTIC	719-0247	718-2489
에스엠에스 해운	SMS LINE	520-4177	526-6320
에스페엘 로지스틱	SPL LOGISTICS	8379-3806	8379-3822
수치바하리 아디타마	SUCIBAHARI ADHITAMA	471-4460	471-4465
순baru 메가흐 시핑	SUNBARU MEGAH SHIPPING	520-4177	520-4171
탐익스프레스	TRANS UTAMA INDOKARYA	829-6218	829-7613
윙스 글로벌	WINGS GLOBAL	4585-8053	4585-0332
짐모아	ZIMMOAH	4786-6502	4786-6503

29. 분쟁해결 절차

우리나라의 상사중재원 같은 기관이 있지만, 미결제 대금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채권 추심기관을 이용하거나 변호사에 의뢰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에 들어가야 하며, 여기에서 이겨도 살고 있는 주택 등은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어 채권 회수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또 바이어가 항소를 한다든지 하면 시간이 무한정 소요되며, 또한 인니 사법부의 부패가 심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법적으로 미결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인니 상사중재원은 다음과 같다.

-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 Add. : Wahana Graha 2nd Fl., Jl. Mampang Prapatan No. 2, Jakarta 12760
 - Tel : 62-21-7940542
 - Fax : 62-21-7940543
 - Contact Person : MS. Rima, Mr. Ismu

한편, 우리나라 수출보험 공사의 신용사업팀에서 해외 채권 회수 지원업무를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외국 채권추심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채권 회수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특히 인니에는 수출보험공사 지사가 금년 7월에 설립되어 보다 신속한 현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동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수출보험공사
 - 주소: Suite 2104,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Jakarta
 - 전화: 570-5565
 - 팩스: 574-1470
 - 소장: 김 은성

30. 유형별 분쟁사례

가. 물건 인수 대금지불 불능에 따른 분쟁

한국 H사가 중장비를 현지 바이어인 PT. U사에게 인도 후, 바이어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인한 5만 달러의 수출대금 미결제 사건 발생.

수입자는 타 그룹 계열사 재무조정에 따른 현금 유동성 악화, 루피아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익률 감소, 시장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수출대금 상황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수출업체로부터의 상환청구가 계속되자, 제품의 현지인지도가 낮아서 판매가 부진 하다는 불만 등을 토로함

수출업체는 채권추심,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채권회수가 불가능해 질 것을 우려하여, 수입자와의 협의하에 계약을 파기하고 3의 업체와 할인된 가격에 판매 재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의 일부를 상환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수출보험 부보금으로 처리함

나. 상호 불신에 의한 분쟁

한국의 플라스틱 업체인 D사는 2003년 인니의 의약품 제조업체인 C사로부터 약품용 용기 수출 주문을 받아 월 1컨테이너 분량으로 거래를 해 왔음. 약 1년 가량이 지난 후 D사는 그 달치 물량을 생산 완료하였으나, C사로부터 대금 결제(약 1만\$)를 받지 못함. 그 동안 대금 결제는 선적 준비가 완료되면 T/T로 보내왔었는데, 대금 결제가 늦어진 것임. D사는 계속 대금을 독촉하는 한편, 준비된 상품은 일단 선적을 완료함.

C사는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만 외상으로 물건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사는 거절함. 이 과정에서 D사와 C사 간에 감정이 실린 모욕적인 언사들이 오감. D사는 이미 선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 무역관에 중재를 요청하였음. C사는 선적서류를 무역관에서 받아주면 그 때까지는 대금을 마련, 무역관에 전달하고 선적서류를 찾아가겠다고 하였음. 무역관은 기업간의 대금 결제에 개입될 수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C사는 D사에 게 직접 돈을 줄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함.

결국 무역관은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대금을 받아 D사에 송금하고 C사에는 선적서류를 넘겨 주었으나, 그 것이 마지막 거래였음. D사는 이미 제작된 몰드로 계속 여유있게 물품을 납품할 수 있었으나, 거래가 중단된 것임. C사는 인니의 중견업체로 지난 1년간 한번도 어김없이 대금을 보내주었는데, 급할 때 사정을 보아주지 않고 자사를 마치 사기꾼 취급하는 D사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고 함.

무역관에서 입수한 이메일 사본을 보니 D사가 보낸 편지문구에 “I can’t believe you”, “Send money right now” 등 직접적인 표현이 많았음. 영어의 미숙일 수도 있으나,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고, 1년 간의 거래로 어느정도 이익을 보았으면 한 번쯤 외상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계속되는 거래에서 추가로 이익을 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음.

인니 거래에서는 소액인 경우 T/T 송금 결제가 많고 거래하다 보면 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남. 물론 악덕 바이어도 있겠으나, 거래의 경험으로 미루어 잘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함. 또 혼자만 이익을 보는 것 보다 바이어와 같이 이익을 보는 Win-Win 전략이 꼭 필요함.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연도별 투자 승인 동향(2001~2006.7)

연도	내국인 투자(PMDN)		외국인 투자(PMA)	
	건수	금액(Rp.십억)	건수	금액(미\$백만)
2001	270	59,881.5	1,378	15,206.3
2002	196	25,935.7	1,239	9,955.7
2003	232	55,120.9	1,238	14,278.1
2004	201	44,472.5	1,228	10,416.0
2005	218	50,577.3	1,648	13,579.2
2006(1-7)	111	86,913.1	976	7,495.1

자료원: 인니투자청(BKPM)

산업별 외국인투자 승인 현황

(금액: US\$백만)

NO	산업부문별	2003		2004		2005		2006.1-7	
		P	I	P	I	P	I	P	I
I	1차산업	36	283.9	53	410.2	100	1,381.6	82	541.0
1	농업	13	129.6	15	169.3	25	434.0	25	313.7
2	축산	4	13.9	5	39.0	2	27.8	5	19.2
3	삼림	2	95.2	-	0.2	4	128.6	1	0.5
4	어업	7	26.8	12	133.9	8	15.3	3	77.4
5	광업	10	18.4	21	67.8	61	775.9	48	130.2
II	2차산업	352	6,640.8	332	6,397.4	436	6,028.0	244	3,463.8
6	식품	42	516.0	43	740.4	62	642.6	22	647.6
7	섬유	44	129.7	46	408.1	85	139.5	56	96.8
8	가죽, 신발	10	37.2	7	20.0	10	80.9	9	31.4
9	목재	23	245.9	9	15.5	17	108.3	7	48.4
10	제지, 인쇄	11	1,299.9	15	60.4	15	227.7	11	298.7
11	화학, 의약품	26	3,038.2	34	3,421.4	42	2,879.0	26	644.7
12	고무, 플라스틱	28	77.6	31	182.0	33	164.4	21	63.1
13	비철금속	10	714.8	4	47.2	10	368.2	6	756.4
14	금속, 기계, 전자	94	324.3	83	1,020.0	101	694.9	46	524.6
15	정밀, 광학, 시계	4	4.8	1	2.9	2	16.1	-	1.9
16	자동차, 운송기기	20	159.7	26	427.9	33	629.1	20	331.6
17	기타제조	40	92.7	33	51.6	26	77.3	20	18.6
III	3차산업	850	7,353.4	843	3,608.4	1,112	6,169.6	650	3,490.3
18	전기, 가스, 용수	2	362.9	3	275.5	2	22.5	7	604.6
19	건설	43	903.6	46	964.2	91	1,777.2	23	1,589.9
20	무역	471	490.5	445	620.4	573	645.5	371	796.2
21	호텔, 요식	69	613.5	77	616.4	87	259.2	38	101.3
22	운송, 통신	55	4,592.1	58	579.1	68	3,107.3	52	182.7
23	부동산	6	52.6	9	339.7	20	124.7	12	21.2
24	기타 서비스	204	338.2	205	213.1	271	233.2	147	194.4
	합계	1,238	14,278.1	1,228	10,416.0	1,648	13,579.2	976	7,495.1

주: P: 건수 / I: 투자금액

자료원: 인니투자청(BKPM)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대인니 투자규모는 1967-2005기간 중 누계치 기준 2,327건 총 135억\$ (인니 정부 승인 기준)로 전체 외국투자 국가 중 건수 면에서 3위, 금액면에서 7위를 점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투자건수 209건에 금액으로는 4억 2천만\$로, 건수면에서는 1위, 금액면에서는 7위를 기록하였다. 건수에 비해 금액이 작은 것은 우리나라의 대인니 투자가 중소기업의 소액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06년 들어서는 2월말 현재 49건에 35.7백만\$의 투자 실적(승인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1,050개사 내외로, 이중 섬유 및 섬유관련 업체가 195개사, 신발 및 완구 관련 업체가 97개사, 전기 및 전자 관련 업체가 79개사, 금속 및 기계류관련 74개사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한국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니 근로자수는 약 50만 명 정도로, 인니 전체 경제 활동 인구(9천만 명)의 0.5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출 비중을 보면, 섬유·봉제가 인니의 전체 섬유·봉제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발은 31%, 완구는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투자진출기업은 인니 내 노동집약산업 부문의 생산,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95년 이후부터는 철강, 자동차, 전자, 건설, SOC 등 기간산업 분야까지 진출하고 최근 들어서는 IT분야에의 진출도 매우 활발하다.

2006년 들어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섬유쿼터 부과로 다시 인도네시아 섬유산업(봉제분야)이 활기를 찾으면서 이 분야에 대한 한국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 신발쪽으로도 베트남 등에 EU에서 덤핑 판정이 나고,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쓰나미 여파로 신발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해외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투자기업이 늘고 있음.

나. 주요업종별 한국투자기업 현황

주요 업종별 한국투자기업 현황 (2005년 말 기준)

(단위: 개사)

분 야	업체수	분 야	업체수	분 야	업체수
섬 유	195	통신·컴퓨터	43	종이·목재	24
신발·완구	97	고무·플라스틱	39	금 용	17
전기·전자	79	석유화학	37	가 구	16
금속·기계	74	건 설	36	기 타	335
운송·창고	62	출판·인쇄	25	계	1,102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조사

연도별 한국의 대 인니 투자 실적

(단위 : 건/ 미\$백만)

	2002	2003	2004	2005	2006.1-7
건 수	246	200	210	309	192
금 액	378.3	166.2	419.3	417.3	512.8

자료원: 인니 투자 조정위원회(BKPM) 홈페이지

33. 투자환경

가. 투자 전반적 환경

1) 일반환경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980~90년대 수많은 규제완화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과 1998년의 투자규정 개정으로 인해 100% 외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졌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는 자원개발, 가공수출증대, 고용창출기회 제공 등 인도네시아 경제, 산업 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으나 1997년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정치, 사회적 혼란, 극심한 환율변동으로 외자 유치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2년부터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되고 노동자 최저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기업은 종전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2003년 개정된 신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여 기업운영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3년을 “투자유치의 해”로 선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불안, 부정부패의 만연, 사법행정의 미비, 임금상승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2004년에는 총선 및 대선을 치르는 해로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가 관망세를 보여 외자유치가 부진하였으나 선거가 무난히 치러져 정치적 불확실성이 견제에 따라 2005년에는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인니 투자조정청(BKPM)은 2005년 중 외국인 투자승인액이 136억\$로 2004년 대비 30.4%가 증가했으며, 투자 실현액은 89억\$로 전년대비 무려 93.7%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국가 경제발전, 특히 IMF 금융위기 이후 거의 손을 못댄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투자유치 확대에 전력 투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투자 관련 법령도 대폭 개선하고 관리의 부정 부패를 근절하는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생각이다. 2005년 1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인프라 서밋을 개최, 91개의 인프라 설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해외 각국 기업들이 인니의 인프라 설비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투자관련 법령 정비에 위하여 인니주재 외국 상공회의소, 인니상의(KADIN)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투자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BKPM의 상급부서인 무역부는 투자법 개정은 투자절차의 간소화와 투자환경 조성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초부터 진행된 투자관련 법령 정비는 행정적인 지연으로 2005년 말까지 진척이 되지 못했다. 정부는 투자법령, 세제, 노동법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 등을 2006년에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나, 의회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간의 이견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지는 아직 의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며, 비록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하여 임가공 수출을 위한 투자대상지로 아직 매력에 있다. 특히 2005년 말부터 중국이 노동집약적인 투자를 환영하지 않고 있고 또 인건비도 크게 오르는 추세이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베트남도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체지역으로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 인니는 2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서 내수시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 시장까지 감안하면 현지 내수 시장 겨냥 목적의 투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투자유치정책

□ 개요

-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 1970년 개정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수출증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년 도	주요 개정 내용
1977	-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관련 행정 총괄전담기구 (투자조정원: BKPM) 설립 ** BKPM 기능: 외국인 투자안내, 인허가 발급 투자 우선분야 선정 등
1989	- 외국인 투자규제방식 변경(POSITIVE → NEGATIVE)
1992.4	- 특정조건하 100 % 외국인 투자 허용
1992.7	- 외국인 투자제한분야의 축소(60개 → 51개) - 투자 금지 분야 우유, 식용유, 합판, 중장비, 자동차 등에 대한 조건부 투자허용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증 발급절차 간소화 - 부동산 소유기한 연장(10년 → 30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융자 허용 - 외국인 투자 시 취득허가증 종류 축소(8개 → 4개) - 토지취득 및 건물 설립 절차의 간소화
1993.5	-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지분소유 상한 확대 (49 %)
1993.6	-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 축소(51개 → 34개 업종)
1993.7	- 외국인 직접 투자기업에 잠정적으로 부여되었던 세금감면혜택 폐지
1993.10	- 100 %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조건 완화 및 기간연장
1994.6	- 지분 양도의무 폐지 - 100 % 지분 소유가능지역 확대(14개 주 → 전국) - 외국인 단독 투자 시 최저자본금(5천만 불) 규정 폐지 - 합작투자 시 지분소유한도 확대(80 % → 95 %) - 합작투자 범위확대(금지되었던 SOC부문 중 9개 부문합작투자 허용) - 영업허가기간(30년) 연장수속 간소화
1995.5	- 외국인 투자금지품목 축소(광유, 의약품 등 10개)

1996.1	- 수출입업에 대한 조건부 외자참여 허용(외국인의 100 % 지분소유 허용)
1996.6	- 수출지향적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 직물 수출 시 부과하던 수출검사료 폐지 · 세관구역, 보세지역, 수출가공지역간 상품교류 시 부과되던 VAT 및 수입과징금 폐지
1997.7	- 내국인과 합작조건으로 외국인의 자국 내 경매회사 설립 허용 - BKPM 면허업체 뿐만 아니라 산업무역부, 지방정부 관리 투자업체에 대해서도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1998.6	- 외국인 투자금지업종 재조정 및 투자금지업종 축소 · PALM OIL PLANTATION 및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1998.10	- 은행법 개정안 의회통과 · 자국에서 영업하는 외국은행에 대한 외자출자규제철폐(100 % 자유화) · 은행설립 인허가권 (재무부 -> 중앙은행)
1999.1	- 정부지정 첨단산업분야(22개)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치발표(최장 8년간)

3) 정부지정 첨단산업 분야 투자 소득세 면제법령 내용

- 개요: 인니정부가 지정한 22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시 소득세를 최장8년간 면제
- 근거: 대통령령 NO.7/1999(1999.1.14)

○ 세부내용

- 기본: 자바 및 발리지역(3년), 기타지역(5년)
- 추가: 종업원 2,000명 이상 고용 시(1년)
- 동 투자에 인니 중소기업이 20 % 이상 지분확보 시(1년)
- 총 투자금액(대지 및 건물제외) 2억불 이상(1년)
- 정부지정 첨단산업 분야
 - 섬 유: FIBER, YARN, SPINNING, WEAVING
 - 피 혁: NUBUCK LEATHER
 - 화 학: SODA ASH, OLEFINS & AROMATICS PHENOL, BIS-PHENOL A, POLY-CARBONATE, ACRYLONITRILE, BUTADIENE, SBR, MTBE, CAPROLACTAM, ANILINE, ANTIBIOTIC, VITAMIN C FROM SORBITOL, NIACIN, ADIPIC ACID, HMDA
 - 석유시추: CRUDE OIL
 - 철 강: PELLET, SPONGE, PIG IRON, FERRO ALLOY
 - 기 계 류: TURBINE & PARTS, INTERNAL COMBUSTION MOTOR, NC/CNC MACHINE TOOLS, MACHINERY & EQUIPMENT FOR GAS & OIL 기타
 - 자 동 차: ENGINE BLOCK, CRANK SHAFT, CAM SHAFT, CONNECTION ROD, CYLINDER HEAD, INJECTOR, 기타
 - 전 자: SEMI CONDUCTOR, CDT, CRT, LCD, MINIATURE, BATTERIES PACK, MULTIMEDIA COMPONENTS, 기타

4) 투자금지 분야 리스트

- 최근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대통령령 96호, 2000년 7월20일)

□ 외. 내자 투자 전면금지분야: 11개 항목

대마.마약의 재배나 가공, 산호의 채취나 가공, 환경오염을 주는 화학원료의 제조.판매, 살인가스 등의 화학병기, 무기와 그 부품, 사카린 제조, 무선사업과 위성사업, 방사선 친화 물질의 채굴, 알코올음료 제조, 카지노.도박장 경영 등

□ 외자 투자금지분야: 8개 항목

삼림 벌채, 택시. 버스 영업, 국내해운, 민영텔레비전. 라디오방송, 신문. 잡지 발행, 영화 관련 사업, 상업 및 그 지원사업 단, 대규모 소매업(몰, 슈퍼마켓,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 유통업(판매망, 도매업, 수출입업), 품질검정업, 시장조사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업 등은 규제대상 외로 간주

네거티브 리스트는 규제완화 방향으로 점차 개정되고 있으며 외자투자금지분야라 하더라도 현지기업과 파트너쉽 조건으로 참가 가능하므로 사전 투자조정청(BKPM)을 접촉,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자 규제대상 업종 규칙(대통령령 제 127 호 2001년 12월 14일)에서는 소기업을 위해 유보되는 업종, 소기업과 제휴를 조건으로 투자 가능한 업종이 규정되어 있다.

나. 투자허가

1) 개요

먼저 외국인은 투자신청 전 투자금지 및 규제업종을 참조하여 투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조정 위원회(BKPM)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투자조정위원회(BKPM)에서 대통령에게 투자인가여부 요청
- 대통령의 인가/비인가 증서 BKPM에 전달
 - 단 US\$1억불 미만인 경우 BKPM장관 승인사항임.
- BKPM, 대통령 결정사항을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관련사본을 관련정부 부처에 송부
- 대통령의 투자승인서를 BKPM으로부터 전달 받은 투자가는 수입코자하는 자본재, 기초재, 부자재 등에 대한 MASTER LIST를 작성, BKPM에 제출.
- 동 MASTER LIST 검토 후 BKPM은 설비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
- 투자가는 정상조업 개시 후 BKPM에 공장건설 상황보고(연 2회) 및 생산상황 보고(12월 말 1회)를 해야 함.

2) 투자허가 신청 절차

□ 투자허가 기관: BKPM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 구비서류

- 신청서(BKPM양식: MODEL 1/PMA) 기재
 - 신청인 (업종) 및 회사명
 - 연간 생산 및 판매계획
 - 위치 및 공장부지 면적
 - 고용계획
 - 건축일정 및 계획
 - 자금계획
 - 자본금 조달 및 구성
- 첨부서류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Deed of Establishment of PT. PMA
 - 외국인회사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 양측회사의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 인니회사의 세금납입자 번호 (NPWP)
 - 합자 및 기술협력 약정서 (기술협력약정서는 의무사항이 아님)
 - 생산공정 설명서 및 도해
 - 공해방지 및 안전설비계획(유해물질 생산의 경우)
 - 양측회사의 Bank Reference
 - 외국 수입업체와의 매매계약서 혹은 매매약정서(수출지향기업의 경우) - 기타 BKPM이 요청하는 서류

3) 투자허가 절차

- Negative List 검토 및 확인
 - 투자금지 및 제한 여부 검토
- BKPM에 투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BKPM, 대통령에게 투자인가 요청
 - 단 US\$1억불 미만인 경우 BKPM장관 승인사항.
- BKPM, 투자관련부서 및 재무부에 동 신청서 사본 송부 대통령의 인가 / 비 인가 증서 BKPM에 전달
- BKPM, 투자자에게 대통령의 결정사항 통보
- BKPM, 대통령 결정사항 관련 사본을 다음기관에 송부
 - 투자관련 정부부처(Ministries subordinating the capital investment businesss fields concerned)

-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 국가 토지 관리청(The National Agency for Land Affairs)
- 1급지(first level region)의 Governor/Head 지방 투자 조정위원회(BKPMD)가 location license를 발급했을 경우
- 대통령의 투자승인 후
 - BKPM은 관련장관을 대신해 다음사항을 발급함 제한수입자 번호(The Limited Importer's Identification Number)설비에 대한 조세 및 관세경감에 관한 결정(The Decision on the Granting of facilities/tax and import duty relief) 외국인 근로허가증(The working license required for expatriates) 영구 사업허가증(The permanent business license
 - 1급지 Governor/Head는 국가토지관리청이 마련한 거주허가증(location license)발급
 - 국가토지관리청 또는 지방토지관리청은 규정에 의거 사업운영 및 빌딩 건축에 대한 land title 발급
 - 2급지(second level region)의 Regent/Mayor는 빌딩건축 허가증 및 Nuisance Act License발급
- 대통령의 투자승인서를 BKPM으로부터 얻은 후 투자자는 수입코자 하는 자본재(Capital Goods), 기초재(Basic Materials) 및 부자재 (Complementary Materials) 등에 대한 Master List를 작성, BKPM 에 제출
- 동 Master List 검토 후 BKPM은 설비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에 대한 결정 사항 (decisions on facilities/relief of import duty and other import levies)을 통지
- 프로젝트확장 등을 포함, 이미 승인을 득한 자본투자계획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 발생 시 투자자는 BKPM이 규정한 절차에 의거 BKPM에 신청을 함
- BKPM에 공장건설 및 생산상황 보고
 - 정상조업 개시 후 BKPM에 공장건설 상황보고(연2회) 및 생산상황 보고 (12월말 1회)를 해야 하고 중앙은행(Bank Indonesia)에 외화 투자 이행 결과 보고를 해야 함.
- 건물건축 및 사업장허가 취득
 - 건물건축 허가증(IMB)
 - 발급기관: 해당 지역의 장
 - 허가증 발급 소요일수: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 허가 후 12개월 이내에 건물건축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취소가능 동 시한은 해당 지역의 장이 타당성을 인정할 때 연장 가능.
- 사업장 허가증(UUG)
 - 발급기관: 해당 지역의 장
 - 허가증 발급소요일수: 신청서 접수 후 35일(Work day)이내
 - 사업장이 어염 및 공해배출 등 환경오염 업체로 판단될 경우.
 - 환경관리 규정에 관한 법 No.4/1982 에 의거 규제를 받음.

34. 투자인센티브

가. 정부지정 첨단산업 분야 투자 소득세 면제

- 개요: 인니정부가 지정한 22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시 소득세를 최장 8년간 면제
- 근거: 대통령령 NO.7/1999(1999.1.14)
- 세부 내용
 - 기본: 자바 및 발리지역(3년), 기타지역(5년)
 - 추가: 종업원 2,000명 이상 고용 시(1년)
 - 동 투자에 인니 중소기업이 20 % 이상 지분확보 시(1년)
 - 총 투자금액(대지 및 건물제외) 2억불 이상(1년)
 - 정부지정 첨단산업 분야
 - 섬유: FIBER, YARN, SPINNING, WEAVING
 - 皮鞋: NUBUCK LEATHER
 - 화학
 - .. SODA ASH, OLEFINS & AROMATICS PHENOL, BIS-PHENOL A, POLY-CARBONATE, ACRYLONI-TRITE, BUTADIENE, SBR, MTBE, CAPROLACTAM, ANILINE, ANTIBIOTIC, VITAMIN C FROM SORBITOL, NIACIN, ADIPIC ACID, HMDA
 - 석유시추: CRUDE OIL
 - 철강: PELLET, SPONGE, PIG IRON, FERRO ALLOY
 - 기계류
 - .. TURBINE & PARTS, INTERNAL COMBUSTION MOTOR, NC/CNC MACHINE TOOLS, MACHINERY & EQUIPMENT FOR GAS & OIL 기타
 - 자동차
 - .. ENGINE BLOCK, CRANK SHAFT, CAM SHAFT, CONNECTION ROD, CYLINDER HEAD, INJECTOR. 기타
 - 전자
 - .. SEMI CONDUCTOR, CDT, CRT, LCD, MINIATURE, BATTERIES PACK, MULTIMEDIA COMPONENTS, 기타

나. 기타

- 수출 제조업자에게는 수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부과되었던 수입관세와 수입 과징금이 환급되고 수출품의 제조를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사치/고급품의 부가가치세와 판매세가 면제됨.
- 수출가공지역(EPTE)과 보세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수입관세 면제, 수입 과징금의 면제, 호화/사치관세 및 소득세의 면제를 받음.
- 최근에는 개별 사업체 단위에 대한 보세구역 설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가고 있는 상황임.

35. 타당성조사

가. 사업 타당성 조사

- 투자제한업종 (Negative List) 여부 확인
- 자본금 규모(사업규모)확정
- 인니 국내외 시장 확보 방안 검토
- 원자재 및 한국인력 수급 계획 등

나. 합작 파트너 선정 시 신용조사

□ 인니 국내 신용조사 기관

- PT. CAPRICORN Indonesia Consult Inc (CICI)
 - Tel: 021)3101081/2, 3140618
 - Fax: 021)3101505,4895196
- PT.DATA CONSULT INC. (DC)
 - Tel: 021)3904711/2,3909373
 - Fax: 021)3901878,4895196
- PT.GLOBAL INFOSERVE INDONESIA
 - Tel: 021)513657, 516573, 415514
 - Fax : 021)512153

다.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교환

- 시기: 합작 계약서 작성 전
- 교환 방법
 - 그때그때 Memo 형식으로 양측이 서명, 교환하는 방법
 - 모든 사항을 일괄 협의하여 서명, 교환하는 방법
- 양해각서에 포함할 내용: 회사 설립에 관련된 제반 사항
 - 설립비용 (공식, 비공식)의 분담 (중요 사항 임)
 - 설립업무 분담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라. 투자자본금 및 투자기한 준수

1) 투자자본금의 제한 여부

외국인투자회사(PMA)는 인니인과 합작형태를 취하거나 외국인 100% 투자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합작투자의 경우 인니인의 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함. 기타 사회간접자본, 항만, 공공 목적의 전력발전, 이송 및 공급, 통신, 선박수송, 광고업, 원자력산업, 공공철도, 식수,

항공업 등은 반드시 인니인과 합작을 통해서만 투자 가능함. 투자금액에 대한 최소금액 제한은 없으며, 회사법에 2,000만 루피아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음. 외국인 100% 투자의 경우 설립 후 15년 이내 소유권 일부의 이전이 있어야 하며 직접 매각이나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할 수 있음.

양도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1%만의 양도도 가능함

2) 투자에 대한 기한 제한

외국인 투자 법인(PMA)은 정식으로 설립된 지 30년간 존속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 동안에 투자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30년간 연장할 수 있음. 따라서 증자하거나 사업 확장을 하면 지속적으로 존립할 수 있음

투자 허가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회사설립이 가능함. 투자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실적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실효됨

마. 기타 유의사항

노무관리상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인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큰 소리 보다는 가르쳐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합작투자시에는 파트너가 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가족들의 사생활 경비까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기업의 기술을 전수받은 후에 결별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술 등의 중요한 부문은 관리에 철자를 기하여야 함.

공장부지 선정 시에는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업체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을 선정할 경우,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으며 인근회사와의 비교를 통해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및 복리 후생 증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점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함.

판매관리 면에서는 어음, 수표대금 결제 시 자주 부도가 발생되나 상당히 관례화되어 있고 부도 시 우리나라와 같이 큰 구속력이 없어 어음, 수표 수령 시 세심한 배려가 요망됨.

투자초기단계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보다 유능한 사람을 파견하여 단기간 내에 조직 및 관리 면에서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지 않을 경우 의외로 시간적, 금전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36.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외국인 투자진출 형태

1) 외국인 투자의 보호

1967년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자본의 기업경영을 인정하며, 투자자본을 보호하고 수입관세 감면과 동시에 외국인 고용 계획서 (RPTKA)를 주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또, 이익의

해외 송금,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 국유화 등의 조치에 대한 외국자산의 보장, 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외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형태

외국인 투자 사업활동은 통상 주식회사(PT, Perseroan Terbatas)를 설립하는 형태를 갖는다.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PMA(Penanaman Modal Asing)라 부르며 다른 국내기업(PMDN)과 다른 자격을 주고 있다.

나.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1) 외국인 회사 지정 및 주재원사무소

□ 지정

1970년대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부 은행, 석유회사에서 지정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있었으나 현재 투자진흥청(BKPM)은 지정형태의 외자진출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

□ 주재원 사무소

주재원 사무소는 다음의 3종류가 인정되고 있다. 건설관계 주재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이 일반의 현지법인과 크게 다르다.

○ 일반 주재원 사무소

- 외국기업이 판매촉진이나 시장개척, 정보수집, 품질관리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활동만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이 주재원 사무소이며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개설 허가는 무역부에 신청한다. 일부 금융이나 광업관계 등은 각각 재무부, 광업 에너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판촉 활동과 판매 영업활동은 명확 하게 구분되어 제품의 주문, 판매계약의 체결 등은 주재사무소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 판촉정보 수집 등 이외의 영업활동을 실시했을 경우 항구적 시설(PE)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 지역통괄 주재원 사무소

- 허가되는 활동의 범위는 상기 일반 주재원 사무소와 같으나, 주변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을 통괄하는 주재원 사무소로써 투자진흥청(BKPM)이 허가하고 있다. 주재원에게는 출국세의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 건설관련 주재원 사무소

- 건설공사, 건설 설계, 건설 엔지니어링 등의 건설업의 사업활동을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는 것이 허락되는 특별한 주재원 사무소이다. 단,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전개 시 현지 기업과 Joint오퍼레이션을 조직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명칭은 주재원 사무소이지만 실질은 공사 사무소이다.

2) 주재원 사무소 개설 수속절차, 필요서류, 기간

상기 주재원 사무소 형태에 따라 신청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주재원 사무소 개설 의향서(Letter of Intent)
- 주재원 임명장(Letter of Appointment)
- 활동범위 명세서(Letter of Statement)
- 주재원의 이력서
- 회사개요
- 회사증명서(Letter of Reference):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발행
- 주재원의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영문)
- 여권복사본, 사진
- 회사등기부 등본과 회사정관(영어 번역본)

주재원 사무소 개설은 비교적 용이하며 개설수속, 필요서류 샘플집을 현지 컨설팅에서 제공하고 있다. 신청서류의 제출로부터 주재원 비자, 입국, 체재허가, 노동허가 취득, 회사세무 번호 취득과 최종 라이선스 취득 수속 완료까지 약 2-3개월이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노동허가(WORK PERMIT: IKTA)는 인력부가 발급하고, 일시 거주 증명서(KITAS)는 법무부 이민국에서 담당.

다. 현지 법인

1) 투자법인 형태

외국투자 사업활동은 통상 주식회사(PT/Preseroan Terbatas)를 설립하는 형태를 갖는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PMA(Penanaman Modal Asing)라 부르며 다른 국내기업(PMDN)과 다른 자격을 주고 있다.

현지법인 설립 수속 절차와 해당 관청

절 차	해 당 관 청	관 련 사 항
1. 외국인투자 승인	투자조정청(BKPM) 지방투자조정청(BKPMD)	외국인 투자승인 소재지의 사업 건설허가, 토지사용권 등
2. 회사설립 승인	법무부	회사정관의 승인, 관보공고
3. 세무등록번호	재무부 국세청 지방세무서	세무등록번호(NPWP)발급 달러회계, 영문회계 승인 부가가치세 과세업자등록(PKP)
4. 자본금 입금	은행	자본금 불입 신고 해외 차입금 신고
5. 사업 라이선스	상공부	사업허가(SIUP) 회사등록(TDP)
6. 취업규칙 등록	노동부	취업규칙 등록
7. 국가기관 개별허가	재무부 에너지.광업부	금융.보험 부문의 경우 석유.천연가스의 경우

라. 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

1)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작성

BKPM의 소정 양식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하며 첨부 서류와 함께 2부 작성하여 BKPM에 제출한다. 기재 내용은 투자관련 기본계획의 요약이며 신청서는 양식 견본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BKPM의 홈페이지(www.bkpm.go.id/en/)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는 외자 기업 정관(영어 또는 인니어), 제조. 프로세스 설명서/ 원료. 부재료 종류표(제조업의 경우), 예정업무 활동의 설명(서비스업의 경우), 위임장 (신청서 서명을 제 3자가 하는 경우) 등이며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서명 완료된 합작 계약서, 인도네시아 측 파트너 서류(회사의 경우 회사 정관, 조합의 경우 조직 규정, 개인의 경우 신원 증명서)와 세무등록 번호가 추가된다.

2) BKPM의 심사 수속

상기 서류가 제출되면 BKPM은 우선 형식 심사를 실시하여 1주 이내에 접수증을 발급한다.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면 BKPM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BKPM은 제출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사업 계획에 따른 내용을 잘 갖추고 있으면 통상 약 10일 이내에 투자승인 통지서(SP-PMA)를 발급한다.

마. 투자방식

외국인 투자회사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단독 투자가 가능함. 이 경우에는 설립 후 15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시작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인도네시아 인이나 인도네시아 법인체에 주식을 매각 이전하거나, 주식시장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음.

양도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단 1%만의 양도도 가능함. 사회간접시설인 항만, 전력발전 및 이송 및 공급, 통신, 선박운송, 항공업, 식수, 의료서비스, 원자력 산업 8 개 분야에 투자하는 PMA 회사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와 외국인간의 합작으로 이루어져야 함.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회사의 형태인 PT 로 설립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내국인 파트너의 소유지분은 납입자본금의 5 % 이상이 됨

바. 합작투자 조건하에 투자 가능한 분야 : 8 개 부문

- Building and operation of seaports
- Electricity produc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 Shipping
- Processing and provision of potable water for public use
- Atomic power plants

- Medical services, including the building and operation of hospitals, medical checkups, clinical laboratories,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ublic health maintenance security, rent of medical equipment, assistance services for health

- aid and evacuation of patients under emergency conditions, hospital management services and services for testing, maintenance and repair of medical equipment
- Telecommunications
- Regular / non-regular commercial airliners.

37. 입지선정

가. 주요 공단 지역

자카르타에는 수많은 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 인근에 한국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은 짜카랑 공단, 땅그랑 지역, MM공단이 대표적이다. 일반 지역에 비하여 도로, 급수, 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다.

1) 자바베카 공단 (짜카랑 소재)

- 운영: PT KAWASAN INDUSTRI JABABEKA Tbk
- 위치: 자카르타 시내에서 약 35 km 수카르토하타 공항에서 65 km
- 개발면적: 산업단지 1,330 ha / 주택 및 골프장 1,400 ha
- 입주현황
 - 약 17개국에서 250개 업체가 입주해 있음
 - 한국 기업이 90개 기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75개사, 인도네시아 35개사, 말레이시아 15개사, 호주 10개사 등이 입주해 있음
- 특징
 - 전자업체가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의 1차, 2차 밴드 업체가 진출되어 있음. 땅그랑 지역보다 좋은 질의 노동력이 있으며, 관공서 또한 업무처리가 신속함. 공단 지역의 경우 1㎡ 당 - \$ 40-50 정도 매입 가능.
 - 공단의 경우 표준 공장이 지어져 있으며, 대지 2000㎡ - 건평 800㎡ 정도의 공장이 많이 나와있으며, 현 시세는 \$ 200,000- 300,000 임.

2) 땅그랑 지역

- 위치: 자카르타 시내에서 약 40 km 수카르토하타 공항에서 50 km
- 특징
 - 주로 봉제, 신발 업체가 이 밀집하고 있으며, 현재 코오롱 및 나이키 등 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많이 진출 하였으나, IMF 이후 각종 노사 및 관련 관청의 비리로 인하여 점점 한국업체가 줄어들고 있음
 - 공장임대가 용이하며, 부지는 저렴한 편임

3) MM 공단

- 운영: Megalopolis Manunggal Ind. Dev., PT
- 위치: 자카르타 시내에서 약 30 km 수카르토하타 공항에서 60 km

○ 특징

- 일본계에 의하여 개발된 공단으로, 일본 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으며, LG 계열사가 입주해 있음
- 공단의 평균 가격은 \$ 70-80 정도이며, 상대적으로 인건비 높음.

나. 자카르타 및 인근 지역의 주요 공단 정보

1) 자카르타시 지역

○ CILANDAK COMMERCIAL ESTATE

- Location: Cilandak, South Jakarta,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 Plan Area: 11.3 Ha,
- Developed Area: 11.3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3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35 Km
- Water supply: 700 Litre Per Second
- Electricity: 6.6 - 10.2 MVA
- Telecommunication: Telkom, 1,0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74 Companies

○ JAKARTA INDUSTRIAL ESTATE PULOGADUNG

- Location: Pulo Gadung, East Jakarta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An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 Plan Area: 570 Ha
- Developed Area: 420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12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40 Km
- Water Supply: PDAM
- Electricity: PLN
- Telecommunication: Telkom
- Road, Primary Row: 30 M
- Road, Secondary: 12 M
- Number Of Companies: 305 Companies

○ PLUIT DISTRIBUTION CENTER

- Location: Jl. Kapuk Kamal Raya, North Jakarta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Sell
- Plan Area: 80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1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12 Km
- Water Supply: PDAM
- Electricity: PLN
- Telecommunication: Telkom
- Number Of Companies: 63 Companies

○ KAWASAN BERIKAT NUSANTARA

- Location: Cakung, Marunda and Tanjung Priok, North Jakarta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An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In Export Processing Zone
- Plan Area: 595 Ha
- Developed Area: 482.7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40 Km
- Water Supply: PDAM
- Electricity: PLN
- Telecommunication: Telkom, 4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253 Companies

2) West Java 지역

○ BEKASI 3000 INDUSTRIAL ESTATE

- Location: Bekasi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250 Ha,
- Current Status: Under Construction Stage
- Distance To Jakarta: 4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5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0 Km
- Water Supply: PDAM
- Electricity: PLN
- Telecommunication: Telkom
- Number Of Companies: n.a.

○ EAST JAKARTA INDUSTRIAL PARK

- Location: Lemah Abang,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 Plan Area: 320 Ha
- Developed Area: 320 Ha
- Distance To Jakarta: 40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 Cikarang Exit, 5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4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70 Km
- Water Supply: n.a.
- Waste Water Treatment Plan: n.a.
- Electricity: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Number Of Companies: 82 Companies

- KAWASAN INDUSTRI GOBEL
 - Location: Cibitung,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 Plan Area: 52 Ha,
 - Developed Area: 52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3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0 Km
 - Water Supply: PDAM, n.a.
 - Electricity: PLN,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Number Of Companies: n.a.

- BEKASI INTERNATIONAL INDUSTRIAL ESTATE
 - Location: 37 Km East Direction Of Jakarta Along The Jakarta-Cikampek Toll Road, Cikarang Exit,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200 Ha
 - Developed Area: 140 Ha
 - Distance To Jakarta: 37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Cikarang Exit, 3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4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70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Bekasi, 25 Km
 - Water Supply: 13,000 M3 Per Day
 - Waste Water Treatment Plan: 8,000 M3 Per Day
 - Electricity: 900 MV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Road, Primary Row: 40 M
 - Road, Secondary Row: 20 M
 - Number Of Companies: 111 Companies

- CIKARANG INDUSTRIAL ESTATE
 - Location: 37 Km East Direction Of Jakarta Along The Jakarta-Cikampek Toll Road, Cikarang Exit,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1,330 Ha
 - Developed Area: 952 Ha
 - Distance To Jakarta: 35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 Cikarang Exit, 2 Km
 - Distance To Cirebon: 18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4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5 Km, Husein Sastranegara, 150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Bekasi, 25 Km
 - Water Supply: 49,500 M3 Per Day
 - Waste Water Treatment Plan: 42,000 M3 Per Day

- Electricity: 900 MV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Number Of Companies: 616 Companies
- LIPPO CIKARANG INDUSTRIAL ESTATE
- Location: 37 Km East Direction Of Jakarta Along The Jakarta-Cikampek Toll Road, Cikarang Exit,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An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Sell
 - Plan Area: 1,000 Ha
 - Developed Area: 400 Ha
 - Distance To Jakarta: 37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Cikarang Exit, 5 Km
 - Distance To Bekasi: 25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4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70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Bekasi, 25 Km
 - Water Supply: 13,000 M3 Per Day
 - Waste Water Treatment Plan: 10,000 M3 Per Day
 - Electricity: 900 MVA
 - Telecommunication: Telkom, 15,000 Lines
 - Road, Primary Row: 40 M
 - Road, Secondary Row: 20 M
 - Number Of Companies: More than 200 Companies
- MM 2100 INDUSTRIAL TOWN
- Location: Cibitung,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1,000 Ha
 - Developed Area: 805 Ha
 - Distance To Jakarta: 30 Km, East Direction Via Jakarta-Cikampek Toll Road, Cibitung Exit, 0.5 Km
 - Distance To Bekasi: 11 Km
 - Distance To Karawang: 25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3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0 Km, Husein Sastranegara, 190 Km
 - Water Supply: 72,000 M3 Per Day
 - Waste Water Treatment Plan: 64,800 M3 Per Day
 - Electricity: 350 MVA
 - Gas: PGN, n.a.
 - Industrial Gas: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8,000 Lines
 - Road, Primary Row: 41-51 M
 - Road, Secondary Row: 18-20 M
 - Number Of Companies: 121 Companies

- PATRIA MANUNGGAL INDUSTRIAL ESTATE
 - Location: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220 Ha
 - Water Supply: PDAM, n.a.
 - Electricity: PLN,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 Number Of Companies: n.a.

- YKK INDUSTRIAL ESTATE
 - Location: Bekasi Regency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20 Ha
 - Developed Area: 20 Ha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3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60 Km
 - Water Supply: PDAM, n.a.
 - Waste Water Treatment Plan: n.a.
 - Electricity: PLN, n.a.
 - Telecommunication: Telkom, n.a.
 - Number Of Companies: n.a.

- KOTA BUKIT INDAH INDUSTRIAL CITY
 - Location: Kalihurip, Purwakarta
 - Service Provided: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And Industrial Land For Sale In General Industrial Zone. Standard Factory Building For Lease In Export Processing Zone.
 - Plan Area: 1,300 Ha, Including 65 Ha Export Processing Zone
 - Distance To Jakarta: 65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5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95 Km
 - Water Supply: 60,000 M3 Per Day
 - Waste Water: 28,000 M3 Per Day
 - Electricity: 250 MVA
 - Gas: PGN
 - Telecommunication: Telkom
 - Number Of Companies: 53 Companies

-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1, 1 18 Ha
 - Developed Area: 804 Ha, Distance To Jakarta: 60 Km
 - Distance To Bandung : 9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68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85 Km
 - Distance To Urban Center (Karawang) : 6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Cikampek, Exit East Karawang) 1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0 Km
 - Electricity: PLN , 90 MVA
 - Water: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20.000 M3 Each Day
 - Waste Water Treatment: 20,000 M3 Each Day, Activated Sludge Method
 - Telecommunication: Telkom, 480 Lines
 - Number Of Companies: 49 Companies
- KAWASAN INDUSTRI KUJANG CIKAMPEK
- Location: Cikampek,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Lease
 - Plan Area: 140 Ha
 - Developed Area: 140 Ha
 - Distance To Jakarta: 70 Km
 - Distance To Bandung : 85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100 Km
 - Distance To Airport : Soekarno-Hatta, 110 Km
 - Distance To Urban Center (Karawang) : 15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Cikampek, Exit Karawang East): 0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5 Km
 - Electricity: PLN , 20 MVA
 - Water: Kawasari Industri Kujang Cikampek, 8.40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Telkom, 2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14 Companies
- KAWASAN INDUSTRI MITRA KARAWANG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434 Ha
 - Developed Area: 333 Ha
 - Distance To Jakarta : 68 Km
 - Distance To Bandung : 9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76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to-Hatta, 90 Km
 - Distance To Urban Center (Karawang) : 5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Cikampek, Exit Karawang West): 5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5 Km
 - Electricity: PLN, Capacity: 124 MVA
 - Water: River, 21,60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Telkom, 1,5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n.a.
- MANDALAPRATAMA PERMAI INDUSTRIAL ESTATE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Lease
 - Plan Area: 292 Ha
 - Developed Area: 292 Ha
 - Distance To Jakarta: 70 Km
 - Distance To Bandung : 85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10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110 Km
 - Distance To Urban Center (Karawang) : 15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Cikampek, Exit Karawang East) 0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5 Km
 - Electricity: PLN , 110 MVA
 - Water: PDAM, 4,11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 Telkom, 1,880 Lines
 - Number Of Companies: 2 Companies
- SURYACIPTA CITY OF INDUSTRY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 Plan Area: 1,473 Ha
 - Developed Area: 991 Ha
 - Distance To Jakarta : 60 Km
 - Distance To Bandung : 9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7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85Km
 - Distance To Urban Center (Karawang) : 15 K..n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Cikampek, Exit Karawang East) 2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5 Km
 - Electricity: PLN , 300 MVA
 - Water: Suryacipta City Of Industri, 15,400 M3 Each Day for every 500 Ha
 - Telecommunication: Telkom, 3,0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n.a.
- TAMAN NIAGA KARAWANG PRIMA
- Location: Karawa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Sell, Plan Area: 400 Ha
 - Developed Area: 200 Ha
 - Distance To Jakarta: 75 Km
 - Distance To Bandung : 9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85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90 Km
 - Distance To Urban Center (Karawang): 12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Cikampek, Exit, Karawang West) 7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Karawang, 12 Km
 - Electricity: PLN , 120 MVA
 - Water: Private, 2,50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Telkom, 2,000 Lines
 - Number Of Companies: n.a.

- CIBINONG CENTRE INDUSTRIAL ESTATE
 - Location: Cibinong, West Java Province
 - Service Provided: Industrial Land For Lease, Plan Area: 82 Ha
 - Developed Area: 32 Ha
 - Distance To Jakarta: 60 Km
 - Distance To Bandung : 80 Km
 - Distance To Harbor: Tanjung Priok, 60 Km
 - Distance To Airport: Soekarno-Hatta, 75 Km
 - Distance To I.Icban Center (Citeureup) : 5 Km
 - Distance To Toll Road (Jakarta-Jagorawi, Exit Gunung Putri) 5 Km
 - Distance To Railway Station, Bogor, 20 Km
 - Electricity: PLN , 14 MVA
 - Water: Private, 70 M3 Each Day
 - Telecommunication : Telkom, 120 Lines
 - Number Of Companies: 13 Companies

38. 공장설립

- 공장설립 절차
 - 법인설립
 - 공장부지 매입 : 법인설립 등기 및 자본금 납입후 가능
 - 공장 부지 및 건축 허가 : 공장소재지역 군청
 - 환경조사 평가 승인 : 업종 및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
 - 공장건축
 - 항구적 조업허가(IUT) 취득
- 항구적 조업허가(IUP)신청서류
 - IUT(Fixed Business License)신청서
 - 첨부서류
 - 부지사용허가서, 무공해확인서(HP) 또는 환경분석 결과 보고서(ANDAL), 토지소유권 증서, 영업활동보고서, 생산계획서
- 근거법
 - 투자 조정 위원회(BKPM)령 No.15/SK/1993호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가. 투자허가 기관: BKPM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나. BKPM 연혁

1) 조직 명칭

- 영문: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 인니: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BKPM)

2) 기본정보

- 주 소: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44, Jakarta 12190, INDONESIA
- 전 화: 62-21-5252008
- 팩 스: 62-21-5254945
- Web-site: www.bkpm.go.id
- e-mail: sysadm@bkpm.go.id

3) 조직

- 조직지위: 대통령 직속기구
- 인원: 약 550명
- 조직구성
 - 본청: Head 밑에 Secretary(1명), Deputy(5명), 별도 부서로 구성
 - Secretary: 기획정보부, 법무 및 홍보부, 총무부 총괄
 - 5개 사업부: 5명의 Deputy가 각각 해당분야를 담당하며, 각 Deputy는 3-4개의 하위 부서(부서장 Director) 관장
 - Deputy for Development of Investment Climate
 - Deputy for Investment Promotion
 - Deputy for Investment Relation
 - Deputy for Investment Services
 - Deputy for Investment Realization Control
 - 이외 조사연수센터(Research & Training Center), 감사실이 별도로 있음
 - 지역(국내): 32개 지역에 Regional Office 운영
 - 지역(해외): 6개 지역에 사무소 (대만, 일본, 네덜란드, 호주, 영국, 미국)

4) 기능 및 권한: 국내외 투자업무에 관한 행정기관

- 투자정보 서비스
- 투자승인 서비스
-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5) 투자유치 기관으로서 평가

1967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이 제정된 후,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BPPMA (the Foreign Capital Investment Advisory Board)이 수립되었으며, 1968년 내국인 투자법이 제정되어 내국인 투자업무도 담당하면서 PTPM(the Technical Committee on investment)으로 조직이 변경됨

PTPM는 국내외 투자관련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업무로 권한이 국한되었으나, 1973년 투자허가 업무를 개선하고 투자촉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의 BKPM이 설립됨

인니 정부는 사회간접시설 건설 등 국가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자체 자본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BKPM의 직접적 투자기여도를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기관의 중요성 및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관련 업무도 같이 담당하는 투자관련 업무의 총괄 부서이며, 또한 투자관련 정보제공, 투자통계 작성, 투자촉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 승인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관련 업무의 실질적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투자관련 서비스는 법률회사 및 컨설팅 회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한인 법률회사 및 컨설팅 회사는 아래와 같다.

컨설팅 회사

회사명(국문)	회사명(영문)	전화	팩스
두왕컨설팅	DOOWANG	520-7153	521-2478
에버그린 한스	EVERGREEN HANS	5302-686	548-2786
하나로 컨설팅 인도네시아	HANARO CONSULTING INDONESIA	7082-0425	725-1513
코리아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KOREA INDONESIA CONSULTANT	5577-6454	5577-1523
주 컨설팅	NUSA JAYA DWIPA AGUNG	558-1618	558-1637
컨설팅21	CONSULTING 21	799-6182	799-6186

법률회사

회사명(국문)	회사명(영문)	전화	팩스
박 법률사무소	P.A.K LAW FIRM	797-6254	797-6255
이승민 합동법률 사무소	YSM & PARTNERS	525-5959	527-2423
한인법률사무소	LAW FIRM HANIN	7280-1011	7280-1014

41. 노무관리

가. 노무관리

인도네시아 노동통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고용가능인력(백만 명)	97.3	100.8	100.3	100.5	105.8
실업률(%)	7.0	9.05	9.45	10.0	10.3
주당근무시간(시간)	40	40	40	40	40
임금상승률(%)	30-40	20-30	15-20	8-15	10-15

자료원1 : PRICE WATERHOUSE COOPERS INDONESIA

자료원2 : National Labor Force Survery / 인니 중앙 통계국

나. 임금수준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중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 경쟁력이 매우 높은 국가중의 하나이다.

각 지역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가장 임금이 높은 자카르타 지역의 2006년도 최저 임금은 819,100루피아로 2005년 711,843루피아 대비 15%가 인상되었다. 2005년도의 인상율이 6%대였는데 2006년의 인상율이 15%로 높은 이유는 2005년 10월 단행된 126%의 국내유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율이 17%에 달했기 때문이다.

임금 외에 매년 1개월 분의 급여를 LEBARAN(무슬림 명절)때에 보너스로 지급하며, JAMSOS-TEC 이라는 사회보장 보험가입과, 중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한다.

인도네시아 법정 최저임금

(단위: 루피아)

지 역	2005 년	2006 년	인상율
아 체	620,000	750,000	21%
북부 수마트라	600,000	737,794	23%
리아우	551,500	637,000	15%
리아우 아일랜드	557,000	760,000	36%
잠 비	485,000	563,000	16%
남부 수마트라	503,700	604,000	20%
방카 벌리통	560,000	640,000	14%
병골루	430,000	516,000	20%
서부 자바	408,260	447,654	9.6%
자카르타	711,843	819,100	15%
반 텐	585,000	661,613	13%
중부 자바	390,000	450,000	15%
족 자카르타	400,000	460,000	15%
동부 자바	340,000	390,000	15%
발 리	447,500	510,000	14%
서부 누사 땡가라	475,000	550,000	16%
동부 누사 땡가라	450,000	550,000	22%
서부 칼리만탄	445,200	512,000	15%
남부 칼리만탄	536,300	629,000	17%
동부 칼리만탄	600,000	684,000	14%
말루쿠	500,000	575,000	15%
남동 슬라웨시	498,600	573,400	15%
남부 슬라웨시	510,000	612,000	20%

자료원: 인니 노동이주부

다. 노동분쟁 해결절차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P4D)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 노동 위원회(P4P)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 가능하다.

만일 해고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인력부 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인력부 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애 나서도록 되어있다.

라.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노무 관리 상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인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큰 소리보다는 가르쳐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 이러한 노사분규 방지를 위해서는 고용계약서 작성 시 현지 노동법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술함으로 써 추후 분쟁 시 대비토록 해야 한다.

마.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특징

인도네시아는 각종 법률 및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식민통치시대 하의 법률 또한 아직까지 계승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는 2003년 3월에 공포된 신 노동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여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 유해위험작업 시간: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12개월 근무 시 연 12일의 휴가
- 6년 근속 시 7년 8년째 1개월의 휴가
- 종교활동: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초과근무: 기본 근로시간 외, 첫 시간 1.5배, 두 번째 시간 2배

바. 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한다. 근로조건에 명시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만일 계약기간을 명시 하지 않을 경우 계약직이 아닌 일반적이 종신 고용으로 취급된다.
- Job Training: 작업소질의 증진, 개발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별도 장관령으로 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관련 규정에 의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 작업장/근무장소: 작업장의 변경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작업장의 변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작업장이 변경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된다.
- 해고: 해고에 대한 명확한 협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근무시간: 교대근무, 특정근무, 초과근무에 대한 회사의 규정 및 방침을 명시해야 한다.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무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한다.
- 연가, 휴가: 연가에 대한 규정, 생리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임금이 지불되는 휴가, 병가 사용조건과 방법 등을 명시한다.

이외 퇴직연금보험, 작업장 안전,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 해야 한다.

사. 퇴직금 관련

해고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신 노동법 151조3항)에 정한 규정은 기업주 입장에서 해고를 매우 어렵게 한다. 퇴직금은 퇴직 위로금, 근속수당, 보상금, 해고수당의 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사안별로 퇴직금의 산출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

42. 조세제도

가. 조세구조

- 현행세법 구성
 - 총칙 및 절차법 (법 No. 6)
 - 소득세법 (법인 소득세 포함)(법 No. 7)
 -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특별 소비세법(법 No. 8)
- 과세 방법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배당, 이자, 자유직업소득, 특허권 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동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 시에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 조세체계는 국세, 지방세 및 관세로 구성
 - 국세: 개인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매출세, 인지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해외 출국에 대한 출국세 등
 - 지방세: 재건축세, 자동차세, 텔레비전세(라디오포함), 유흥세 등
 - 관 세: 수출입관세, 담배소비세와 주세는 통관시에 과세

나. 세법근거

- 이전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시행해 왔던 복잡한 조세제도와 지방세 등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정.
 - 1984.1.1. 일반세법과 절차법을 규정한 No.6과 No.7에 의하여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를 시행.

- 1991년에 No.7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며, 1985년 No.8 특별소비세를 개정하여 거래과세인 부가가치세와 사치품매출세로 분리
- 1986.1.1에 토지, 건물에 과세하는 No.12 재산세법, No.13 인지세법을 시행
- No.6, 7 및 8을 개정하여 신고납부제도로 개정하였으며, 정부의 조사에 따른 결정결정은 관할세무서에서 실시.
- 과세결정 및 일반 행정에 대하여는 시행령과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법규정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제정.

다. 조세행정조직

- 모든 개인 및 법인 납세자는 소득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납세자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다음 열거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자
 - 소득금액 과세미달자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 불복제도

- 납세자는 아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납세고지
 - 과세처분
 - 추가고지
 - 세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금액의 환급청구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세액납부를 지연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은 행정처분(과세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후 1년 이내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1년 이내 결정이 없을 경우 납세자의 이의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간주한다.

□ 조세법원 소송절차

소송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되어야 하고 소송제기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조세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었어도 과세 당국의 세금징수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마. 외국국적 소유자에 대한 과세 계획

1) 거주자/비거주자의 지위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관행상 세무서는 국외재산으로부터의 비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외국 국적 소유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 소득의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내부적인 급여 가이드라인이 세무사들의 외국 국적자가 신고한 근로 소득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과세소득 및 비용/세율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과세가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 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측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유동비용은 소득이나 현물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현금이 이동하는 수당은 과세 된다. 자본옵션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최고 세율은 35%이나 상대적으로 낮게 집행되고 있다.

3) 영역 및 거주

거주(인도네시아 시민이 아니거나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여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결정되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 시민은 국내 납세자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비거주인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중과세협정의 조항을 적용 받는다.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 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 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 납세자는 국내 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근로에 대한 현금보상에 대해 과세한다. (보통 20%의 원천징수세)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협정 하에서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거주자는 그 근로자의 비용이 만약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도 과세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4) 이중과세방지

외국인 세액공제 제도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활용되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조세원칙에 의거 납부세액에 한정된다. 기타 수동적 소득에 대한 외국인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외국인 자원세액 공제에 대한 처리는 규정상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다.

5) 기타 세금

□ 출국세

출국시 거주자는 100만 루피아를 지불한다. 이 세금은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 개인세금의 선납으로 간주되며 만약 영업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경우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전제하에 근로자 소득세 공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영업목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 출국세가 여행시 근로자측에 과세되는 경우 연말 근로자 세금에서 완전히 공제된다. 그러므로 출국세는 근로자 세금의 효율적인 부분적인 선납이다.

6) 투자가 고려사항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및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동일기준 하에 과세된다.
- 어떤 형태의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면제가 별로 없다.

- 인도네시아에서 흡수 통합된 기업간 배당은 면세된다.
-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 부채/자산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다.
- 감가상각률은 관대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유예기간, 투자공제 또는 기타 경감조치는 없다.
- 종업원의 현물혜택에 따른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손실은 5년까지 이월되고 특정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최대 이월기간은 8년이다.
- 소유권 또는 영업규정 영속성은 세금공제를 위해 설정하는 자본손실을 이용하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 세무당국은 관련자간 계약에서 소득, 비용을 재결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 기업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는 거주 납세자의 법인세 또는 비거주 납세자의 최종적인 세금의 선납으로 간주된다.
- 주요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선불규정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 공동 관리 하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통합 납세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각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된다.

43. 외환관리

가. 투자자금

외환통제가 없어 투자자들은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신규 외국투자가 승인되면 환율은 승인된 투자액을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된다. BKPM이 승인한 환율은 투자계획이 승인된 후 후속 증가분을 포함한 총 외국투자가 결정될 때 외환시장에서의 현행 환율에 근거하고 있다. 환율변화에 따른 루피아 차액은 합작투자사의 회계장부에 할인 또는 Premium으로 계산된다. 이익배당금은 프리미엄에서 지급되지 않으나 청산시 송금자산의 일부를 형성한다.

나. 외국투자 및 기술의 등록

투자계획에는 주식자산, 부채자산, 기술지원협정 및 합작투자협정 초안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계획을 충족시킬만큼의 인도네시아로의 자금 이동은 외환차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Bank I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현금계정

인도네시아 화폐는 루피아(Rp.)이며 영업계약은 일반적으로 루피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계약이 외화 즉 달러나 엔으로 이루어 지기도 한다. 정부관리의 외환체제는 통화 바스켓에 연동되어 있으며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하여 확정하고 있다. 모든 주요 교역통화에서 현금계정은 외국통화를 관리하는 은행으로부터 가능하다. 외국통화의 현금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라. 자본 및 이익의 송금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오랜 경제정책으로, 외환통제는 없다.

외국자본 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에 명시된 외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외국소유 배당에 돌아가는 세금을 제한 이익과 세금 및 기타 금융부담을 공제한 이익으로부터 지급되는 이익배당금
-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자산매각으로 발생한 자본금의 송금
-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그리고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해외연수를 위한 비용의 지불
- 차관에 따른 이자, 원금, 로열티 및 기타 비용의 송금
- 국유화에 따른 보상의 전가

마. 태환불능에 대한 보장

모든 주요 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으며 IMF는 루피아가 완전히 태환 가능한 통화로 선언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인투자법 (ForeignCapital Investment Law)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외환을 해외에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택여건

인도네시아 거주지는 크게 외국인거주 밀집지역과 현지인 거주지역으로 크게 대별된다. 용수 및 전력사정이 원만할 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및 냉방 시설을 갖춘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에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월 임차료는 US\$ 2,000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인 및 일본인의 경우 치안여건 때문에 독립주택 보다는 아파트 입주를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장기임차의 경우, 임차기간 전체에 대한 임차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묵돈부담이 큰 상황이다.

전력사용료가 다소 비싼 편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월 전력사용료가 US\$ 100 이상에 달해 사실상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에어컨을 입주자가 구입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 물색 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자녀교육환경

자녀 교육 여건은 한국 국제학교(JIKS)가 운영되고 있어서 타지역보다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타 국제학교로 JIS(미국계), BIS(영국계), AIS(호주계), NJIS(미국계), 간디스쿨(인도계), 싱가포르 국제 학교 등이 있다. JIS는 전세계 미국계 학교 중 5위 이내에 든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한국 학생이 너무 많다는 단점과, 저학년(1-6학년)은 경쟁이 심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입학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006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JIS(미국계), BIS(영국계)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아, 저학년에서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한국식품 조달여건

현지에서의 한국식품은 자카르타를 포함하여 수라바야 등 대도시에서 구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가격도 통상 한국 소매가격의 1.5배 정도로, 외국에서 구입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크게 비싸지는 않은 편이다. 기타 한국 사람에게 필요한 장류(고추장, 된장류)도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몇 년간 주재할 목적으로 입국 시 이사짐에 몇 년치 물품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 그때 필요한 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한국식품 구입처

- 도라지: JL.MAHAKAM 11/1, JAKARTA (TEL)7203920 (FAX)7203939
- 무궁화: JL.SENAYAN NO.43 BLOK S KEBAYORAN BARU, JAKARTA (TEL)772214,7200812 (FAX)7206438
- 한 양: JL.BOULEVARD RAYA BLOK PA 1/8 - 1/9 KELAPA GADING PERMAI JAKARTA (TEL)4504363/4
- COSMOS(일본 슈퍼마켓): WIJAYA 11 KEBAYORAN BARU, JAKARTA (TEL)7206811
- 한일슈퍼(수라바야 소재): SURABAYA PLAZA, SURABAYA (TEL)515-088 (EX)3335
- 뉴서울수퍼: JL.MELAWAI RAYA 109 KEBAYORAN BARU, JAKARTA (TEL)7250520 (FAX)7250520
- 한일마트(농협직판장): JL. Pela Raya No.32,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TEL: 723-2086-7) (Fax: 726-2550)

기타 SOGO백화점 및 GOLDEN TRULY, HERO 등 대형 체인 슈퍼마켓 및 백화점 (자카르타에 30여 개 이상 소재)에서도 웬만한 한국식품류는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라. 생필품 구입여건

자카르타는 국제적인 도시로서 대형백화점에서는 세계 유명브랜드 물품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입상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부족한 물건이 전혀 없을 정도로 모든 물자가 풍족하다.

마. 일반 사항

1) 교통. 통신. 우편제도

- 교통수단: 택시이용은 쉬운 편, 요금도 비싸지 않으나 바가지 요금이 많음.
- 통신: 호텔, 백화점, 슈퍼마켓, 공항 이외에는 공중전화 이용이 어려움
- 우편제도: 우편 이용시 연착.분실되는 경우 종종 발생, DHL 등 속달 이용 권장
-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월평균 미화 100불 소요, 전화.수도료는 사용량 기준.

2) 환전

- 은행, 호텔, 공항, 기타 환전소에서 현지화로 환전 가능
- 은행에서 달러화 인출 시 현금인출 수수료 (0.5% 내외)공제 (여행자 수표의 경우 취급하는 은행이 제한적임)
- 달러 지폐는 1999년 이후 발행된 신권이 통용가능하며 지폐에 낙서나 조금 찢어진 경우 통용에 제약이 따름.
- 외환의 입 출금, 송금은 무제한

3) 은행, 우체국, 박물관 등 영업시간 및 휴무일

- 은행: 월 - 금요일 09:00-14:30
- 우체국: 월 - 금요일 09:00-15:00
- 박물관: 09:00 - 14:00
- 일반상점: 10:00 - 20:00
- 백화점: 10:00 - 21:00

4) TIP제도

- 일류호텔, 레스토랑: 10% 봉사료가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5-10% 정도
- 택시 운전수: 1,000루피아 정도
- 공항 포터나 벨보이: 짐 1개당 5,000 루피아 정도
-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팁을 주는 것이 관례임.

5) 동포 현황

- 총 인원: 약 25,000(05.1월)
 - 대부분 장 단기 체류자이며, 주재국 국적 취득자는 100여명에 불과.
- 동포 단체: 재인니 한인회(회장: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재인니 부인회, 지방 대도시 한인회
- 한국 국제학교: 교사 110명(교육부 파견교사 6명), 학생수 1,500여명

6) 종교활동

- 연합교회, 주님의 교회, 동부교회, 선교교회, 소망교회 등 13곳의 한인교회
- 한국신부주재 카톨릭 성당
- 불교신도의 경우 스님 없이 자체적으로 사원 운영(2곳)

7) 호텔

- 호텔 가격은 비싼 편임.
 - 최고급 호텔(GRAND HAYTT): 1박 미화 200불 이상
 - 고급 호텔(MANDARIN, HILTON): 1박 미화 120불
 - 중급 호텔(PRESIDENT, INDONESIA, CENTURY PARK): 1박 미화 40불
 - 기타 여인숙: 최소 미화 30불

바. 출입국 관련

- 사증(비자) 및 노동 허가
 - 비자가 필요하나 관광, 회의 참가 등인 경우 자카르타 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함. (30일 이내 체류/출장 가이드 참조)
 - 그러나 도착비자는 기간연장이 안되므로 부임 입국과 같이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사증을 받고 입국해야 함.
 - 특히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이 허용됨.

사. 의료 건강 (예방 접종 등)

- 한국 내 일반 의약품은 현지 열대 기후의 특성상 큰 효능이 없으며 다만, 항생제, 지사제, 파스, 회충약 정도는 가져 오는 것이 좋음.
- 한국 식품점에 웬만한 한국 의약품이 있으나, 가격이 국내의 2-3배임.
- 유아 예방접종 중 수두, 장티푸스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음.

아. 체류 시 유의사항

1) 건강 유의사항

- 계속되는 냉방 속의 생활로 냉방병(감기, 두통, 신경통 등)과 무기력증 지속
 - 규칙적인 적절한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 식사를 제때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 과음을 자제함이 건강 유지에 바람직
- 장티푸스, 세균성 식중독, 파라티푸스, 담석증, 요도 결석, 치주염 등 빈발
 - 식수, 양치는 AQUA, ADES 등 정수된 물을 사용.
 - 일반 현지 음식 및 음료 이용은 지양(식당에서 가급적 음료수에 얼음을 넣어 먹지 않도록 함.)

2) 정화, 전기, 수도 사정 불량

- 전화접촉률 저조 및 빈번한 고장
- 수도는 수질의 불량으로 음료 및 취사에 사용 불가
 -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은 지하수보다 상수도가 훨씬 좋으므로 상수도 사용 권장

3) 국민성 및 풍습

- 왼손으로 용변을 처리하는 습관 때문에 왼손으로 사람의 신체를 건드리거나 악수나 물건을 건네면 실례

4) 치안 불안지역(여행자제 요망)

- 자카르타 시내
 - 동부 자카르타: Pulo Gadung, Gajah Mada, Kota, Cawang
 - 서부 자카르타: Slipi, Daan Mogot, Pluit
 - 중부 자카르타: Tanah Abang, Senen, Kemayoran, Cililitan, Cempaka Putih
 - 북부 자카르타: Kojat(TG. PRIOK), Kramat Tunggak
 - 남부 자카르타: Blok M, 스나안 경기장
- 기타: 아체, 말루쿠, 동티모르 지역

자. 자녀 교육여건

초, 중, 고등학생을 둔 외국인 부모는 자녀를 나이, 학년에 맞추어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에 입학시킬 수 있다. 국제학교는 여러 개가 있으므로 학비 수준 및 학교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문의를 하고 간단한 입학 시험을 거치면 맞는 시기에 입학할 수 있다.

자카르타내에 있는 국제학교는 다음과 같다.

□ JIKS (Jakarta International Korean School)

자카르타내의 한국인학교로서 한국의 교육방식과 똑같이 운영된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편성되어 있으며 약 40여 학급에 한국인 학생만 1,500명 정도가 재학중이다.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입학제한이 없으며 학비는 2006년도 1학기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학기당 1,440달러, 중학교 학기당 1,590달러, 고등학교가 학기당 1,740달러 이고 건축기금이 500달러, 입학금 1,000달러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JIS (Jakarta International School)

국제학교로는 학비가 가장 비싸며 자율적인 서양의 교육방식답게 학생개개인의 특별활동을 보장한다. 입학시 등록비 100달러, 시설사용료 800달러, 기부금 10,000달러/4년을 납부하며, 수업료로 유치원 11,200달러/1년, 초등학교 13,400달러/1년, 중학교 15,500달러/1년, 고등학교 15,500달러/1년을 각각 지불한다. 기부금은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 회사가 4년치를 선납하도록 되어있으며 매년 2,500달러씩 공제하고 중간 퇴학 시 잔액은 환불한다.

학비를 개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년 3,000달러씩 지불한다. 또한 수업료도 1년치를 선납해야 한다. 학기는 매년 8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난다.

□ BIS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영국학교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만이 입학이 허용되고 특별한 기부금이나 입학금이 없고 유치원 6,100달러, 초등진학반 8,950달러/1년, 초등학교 1-2학년 11,000달러/1년, 초등학교 3-6학년 12,000달러/1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3,900달러/1년을 각각 지불한다. BIS 역시 매년 가을인 9월에 학기가 시작한다.

□ NJIS (North Jakarta International School)

자카르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NJIS는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와 아직은 많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다. 입학 시 등록금은 100달러이며, 매년 기부금을 2,500 달러씩 납부해야 한다. 수업료는 유치원 7,000달러/1년, 초등진학반 9,000달러/1년 초등학교 11,315달러/년, 중고등학교 11,765달러/년을 각각 지불 한다.

□ AIS(Australian International School Indonesia)

자카르타 남쪽에 위치한 호주계 학교로서 약 650명의 학생을 가진 중견 인터내셔널 학교이다. 1996년에 설립되어 현재 발리와 뼈자텐 지역에도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 ACG (ACG International School Jakarta)

뉴질랜드학교로서 자카르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에 개설되어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은 학생수도 다른 곳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입학 시 등록금 150달러이며, 매년 기부금을 2,500달러씩 납부해야 한다. 수업료는 유치원 6,500달러/1년, 초등학교 1학년 7,500달러/1년, 초등학교 2학년 9,000달러/1년, 초등학교 3-6학년 11,000달러/1년, 중고등학교 12,000달러/1년이다.

□ GMS (Gandih Memorial School)

JIS나 한국 국제학교 다음으로 한국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인도 국제학교인 Gandih 스쿨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비가 전부 똑같으며 기부금이 기본으로 2,550달러/1학기(6개월), 학비가 275달러/월 이다.